



# 새 마음 새 精神으로 來日을 對備하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

84年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다른 체육단체들처럼 신문이나 방송에 떠들썩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태권도는 國技道로서, 世界속에 자랑스러운 武道스포츠로서, 國威를 선양하며 조용한 前進을 하였읍니다.

이에 힘입어 國內에서는 任員, 選手등 國威를 宣揚한 有功者들에게 體育福祉基金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태권도 自體內에서도 福祉基金을 蓄積하고 있어, 88~89年경에는 태권도인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3년에는 태권도가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北韓에서는 최흥희(반 체제인사)를 앞세워 妨害工作을 I. O. C.와 各國 體育會를 통하여, 그들의 擊術을 태권도라고 主張하며, 태권도가 北傀의 것이라고 宣傳功略을 폈읍니다만, I. O. C.는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國技院을 訪問하여 우리의 태권도를 직접 보고 느낀 덕분에 北傀의 거친 공세를 자연스럽게 물리쳤으며, 우리는 오히려 스포츠 외교면에서, 태권도의 참 面貌를 보여주는 契機로 삼아서, 더욱 더 태권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84년!

우리에게 한 일이 많이 散在되어 있습니다. 國內組織의 整備, 諸般教育의 擴充등 內實을 굳건히 다져야 하겠읍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正式種目에 採擇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35個 競技團體 중에서 처음으로 코우치 아카데미의 分院을 담당케 되어 教育面에 있어서의 아카데미教育院을 발전시켜서, 86, 88년을 對備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 태권도인은 범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正화의 대열에 先봉적 역할도 하여야 하겠읍니다. 또한, 85년에는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開催함으로, 主管하는 본 協會는 任員과 全跆拳道人들이 合心하여 태권도 宗主國의 새 모습을 世界人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團結과 協同의 精神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여야 하겠으며, 모든일에 겸허하고 배우는 자세로 준비하는 태권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태권도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장 및 지도사범 숙지사항

(국기원 사무국 운영부제공)

심사신청서(국기원 양식 1호) 작성요령에 대해서 수차 공문 또는 태권도지에 공시사항으로 게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 실태는 매우 미진함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따라서 피심사자(응심자)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난 날 많았던 것은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지도층에서는 경험한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파오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만 태권도 심사업무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틀리기 쉬운 행정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수록 하였으니, 이를 실무에 실용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신청서 작성요령

### 1. 본적 및 주소

가. 본적지를 기입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도만 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당원품 단대장에 기록됨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본적을 시, 군(읍), 면(동), 리 단위까지 표기하여야 함.

나. 주소는 발급되는 소품, 단증에 표기됨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 2. 사 진

가. 증명사진 2매(2.5 × 2.5)를 첨부할 것이며 사진 뒷면의 상단부만 풀로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사진은 소품, 단증 발급에 사용하므로 필히 첨부하여야 함.

### 3. 성 명

가. 성명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표기시에는 정자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글씨체로 표기하여 함.

나. 성명은 주민등록표 등,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에 근거를 두고 표기할 것이며 통상 집에서 부른 성명을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한자, 한글, 영문성명 표기내용이 각각 상이한 사례가 허다하니 정확한 표기내용이 되도록(3자일치)하여 주기바람.

### 4. 생년월일

가. 호적상(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나 통상 음력생년월일을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임.

나. 심사신청서에 표기된 생년월일이 착오시에는 사전을 갖고 추천인(관계 사범) 또는 응심자 본인의 실인을 낱인하지 않고 칼로 끊어서 정정 번조하는 비행정인 행위를 취하는 사례가 허다함.

다. 표기 사실 내용이 착오시에는 필히 추천인 또는 응심자 본인의 실인 낱인하지 않은 것은 향후 인정불가임.

### 5. 품, 단번호

가. 현재 전단(품)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나 발급일자 필히 다음 “에”와 같이 표기하기 바람.

“에” 전단, 품증번호:

2단 12345 (81.3.18)

1품 2213 (80.5.10)

## 6. 신청인

- 가. 응심자 본인의 설명을 표기하고 필히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인이 대리 신청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여야 함.

## 7. 추천인

- 가. 추천인은 응심자의 해당 품, 단의 수련 정도 및 심사신청서 상의 기록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확인 추천임으로 필히 실인 날인하여야 함.
- 나. 실인 날인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인정할 수 없는 심사신청서임을 명심하여 주기 바람.

## 8. 수련도장 및 추천일

- 가. 심사자가 수련하고 있는 도장명 및 전화 번호를 표기하므로써 심사 신청서 작성상의

착오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연락 처리 함.

- 나. 피 심사자 수련도장의 관장(사범)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타, 협조체제 용이 다. 추천일자를 표기하므로써 추천상의 시한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 근거자료됨.

## 9. 각 시도협회장 인준추천

- 가. 담원 양식 1호(심사신청서) 추천인란 하단에(공란) 각 시도협회장인준추천 (직인 날인, 4단 이하는 스탬프 가함)을 하여 주기 바람.
- 나. 인준 추천이란 담당사범의 확인 추천한 사실을 해당 시도협회장이 인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필히 이행하여 주기 바람.  
(현재 일부 협회에서 이행치 않고 있음)

## 품에서 단 (2, 3, 4 단)으로 승단자 추천 절차

1. 각 품에서 각 단으로 승단년령 및 년한

| 에서 (품에서) |                      |  | 로 (단으로) |                          |
|----------|----------------------|--|---------|--------------------------|
| 품        | 년령 및 제한              |  | 단       | 년 령                      |
| 1 품      | 만 15 세된 일자부터 1 년 경과자 |  | 2 단     | 만 16 세가 되면 2 단승단 자격 부여함. |
| 2 품      | 만 15 세된 일자부터 2 년 경과자 |  | 3 단     | 만 17 세가 되면 3 단승단 자격 부여함. |
| 3 품      | 만 15 세된 일자부터 3 년 경과자 |  | 4 단     | 만 18 세가 되면 4 단승단 자격 부여함. |

2. 품에서 단으로 승단자는 필히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를 심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을경우 실격처리함.(승단년령 확인하기 위함)
3. 일선 지도사범은 피 심사자가 품에서 단으로 승단할자가 있을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각품증을 확인하고 심사 신청서에 명확히 표기 바람. “예” 현품단: 1 품단  
응시품단: 2 품단  
“예” 품단번호: 제 133566 호  
(83.1.10. 발급)

2. 년령 미달 여부 (품에서 단으로 승단자)  
· 1 단은 만 15 세 이상이어야 함)
3. 년령 초과자 여부 (품은 15 세 미만)
4. 품, 단번호 정확히 표기(번호 착오기재 또는 누락자)
5. 주민등록표 미첨부자(1단 및 4단이 상자, 품에서 단으로 승단할자)
6. 생년월일 및 품, 단번호 기재 누락자

## 피 심사자중 심사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 초본 첨부자

## 차상위 승품, 단 자격여부 사전 확인 점검 절차 (담당 지도사범)

1. 승품, 단, 기한 미달 여부(심사규정 제 8 조 승품, 단, 년한)

1. 품(1, 2, 3 품)에서 단(2, 3, 4 단)으로 승단할자
2. 1 단 및 4 단 이상 응심자
3. 위 1, 2 항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음.

# 힘을 기르소서

〈民族三大資本同盟 저축론〉

安 秉 煜 교수



피 테의 저작 파우스트 제1부에, 파우스트가 新約聖書의 요한복음 제1장을 번역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온다.

「太初에 말씀(로고스 Logos)이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제1장 벽두에 나오는 말이다.「나는 말씀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파우스트는 「태초에 뜻이 있었다.」라고 고친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다시 생각한다. 「일체(一切)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뜻 일까?」 아니다. 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뜻이 아니고 힘이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태초에 힘이 있었다」

라고 바꾼다. 그러나 무엇인지 불만스럽게 느껴진다. 파우스트는 불현듯 영의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태초에 행동(行動)(타트・Tat)이 있었다.」라고 쓴다. 독일어의 타트는 행동, 활동 또는 실천이란 뜻이다.

파우스트는 말씀을 뜻으로 번역했다가 힘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행동으로 번역한다. 말씀, 뜻, 힘, 행동은 서로 밀접한 의미적(意味的) 연관성을 갖는다. 말씀에는 으레히 뜻이 있다. 뜻없는 말이란 있을 수 없다. 뜻이 있는 말이야말로 정말 말이다. 또 뜻이 있으면 반드시 힘이 생긴다. 뜻은 힘의 원천이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활동이 있고 힘이 없으면 활동이 있을 수 없다. 큰 힘이 있으면 큰 활동을 할 수 있고, 적은 힘이 있으면 적은 활동이 있다. 힘은 활동의 원천이요, 활동(活動)은 힘의 표현이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힘이 일체를 결정하고 만물을 지배한다.

한 두달 밖에 안된 갓난아이는 제발로 일어서지를 못한다.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이다. 자전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자동차를 따라 삼을 수 없다. 요컨대 달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국민 일인당 소득이 천팔백불 정도밖에 안되는데 미국은 구천불을 넘는다. 우리는 경제 생산력(經濟的 生産力)이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요, 미국은 그만큼 경제적 실력(經濟的 實力)을 갖기 때문이다. 모두 국력(國力)의 속일 수 없는 표현이다. 함 석헌 선생(咸錫憲先生)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역사(韓國歷史)」에 의하면 우리의 역사상에는 전쟁의 수가



약 백년 있었다고 한다. 그 중의 오복십번을 제하고는 거의 다 우리 땅에서 치른 싸움이요, 외국과의 싸움은 고구려(高句麗) 때의 몇 번을 제하고는 거의 다 우리 땅에서 치른 싸움이요, 언제나 우리가 막는 싸움이요, 막다가 진 싸움이다. 남의 땅에서 강화조약(講和條約)을 맺은 일은 거의 없고, 모두 성하지맹(城下之盟)이었다고 한다. 왜 외적을 나라 안에 끌어들이는 수치(羞耻)와 굴욕(屈辱)의 전쟁만 하였는가? 요컨대 외세를 물리칠만한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힘의 각축장(角逐場)이요, 세계는 국력과 국력(國力)이 다투는 냉엄한 힘의 무대다. 힘이 있는 자는 흥하고 힘이 없는 자는 패한다. 힘이 많은 자는 많이 흥하고 힘이 적은 자는 적게 흥한다. 이것은 역사의 가차없는 법칙이다. 번영의 정도는 힘의 정도다. 힘의 다과(多寡)가 번영의 대소(大小)를 결정한다. 크게 번영하려면 큰 힘을 기르지 않고 번영을 원한다는 것은 밥 안먹고 배불러 보자는 이야기다.

도산은 열 일곱살 때(1894년) 평양에 갔다. 그 당시 평양은 청일전쟁(淸日戰爭)의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파괴되었다. 17세의 다정다감한 소년 도산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마음속에 큰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일본과 청국이 싸우면 일본에서 싸우거나 중국에서 싸울 일이지 왜 한국땅에 마음대로 들어 와서 싸우는가, 왜 한국이 청일전쟁의 비참한 싸움터가 되었는가.

소년 도산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했다. 그는 하나의 명백한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 강토에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름만 있고 힘이 없는 독립국가(獨立國家)다.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힘을 기르는 도리밖에 없다. 국력배양(國力培養)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어떻게 해야 힘을 기를 수 있느냐. 도산은 이 문제를 두고 두고 생각하였다. 도산의 사상은 힘의 철학(哲學)이요, 그의 운동은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운동이다. 그의 사상과 운동의 구체적 조직적 표현(組織的 表現)이 1913년 5월 13일 도산이 36세 때에 조직한 흥사단이다.

흥사단은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단체요, 흥사단 운동은 건전인격(健全人格)의 형성(形成)과 공고한 단결에 의해서 민족이 독립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기본역량(基本力量)을 준비하고 축적하자는 운동이다.

힘이라는 개념은 도산의 사상과 흥사단의 기본원리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결국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 독립을 쟁취하려면 그만한 힘을 마련해야 한다. 독립한 후에 민족이 부흥하고 국가가 번영하려면 번영할만한 자격과 힘을 준비해야 한다.

민족독립(民族獨立), 민족부흥, 민족번영의 기본역량을 준비하고 축적하자는 것이 도산의 흥사단운동의 기본 목표다.

도산의 사상은 힘의 철학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힘이란 무엇이며, 힘은 어디서 생기며,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이것이 도산의 힘의 철학의 핵심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라고 도산은 생각했다. 힘과 일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큰 일에는 큰 힘이 필요하고, 적은 일에는 적은 힘이 필요하다.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민족독립, 민족부흥이라는 큰 일을 하려면 큰 힘을 예비해야 한다. 「청년(靑年)에게 호소(呼訴)함」이라는 글에서 도산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며,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는 것이다. 만일에 힘을 떠나서 목적을 달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공상이다. 제군이며, 일은 힘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일은 힘의 산물(產物)이라는 도산의 명제(命題)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힘을 기르고 힘을 준비하는 일에 성실(誠實)과 노력을 다하고요 도산은 말한다. 우리는 요행과 우연을 바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우리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도산은 온 국민을 향하여 힘을 기르는 일에 앞장을 서려는 단체와 운동이

홍사단이요, 홍사단운동이다. 도산이 우리에게 남겨준 십여권의 글은 그 어느 글인들 인생(人生)의 금언(金言), 민족경륜(民族經綸)의 진리가 아니리오마는 「**힘을 기르소서**」라는 글은 금언 중의 금언이요, 경륜중의 경륜이다. 도산(島山)은 1921년 7월 7일 미국, 멕시코, 하와이(그는 그 당시 상해에 계셨다)에 있는 홍사단 동지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힘을 기르소서**」를 외쳤다. 이 글은 도산의 홍사단이념의 핵심, 민족 독립운동(獨立運動)의 방략(方略), 민족 부흥(民族復興)의 원리를 집약적으로 요약한 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구절절이 애국(愛國)의 성충(誠忠)이 깃들었고 민족 독립의 비원(悲願)이 간직된 일대문장이다. 특히 역사의 앞장을 서는 젊은 청년들이 꼭 한번 필독하기를 권한다. (홍사단출판부 발간:『도산 안 창호』)

도산은 이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에 간절히 부탁하는 바와 이것의이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이 말이다. 천사만려(千事萬慮)하여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의이다. 여러분 동지여……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을 바라고, 우리의 힘을 기릅시다. 오늘의 우리의 힘이 없음을 한(恨)하지 말고, 힘만 있으면 성공할 줄을 깊이 깨닫고,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있는 뜻과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합시다. 세상만사에 작고 큰 것을 물론하고 일의 성공이라는 것은 곧 힘의 열매입니다. 힘이 작으면 성공이 작고, 힘이 크면 성공이 크고,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원리(原理)와 원칙(原則) 이외다.」

진실로 명백한 사리판단(事利判斷)이다. 일은 힘의 산물이요, 일의 성공은 곧 힘의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힘 밖에 없다. 오늘의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힘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진리를 믿고 큰 힘을 기르는데 온갖 마음과 뜻을 다하자는 것이다. 도산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은 절대로 논리의 비약이 없다. 인과의 법칙에 근거하여 사리(事理)의 정당한 이론을 말한다. 추상적 관념론(抽象的 觀念論)에 호르지 않고 실증적(實證的) 사실에 입각해서 그의 사상을

전개한다. 이상주의는 공허하다. 도산은 현실의 대지(大地) 위에 굳건히 서서 이상의 방향을 제시한다.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개인의 경우건 국가의 경우건을 막론하고 힘은 정성(精誠)과 인내(忍耐)와 희망을 가지고 기르고 쌓는 것이다. 힘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혼자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힘은 요행이나 운연의 산물이 아니다.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요, 꾸준한 축적의 결과다. 구미의 부강 번영한 나라들이 본래부터 부강 번영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오랜동안의 정성된 노력과 전인불발(堅人不拔)의 정신적 용기(精神的 勇氣)에 의해서 건설한 것이다. 모두 피와 땀과 눈물과 노고(勞苦)의 산물이다. 진주를 캐버려든 물속 깊이 들어가는 모험이 필요하다. 범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범을 잡을 수 없다. 귀중한 가치는 반드시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 많은 수확을 얻으려거든 많은 씨를 뿌려야 한다. 도산은 냉철한 눈으로 역사의 인과업보(因果業報)의 진리를 파악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에 가장 힘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민족들의 근본을 돌아보면 본래 하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되다. 그러므로 우리 무리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속히 쉽게 되지 않는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것이다. 오직 대한민국(大韓民族)의 생명은 힘을 기르고 못기름에 달린 줄을 깊이 자각하고, 굳은 결심으로 나아갈 뿐이외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의 철학을 말하고 신념(信念)의 윤리(倫理)를 가르친다. 힘을 기르고 못기르는데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 그러므로 깊은 자각과 굳은 결심으로 꾸준히 나아갈 뿐이라고 강조한다. 도산은 우리 민족의 본질과 장래에 대해서 결코 비판적 견해를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밝은 낙관적(樂觀的) 견해를 지녔다. 우리가 뒤떨어진 것은 다만 자각이 늦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 조금도 비판을 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녀석히 대사업(大事業)을 이룰 민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도산은 말한

다. 독립이나 번영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기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한 공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경(逆境)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苦難)에 굴하지 않는 정신이 요구된다. 사람은 언제나 건전하고 향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후퇴하고 타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부단히 건전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불퇴전(不退轉)의 의지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옳은 것으로 깨달은 것은 이롭거나 해하거나 성(成)하거나 패(敗)하거나 그냥 꾸준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천직(天職)이요, 본무(本務)인 줄을 깨달음이다. 동지 계군(同濟)이, 우리 앞에는 순경(順境)보다도 역경(逆境)이 많습니다. 쉬운 것보다는 어렵고 험한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지려는 큰 뜻을 세운 우리 무리는 이것 저것에 방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자각으로 세운 주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부탁하오니 여러분 동지는 부지런히 배우셔서 자신의 인격(人格)을 건전(健全)케 합시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여 단결력(團結力)을 더욱 공고하게 하읍시다. 한 분이라도 개인(個人)을 본위(本位)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오직 우리의 흥사단을 본위로 하읍시다. 이때는 특별히 희생적(犧牲的) 정신을 요구하는 때이다. 이리하여 우리 흥사단을 본위로 하지 말고 윤리의 국가와 민족(民族)을 본위로 하읍시다. …흥사단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희생적 인물이 집합한 단체로서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희생 하읍시다.」

「사람이라는 것은 늘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간혹 떨어질 때도 있나니 떨어짐을 깨닫는 때에 다시 올라가며 식음(冷)을 깨닫는 때에 다시 덥게 하는 것이 위로 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도산의 구국(救國)의 의지와 정열(情熱)이 얼마나 강하였든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흥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흥사단은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도산은 개인본위(個人本位)의 생활을 버리고, 단본위(團本位)로 민족본위(民族本位)로 살은 가자고 외쳤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건전하고 향상하자고 호소했다. 그것이 자기의 천직이요 본무(本務)라고 믿었다. 국

보잔난(國步艱難), 민족쇠퇴(民族衰退)의 어둠속에서 국가번영 민족독립을 위하여 주야로 고심조사(苦心焦思)한 애국의 사상이 도산의 면목이 악동하는 글이다.

각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과제가 다르다. 도산이 살아계시던 때의 우리 민족의 기본과제(基本課題)는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었다. 독립이란 무엇이나, 어떻게 하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나, 독립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다. 언제 독립할 수 있는나, 독립할 자격이 생길 때 독립할 수 있다. 독립할 자격은 무엇이나,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급선무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도산은 말한다. 참으로 냉철한 사리판단(事利判斷)이다. 이것은 그때 보다 5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독립(獨立)이란 본 뜻이 내가 내 힘을 믿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함이요, 이 반대로 남의 힘만 믿고 남의 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노예(奴隸)라 하나니, 만일 우리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관계만 쳐다보고 기다린다면 이는 독립운동에 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혹 외국의 판계와 세계의 시운(時運)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만한 힘이 있은 후에야 가히 이용치 않으리까. 내가 일찍 여러번 말하기를 「참배 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 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獨立國)의 열매가 있고 돌배될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亡國)의 열매가 있다」고 하였읍니다. 독립할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곧 독립할 만한 힘이 있음을 이 름이외다.」

참배나무에 돌배가 열릴 수 없고 돌배 나무에 참배가 열릴 수 없듯이 독립할 만한 힘이 있는데 망국인이 될 수 없고 망국할 만한 자격 밖에 있는데 독립국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인과업보(因果業報)의 법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독립하려거든 독립할 수 있는 자격,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독립할 수 있는 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러한 힘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여기서 도산의 민족부흥(民族復興), 국가경윤(國家經綸)의 핵심이 전개된다. 그것은

또한 홍사단의 기본 이데올로기다. 도산은 독립할 수 있는 힘의 기초로서 「건전인격(健全人格)의 형성(形成)」과 공고한 단결이라는 이대원리(二大原理)를 제시하고, 건전인격의 핵심요소로서 사대정신(四大精神)과 삼대육(三大育)을 주장하고 결론으로서 민족의 삼대 자본축적론(三大資本蓄積論)을 강조한다. 이 여러 가지 원리는 서로 밀접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다. 민족의 기본적인 역량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도산은 건전인격의 형성과 공고한 민족적단결(民族的團結)이라고 보았다. 민족을 구성하는 각 분자들이 저마다 건전한 인격을 이루고 그러한 인격들이 굳게 뭉치어 신성한 단결을 이룰 때 민족의 힘의 원천이 생긴다고 믿었다.

건전인격을 형성과 공고한 단결을 이루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진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격훈련과 단결훈련이다. 특히 우리는 단체 생활의 훈련이 적기 때문에 공고한 민족적 단결을 이루려면 진지한 계속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도산은 생각했다. 민족의 힘을 축적하려면 이대훈련(二大訓練)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도산은 믿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급한데 언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사람들은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도산의 신념에 의하면 나라의 형편이 급하기 때문에 더욱 인격훈련, 단결훈련을 하고 안함은 민족(民族)의 사활문제(死活問題)라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도산은 온 국민에게 인격훈련과 단결훈련을 강조하고, 민족의 근본적인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온다고 외쳤다. 도산은 「청년에게 호소함」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산물(產物)이다. ... 계급이여 일은 힘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만일 그것을 믿고 힘을 찾는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겠는가,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훈련(人格訓練)과 단결훈련(團結訓練)이 두 가지를 청년 계급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다.

오늘 일반 민중에서 큰 기대를 많이 가진 계급, 또 스스로 큰 힘을 가지 있는 계급이 하여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쓸 것은 인격훈련과 단결훈련 이 두 가

지라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가 없는 듯이 생각하여 냉담시하는 이도 있고, 또는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인격훈련(人格訓練)이나 단결훈련 같은 것을 하고 앉아 있겠느냐고 이것을 배격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때이기 때문에 인격을 훈련하고 단결을 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대한청년이 인격 훈련과 단결훈련을 하고 아니하는데 우리의 사활문제(死活問題)가 담겨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일찍 단체생활의 훈련이 부족한 민족인 것을 자인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특별히 단결(團結)을 훈련하여 공고한 결합력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색은 재목, 약한 돌로 강하고 견실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약한 국민, 불건전한 인간으로 도저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건전국가(健全國家)를 형성하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분자인 국민 저마다가 먼저 건전인격이 되어야 한다. 강한 국민이 강한 국가를 만들고 약한 국민이 약한 국가를 만든다. 도산이 건전국가의 기초로서 건전인격(健全人格)의 형성(形成)을 주장하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건전인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튼튼한 재목과 돌이 제자리에 견실하게 놓여야 튼튼한 집을 이루듯이, 건전인격들이 공고한 단결로 강한 민족적 결합(民族的結合)을 이룰 때 건실한 사회가 형성된다. 도산이 단결훈련을 강조하는 소이다.

민족의 근본적인 힘을 기르려면, 건전인격의 형성과 공고한 단결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기초작업(基礎作業)이 없이는 민족의 기본적역량(基本的力量)은 축적되지 않는다. 민족부흥(民族復興), 민족번영을 위한 이 기초작업을 하자는 것이 홍사단운동이다.

어떻게 하면 건전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느냐 도산은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사대정신과 덕육, 체육, 지육의 삼대육으로 건전인격을 훈련하고자 강조 하였다. 도산은 「힘을 기르소서」에서 민족독립(民族獨立) 민족부흥, 민족번영의 기초작업으로서, 삼대자본축적론(三大資本蓄積論)을 강조하였다. 금전의 자본, 지식의 자본, 신용의 자본을 저축 하

자는 것이다. 금전의 자본은 경제적 자본이요, 지식의 자본은 정신적 자본이요, 신용의 자본은 도덕적(道德的) 자본이다. 한 개이든 한 민족이든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금전의 자본과 지식의 자본과 신용의 자본이라는 세 가지의 밑천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자본축적이 없이는 개인도 독립할 수 없고 민족도 독립할 수 없다. 홍사단운동의 목적은 민족의 삼대자본(三大資本)을 축적하려는 데 있다. 이 자본이 넉넉히 축적되면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생기고, 민족번영, 민족부흥의 자격과 힘이 저절로 솟아난다고 도산은 생각했다.

도산은 이렇게 말했다.

「힘을 준비함에는 별한 새 주의(主義)와 방법(方法)을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근본 정한 주의와 방법을 관철할 뿐이외다. 개인 개인의 힘이 있기 위하여 건전한 인격(人格)을 작성하며 각 개인이 분리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신성한 단결(團結)을 이루고자 하옵세다. 각 개인의 건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사대정신과 삼대육을 하자고 하옵세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신용(信用)의 자본을 동맹축적(同盟蓄積) 하옵세다. 한 가지 이상의 학술(學術)이나 기예(技藝)를 학수(學修)하여 전문직업을 감당할만한 지식의 자본을 동맹저축 하옵세다. 각기 수입에서 십분지 이(十分之二) 이상을 저금하여 적어도 천원(그 당시의 일원이 지금의약수백원 정도-필자) 이상의 금전의 자본을 동맹저축 하옵세다. 이 주의와 이 방침(方針)이 곧

우리의 힘을 예비하는 바른 길이요 순서이외다.」

도산은 삼대자본을 저축하되 혼자서 하지 말고 이것 부터 동맹저축하자고 하였다. 같이 협동하고 동맹해서 저축하자는 것이 도산의 독특한 깊은 생각이다. 민족독립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힘을 기르는데는 삼대자본(三大資本)을 동맹저축하는 도리밖에 없음을 도산은 강조하고, 그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산은 지금부터 70 년전에 홍사단을 조직하고 홍사단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민족경륜의 구상과 방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치밀하였던 가를 족히 알 수 있다. 도산은 민족독립, 민족부흥 운동에 앞 장을 서면서 자기의 정신적 기본자세(精神的 基本姿勢)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이여, 이 때가 여름어름할 때가 아니외다. 독심(篤心)을 품고 기어히 불쌍한 대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비상한 노력을 다할 때이외다. 나는 이제부터 저마다 더욱 의지의 힘을 강고(強固)하게 하여 세상이야 비웃든지, 칭찬하든지, 뚫든지, 해하든지, 미워하든지, 믿든지, 의심하든지, 다 불고(不履) 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건지는데 합당한 길이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불붙고 끝까지 나아가려 합나다.」

진정한 선각자의 자세, 위대한 선도자(先導者)의 모습, 불사조(不死鳥)와 같은 애국(愛國)의 사상가(思想家) 도산의, 진면목이 여기에 생생하게 약동한다.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라고 외치는 도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지금도 두드린다.

## ◎ 공 중 전 화 ◎

이 공중전화라는 “란”은 공중 전화처럼 사용하는 독자들의 란입니다.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태권도인이 아니라도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란”입니다. “숨은 미담” “개신방안” “귀감이 될 수련기” 무엇이든지 객관적으로 공감 가는 얘기들을 6 하원측에 준하여 작성, 홍보실로 보내 주시면 최우선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고 또 본인의 잘한 일을 숨기려는 경순합도 많은 사회이지요. 칭찬 할 만한 일, 개신할 일 등으로 공중전화통에 줄을 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채택된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채택되지 않은 글은 반드시 반송해 드리겠습니다.

# 198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일시 : 84년 1월 21일(토요일) 11시  
장소 : 대한체육회 강당



국교연맹대의원 전 무 이 사 주 상 일

본회 1984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황 춘성 전무이사의 성원보고(재적인원 20명중 18명 참석)에 이어 김 윤용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정초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작년 및 금년의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단체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으나 국기로서, 또한 세계의 자랑스러운 무도 스포츠로서, 조용한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덴마크에서 개최한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역사상 유래없이 앞찬 대회로 우리 선수단은 6연패의 영광으로 중구국의 면모를 과시하여 국민들을 기쁘게 하였고, 팬 암(pan america) 게임(아메리카 36개국이 4년마다 거행하는 대륙종합경기)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 1987년부터는 공식종목으로 활약하게 되었음을 큰 자랑거리지만, 우리들의 책임이 막

| 소 속     | 직          | 위     | 성 명 |
|---------|------------|-------|-----|
| 중앙대의원   | 기술심의회의장    | 박해만   |     |
| "       | 기술심의회의부    | 박명수   |     |
| "       | 국기원기술심의회의장 | 김순배   |     |
| "       | 국기원기술심의회의부 | 전재규   |     |
| 서울대의원   | 전 무 이      | 사 송봉섭 |     |
| 부산대의원   | 전 무 이      | 사 이용복 |     |
| 경기대의원   | 전 무 이      | 사 안종웅 |     |
| 강원대의원   | 회          | 장 김성태 |     |
| 충북대의원   | 부 회        | 장 정만순 |     |
| 충남대의원   | 전 무 이      | 사 이진수 |     |
| 전북대의원   | 전 무 이      | 사 장한철 |     |
| 전남대의원   | 부 회        | 장 조영기 |     |
| 경북대의원   | 전 무 이      | 사 예조해 |     |
| 경남대의원   | 회          | 장 이순달 |     |
| 제주대의원   | 부 회        | 장 좌봉택 |     |
| 대학연맹대의원 | 전 무 이      | 사 최인범 |     |
| 중고연맹대의원 | 전 무 이      | 사 박창덕 |     |

중해했다고 의무를 강조하고, 정부에서는 86아시안 게임에 태권도를 공식종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를 84년 9월 28일에 개최할 때 정식종목 채택은 필연적인 사실로 생각합니다. 또한 태권도 발전에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영구적인 교육기관을 상설하고, 국내외의 사범들의 교육을 시킬 방침으로서 체육부로부터 태권도 연수원(한국체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경기도지사 연수교육분원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83년에는 북괴에서 최 흥회를 앞세워서 I.O.C나 각국 체육회에 북괴의 격술이 태권도라고 주장하며 태권도 세계화에 방해공작을 폈으나, 그들을 I.O.C. 위원, 각국 체육계 인사들이 우리 국기원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낀 덕분에 오히려 스포츠 외교면에서 태권도의 진 면모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 전할 수록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집니다.

국내조직정비, 교육 등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 다. 86, 88에 대비하여 85년에는 제 7 회 세계대회를 본회가 유치하여 주관하는 만큼, 지금부 터 꾸준히 준비하여 중중국의 새모습을 세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단합과 협동,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황 춘성전무이사는 여성연맹이 사 고단체로 연맹을 해체하였고, 여성선수 중, 중·

고등학교 선수는 중·고연맹에 대학여성선수는 대학연맹의 대회 등에 참가토록 유도하였으며, 협회가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여성연맹진을 보고하고, 전회의 특남독이 있었다. 이어, 인 창근감사의 감사 보고 후 토의사항에서 황 춘성전무이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 용복(부산)대외원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송 봉섭(서울)대외원이 제창을 하며, 사업계획에 일선 도장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주 상일(국교연맹)의 삼 창으로 198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심의를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본회는 83년도보 다 37,237,600원을 더 증액하여 2억 5천여만원 으로 84년도 협회살림 규모를 확정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 조해(경북), 이 용복(부 산), 박 창덕(중·고연맹), 조 영기(전남), 박 해만(중앙), 좌 봉택(제주), 주 상일(국교연맹) 등의 태권도 발전에의 건의 사항에 김 운용 회 장은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마쳤다. 회 의를 마친 후 대외원과 배석한 임원 및 사범들 100여명이 뉴서울호텔에서 오찬을 나누며 화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84년의 새출발을 다짐 하였다. 84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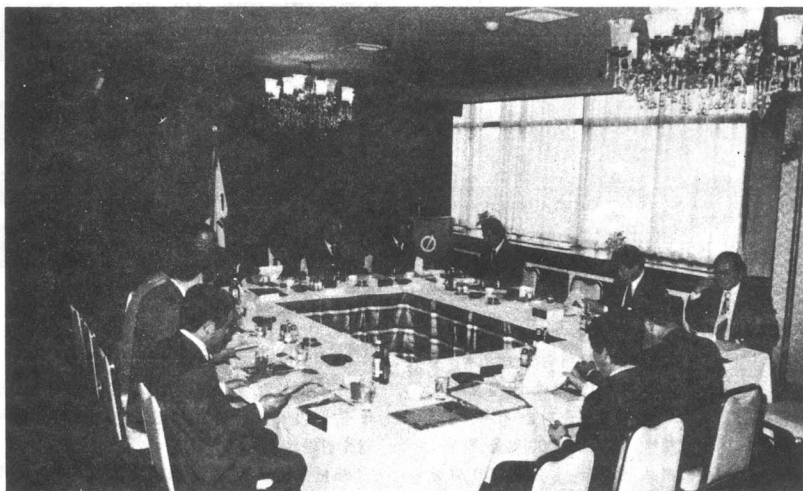
## 84년도 사업계획

|    |         |                           | 대한태권도협회 |          |
|----|---------|---------------------------|---------|----------|
| 월  | 일       | 사                         | 장       | 소 비 고    |
| 3  | 2-3     | 1984년도 심판 보수 교육(1, 2, 3급) | 국 기 원   |          |
|    | 26-4. 1 | 1984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 "       |          |
|    | 11-13   |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 "       |          |
| 4  | 18-21   | 심판강습회 및 자격시험(1, 2, 3급)    | "       |          |
|    | 26-27   |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 "       |          |
| 5  | 4       | 여자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 "       |          |
|    | 27-29   | 제1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 제 주     |          |
| 6  | 11-15   | 제1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단체 대항전      | 국 기 원   |          |
| 7  | 24-30   | 한국·서독 수교 100주년 기념 친선대회    | "       | (남·녀선수단) |
| 9  | 9       | 제15회 주한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        | "       |          |
| 10 | (4 일간)  | 제65회 전국체육대회               | 대 구     |          |
| 11 | 1-2     | 1984년도 전국 최우수선수권 대회       | 국 기 원   |          |
| 12 | (5 일간)  | 제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 필 리 편   |          |

# 1983년도 결산 이사회

일시 : 1984년 1월 14일

장소 : 뉴서울 호텔 (동백홀)



본이사회는 전무이사 황 춘성의 사회로 재적이사 18명 중 13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1983년도 사업결산 및 198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직 위   | 성 명   | 현 직 업    |
|-------|-------|----------|
| 회 장   | 김 운 용 | 대한태권도협회장 |
| 부 회 장 | 한 봉 수 | 무역진흥공사사장 |
| 부 회 장 | 김 준 철 | 대성학원이사장  |
| 부 회 장 | 엄 운 규 | 본회 상임부회장 |
| 전무이사  | 황 춘 성 | 본회 전무이사  |
| 이 사   | 김 영 원 | 진도그룹 회장  |

|     |       |             |
|-----|-------|-------------|
| 이 사 | 최 운 지 | 국제전선 회장     |
| 이 사 | 황 경 노 | 한국금박(주) 사장  |
| 이 사 | 유 상 열 | 논노패션(주) 부회장 |
| 이 사 | 이 중 하 | 연세대학교 교수    |
| 이 사 | 박 승 복 | 샘표식품(주) 사장  |
| 이 사 | 최 응   | 육군 특전 사령관   |
| 이 사 | 이 현 우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 이 사 | 안 현 태 | 제1공수 여단장    |
| 이 사 | 김 신 정 | 두산유리(주) 사장  |
| 이 사 | 김 희 용 | 한국전업(주) 사장  |
| 이 사 | 이 상 주 | 강원대학교 총장    |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65-13

서울특별시 체육회내

전화: 261-8872, 273-3464

## 승품·승단심사대회

### 1. 승품심사대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발족한지 4년여  
이제는 어느 시 도협회 보다는 확고하게 자리를  
하였으며,

1,000여개의 체육관과 전국 태권도인구의 4  
할은 차지한 “메머드”협회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83년 12월 27일  
이사회와, 12월 28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제반  
사업계획및 예산집행액 75,120,000원을 확정지  
었다. 또한 특별회계로 장학금 1,250,000원을  
책정하여 중 고등학교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계  
획이다.

## 1983년도 사업실적

### 1. 대회

- ① 제 3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초.중.고개  
인 선수권대회경. 83년 3월 9~10일  
제 12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3차 선발대회  
418명 참가
- ② 제 2회 서울특별시장기 쟁탈 초.중.고 단  
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경, 제 64회 전국  
체육대회 서울특별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728명 참가 (83.6.13 ~ 15)
- ③ 제 4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장기 쟁탈 어

린이 겨루기 대회 338명 참가 (83.8.17~  
18)

- ④ 제 3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쟁탈 초.중.고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 327명 참가  
(11.17 ~ 18일)  
※ 4개대회에 총 1811명 참가

### 2. 협회 산하 지역대회

본 협회산하 각지역에서 친선대회를 14회 실  
시하여 연인원 4,941명이 참가하여 태권도선수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태권도 저변확대에 총력을  
경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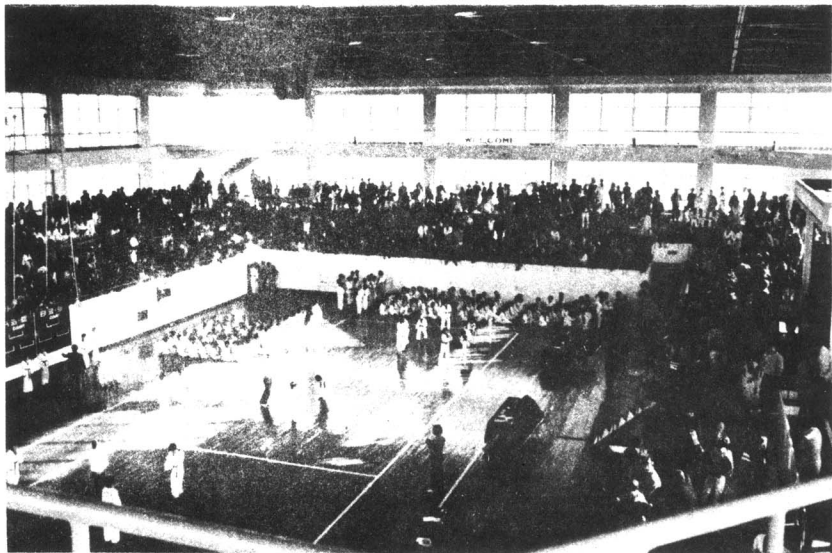
83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20회를 실시  
하였으며, 1월 1회, 12월 1회 (국기원 마루  
공사)로 년 22회를 실시하였다. 총 응심자  
21,089명중 610명이 실격하고 20,479명이  
합격하였다.

### 2. 승단심사대회

승단심사는 격월로 1월부터 12월까지 7회  
를 실시하여 총 응심자 4,881명중 231명이 실  
격하고 4,650명이 합격하였다.

### 3. 특별심사대회

3단 18명, 4단 258명, 276명이 응시하  
여 11명이 실격되고 249명이 합격하였다.  
또한 국기원에서 실시한 고단자 심사대회에 5



단 64 명, 6 단 24 명, 7 단 66 명이 응심하여  
합격하는등 승품, 승단자 총 25,532 명이 승품  
및 승단을 하였다.

#### 4. 장학사업

특별회계로 장학금 1,250,000원을 우수 선수들  
에게 중, 고등학교 진학 입학금으로 1인당  
50,000 원씩 25 명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서울  
시체육회 특별 장학금으로 4,050,000 원을 15  
명에게, 국고생 2명 각 20,000 씩, 중학생 5명  
각 250,000 원씩, 고등학생 8명에게 각 300,000  
만원씩, 지급하였다.

수혜자 명단

※ 서울시 태권도협회 장학금 수혜자 (지급총액  
1,250,000 원)

|                 |           |
|-----------------|-----------|
| 국민학교: 면목국교: 권영수 | 남산국교: 이혁석 |
| 대림국교: 김성남       | 면목국교: 서덕수 |
| 장평국교: 정현섭       | 대림국교: 김봉찬 |
| 거여국교: 이시용       | 신선국교: 이경모 |
| 마천국교: 이호형       | 거여국교: 심기훈 |
| 대림국교: 신성수       | 방이국교: 임용동 |
| 잠원국교: 소용남       | 광희국교: 임영일 |

|                 |           |
|-----------------|-----------|
| 용남국교: 김성진       | 면목국교: 박진석 |
| 영일국교: 박세진       |           |
| 중 학 교: 동성중: 이광로 | 배명중: 고용재  |
| 한영중: 방영배        | 영동포중: 김태완 |
| 배명중: 이명호        | 한성중: 조상근  |
| 경수중: 김해국        | 경수중: 최영우  |

※ 서울시 체육회 특별 장학금 수혜자 (지급총액  
: 4,050,000 원)

|              |          |
|--------------|----------|
| 광 회 국 교 김 광석 | 200,000원 |
| 연 가 국 교 김 형국 | 200,000원 |
| 서울체육중 장 혁    | 250,000원 |
| 배 명 중 윤 전성   | 250,000원 |
| 동 성 중 조 준원   | 250,000원 |
| 동 성 중 양 대승   | 250,000원 |
| 한 영 중 정 석용   | 250,000원 |
| 동 성 고 허 련    | 300,000원 |
| 성 동 상 고 안 병덕 | 300,000원 |
| 서울체육고 이 주열   | 300,000원 |
| 동대문상고 노 신    | 300,000원 |
| 동 성 고 김 준태   | 300,000원 |
| 성 동 상 고 강 문섭 | 300,000원 |
| 서울체육고 최 용덕   | 300,000원 |
| 동대문상고 홍 용섭   | 300,000원 |

임원구성은 예년과 달리, 실행이사를 본회 사무국장 임춘길을 총무이사로, 김정기, 고국환, 강영복, 전성환, 안인식 사범 등을 실행이사로 영입하였으며, 전문위원회 회원들과 분과교체를 하는데, 실제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명예회장: 봉 두 완(국회외무분과위원장)  
회 장: 엄 윤 규(태권도인)  
부 회 장: 이 용 우(태권도인)  
부 회 장: 이 교 윤(태권도인)  
부 회 장: 김 양 목(흥부합섬공업주식 대표이사)  
부 회 장: 강 철 용(공무원)  
부 회 장: 정 판 섭(매스무역(株) 회장)  
전무이사: 송 봉 섭(은혜체육관장)  
총무이사: 임 춘 길(총무체육관장)  
실행이사: 김 정 기(신라체육관장)  
실행이사: 고 국 환(성북체육관장)  
실행이사: 강 영 복(청무체육관장)  
실행이사: 전 성 환(도림체육관장)  
실행이사: 안 인 식(비룡체육관장)  
이 사: 김 기 선(사업)  
이 사: 박 현 섭(백제회관 대표)  
이 사: 장 삼 지 자(사업)  
이 사: 한 조 정(구길기업사 대표)  
이 사: 이 영 조(사업)  
이 사: 김 한 수(공무원)  
이 사: 방 윤 순(사업)  
이 사: 이 진 호(사업)

감 사: 한 만 규(태권도사범)  
감 사: 문 선 호(태권도사범)

지도위원: 이규정, 이덕태, 이상훈  
기획분과 위원장: 홍정부  
부위원장: 이진오, 조규학  
경기분과 위원장: 강영복  
부위원장: 김태근, 임종민  
심사분과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 박용국, 안점영  
심판분과 위원장: 고국환  
부위원장: 전만식, 조한우  
상벌분과 위원장: 안인식  
부위원장: 유병호, 김용태  
도장관리분과 위원장: 전성환  
부위원장: 전판선, 엄홍섭  
연구분과 위원장: 송경섭  
부위원장: 이인경, 김영곤  
시설분과 위원장: 조 동 학  
부위원장: 한명학, 정찬진  
섭외분과 위원장: 최중수  
부위원장: 강동준, 이천수  
시범분과 위원장: 이태명,  
부위원장: 최재무, 이종환  
홍보분과 위원장: 장기승  
부위원장: 라용경, 연성희  
교육분과 위원장: 오부웅  
부위원장: 박창선, 김갑용



명예회장: 봉 두 완



회 장: 엄 윤 규



부 회 장: 이 용 우



부 회장: 이 교 윤



부 회장: 김 양 목



부 회장: 강 철 웅



부 회장: 정 판 섭



전무이사: 송 봉 섭



총무이사: 임 춘 길



실행이사: 김 정 기



실행이사: 고 국 환



실행이사: 강 영 북



실행이사: 전 성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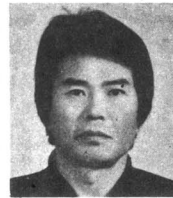
실행이사: 안 인 식



이 사: 김 기 선



이 사: 장 삼 지



이 사: 한 조 정



이 사: 이 영 조



이 사: 김 한 수



이 사: 방 윤 순



이 사: 이 진 호



감 사: 한 만 규



감 사: 문 선 호

# 부산 직할시 태권도 협회

서구 대신동 3 가 210

전화: 25-1303

본회는 1984년 1월 19일 서라벌 호텔 3층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83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을 승인하고 '84년도 예산액 67,991,780원을 확정하였다.

## '83년도 사업실적

### 1. 대 회

- ① 신인 선수권 대회(266명 참가)
  - ② 제3회 어린이 태권왕 선발 대회(273명 참가)
  - ③ 제8회 교육감기 대회(419명 참가)
  - ④ 제3회 부산 시장기 대회(462명 참가)
- 제64회 전국 체전 예선 대회, 최우수 선수권 대회 등 6개 대회에 1,848명이 참가하였다.

### 2. 승품 승단심사대회

2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등 6회의 심사 대회를 실시하여 7,167명이 응심하였다.

### 3. 기타행사

심판교육을 3월 30일~31일(2일간)까지 2급 21명, 3급 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12월 6일~16일까지 138명이 참가하여 수료하였다. 이외에도 특별심사에 4단 75명, 3단 3명이 응심하는등 태권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 1984년도 주요 대회

월 일(기간) 사 업 명 장 소 비 고  
3 27~29(3) 1983년도 신인 구덕체육관

선수 선발대회

5 7~8(2) 제4회 어린이태 " "

권왕 선발대회

6 1~2(2) 전국체전 대표 구덕체육관

선수 선발대회

7 3~4(2) 제9회 부산시 " "

교육감기생탈

대회

11 2~3 제4회 부산시 " "

장기생탈대회

30 1984년도 최우 " "

수선수 선발대

회

### 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직 장             | 직 위       |
|--------|-------|-----------------|-----------|
| 회 장    | 손 선 익 | (주)왕표 대표이사 사장   |           |
| 부 회 장  | 김 화 원 | (주)극동 대표        |           |
| "      | 박 재 현 | (주)동신화공 대표이사    |           |
| 부 회 장  | 장 이 도 | 울 충무체육관 회장      |           |
| (전무겸임) | "     | 장 만 영           | 중앙화문상회 대표 |
| 이 사 회  | 이 천   | 복 열풍나이트클럽 대표    |           |
| "      | 김 건   | 래 세명상사 대표       |           |
| "      | 김 지   | 태 (주)동일 학생 상무이사 |           |
| "      | 강 신 수 | 서부경찰서대공과 외근반장   |           |
| "      | 정 학 기 | 정학기정형외과 원장      |           |
| "      | 이 정 결 | (주)한라방역 대표이사    |           |
| "      | 김 태   | 울 부산산성약주양조공사 대표 |           |
| "      | 신 무   | 송 고려체육관 판장      |           |
| "      | 최 상   | 준 반송체육관 판장      |           |
| "      | 김 명   | 석 금정체육관 판장      |           |
| "      | 허 춘   | 옥 주례종합체육관 판장    |           |
| "      | 정 봉   | 단 광안종합체육관 판장    |           |
| 감 사 전  | 두 원   | (주)왕표 감사        |           |
| "      | 변 재   | 관 장무체육관 판장      |           |

# 인천직할시 태권도 협회

인천시 남구 송의 1동 424(공설운동장)

전화 : 인천 883 - 1989

인천협회는 83년 12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공 석인 회장을 선출하고 구 집행부는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인천 협회장으로 선출된 최 병남 회장의 주재로 83년 12월 17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업 및 집행액을 확정지었다.

84년도에는 12,000,000여만원의 예산을 확충하여 26,786,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신진대사(?)가 된 새 임원으로 인천협회의 새 면모를 갖추고 출발을 하였다.

## 83년의 사업실적을 구분해 보면

### 1. 대 회

제 12회 소년체전 인천대표 선발대회, 83년도 인천직할시 개인선수권대회, 제64회 전국체전 인천대표 선발대회, 제1회 인천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에 1,23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특히 83년도 제64회 전국체육대회를 인천시에서 개최하여 회장이 유고한 상태에서 성공리에 대회를 마쳐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 2. 승품 심사대회

승품·달심사를 7회 실시하여 3,270명이 응심을 하였다.

84년도에는 기히 실시하는 대회 외에도 경인일보사 사장기쟁탈, 84년도 교육감기쟁탈 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천협회의 발전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현 직      |
|------|-------|----------|
| 회장   | 최 병 남 | 송헌주유소 대표 |
| 부회장  | 김 호 성 | 대한체육관장   |
| "    | 원 교 식 | 부평체육관장   |
| "    | 김 형 금 | 인예학원 이사장 |
| 전무이사 | 이 봉 춘 | 청송체육관장   |
| 이사   | 유 기 훈 | 수봉체육관장   |
| "    | 오 용 진 | 함도실고 교사  |
| "    | 김 재 환 | 한성체육관장   |
| "    | 한 상 윤 | 동부체육관장   |
| "    | 성 재 춘 | 상무체육관장   |
| "    | 이 호 덕 | 쌍용체육관장   |
| "    | 서 광 석 | 서광체육관장   |
| "    | 신 회 판 | 인천전문대    |
| "    | 김 장 환 | 인천전문대    |
| 감사   | 조 태 성 | 극동체육관장   |
| "    | 박 수 복 | 인천전문대    |



회장 최병남



부회장 김호성



부회장 원교식



부회장 김형금



전무이사 이봉순



이사 유기훈



이사 오용진



이사 김재환



이사 성재준



이사 이효려



이사 서광석



이사 신희판



회장 김창호

# 대구 태권도 협회

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6번지  
전화 : 33-7284

본협회는 1984년 1월 19일 대구시 체육회 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을 제외한 전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전형의원 4명을 선정 집행부 구성을 위임하였다. 이어 84년 1월 26일 진미정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도 상권사범을 전무이사로 신 집행부가 출범을 하였다. 본협회는 1983년도의 집행액 33,511,525원보다 1,400여만원을 증액하여, 1984년도에는 47,522,776원으로 예산을 확정지었다.

## 1. 대 회

83년도에 본회에서는 12회의 대회를 주최·주관하여 1,55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 2. 승품·승단대회

승품심사 : 1품 1,898명, 2품 530명, 3품 67명

승단심사 : 1단 1,239명, 2단 358명, 3단 136명, 4단 41명으로

승품 2,495명, 승단 1,774명으로 총 4,269명이 응심하였다.

## 84년도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1. 승품 승단대회를 4반기로 나누어 2월, 6월, 9월, 12월에 실시하여

## 2. 대회로는 주최대회

① 84 신인선수권대회(4월)

② 제65회 전국체전선발대회 1차, 2차, 3차대회(5월중)

③ 제1회 대구협회장기 경탈대회(11월)  
주관대회로는

① 제13회 소년체전 최종선발대회(3월)

② MBC기 경탈전(5월)

③ 제3회 시민체육대회(6월)

④ 제14회 소년체전 평가전(7월)

⑤ 제65회 전국체전(10월)

등 10여개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나 84년 제65회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됨으로 대구협회의 임원들의 활기찬 활동이 기대된다. 임원(집행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회 장   | 김창호 | 대구지검형사2부장검사  |
| 부 회 장 | 김태원 | 영천성신병원장      |
| "     | 김현도 | 대일상사 대표      |
| "     | 이상선 | 추풍령 현풍휴게소    |
| 전무이사  | 도상곤 | 한성체육관장       |
| 경 기   | 장한걸 | 송무체육관장       |
| 심 판   | 홍순철 | 성광고 교사       |
| 심 사   | 정재홍 | 사 업          |
| 도장관리  | 이용호 | 용호체육관장       |
| 상 별   | 송유식 | 경창기동대·수성체육관장 |
| 섭외이사  | 한국선 | 천마체육관·배영여상교사 |
| 교육시범  | 배영상 | 계명대학교 교수     |
| 이 사   | 신동규 | 신일전문대학학생주임   |
| "     | 구목회 | 대구 미8군 체육관장  |
| "     | 박중화 | 협성상고 학생과장    |
| "     | 김문규 | 무림체육관장       |
| "     | 이달식 | 남대구체육관장      |
| "     | 윤점수 | 보라매체육관장      |
| "     | 김광훈 | 칠곡중학교 체육교사   |
| "     | 정현채 | 한무 체육관장      |
| "     | 김영희 | 수창국 교사       |
| 감 사   | 김종식 | 비산체육관장       |
| "     | 장영수 | 황금체육관장       |



# 경기도 태권도 협회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 3가 32-7

전화 : 수원 42-8074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1981년 7월 31일 인천시가 행정구역상 직할시승격으로 경기도에서 분리됨으로서 경기도는 반신불수의 인제와 같이 모든 면에서 활동이라든가 기능이 원만치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아서 뜻대로 일하지 못했음은 시인한다. 초창기에 체육 행정은 할 일이 태산 같았고, 경기 인구면에서의 기량 좋은 선수 분리로 인한 어려움, 질서있고 체계화된 단체의 필요성, 과거 경기도 체육 시설이 인천에만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던 관계로 경기장부족, 경기 운영상 심판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 여건의 해였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84년도에 들어서서 본협회는 이 형제 회장을 비롯하여 실무 이사들의 혼연 일체가 되어 많은 부서의 임무를 자기일과 같이 성실히 이행, 실천하여 좀

으로서 임원간의 우위는 물론, 화기 애애한 분위기로 84년은 협회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84년도에는 타 시도 협회와 태권도 전반에 관한 기술교류는 물론, 친목을 도모할 계획도 연구함으로서 좋은 점을 배우고 익히며, 협회 활동에 기여코자 한다. 83년도까지의 경기장 부족 문제는 84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완공의 전망이 엿보여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경기 체육 요람의 광장이 될 이 체육관은 연건평 353501평에 최대 수용인원 9,000여명으로 1984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본다. 집행부에서는 선수층이 이 약한 일반부팀, 중학교팀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며, 83년도의 개최된 제12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제64회 전국 체육대회의 부진한 성적을 만회할 준비를 하고 있





다. 태권도의 명문으로 알려진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팀의 선수는 마음 든든하다. 또한 고등부는 풍성고등학교 선수들이 열심히 수련하고 있어 믿음직스럽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태권도협회 임원이 더 더욱 합심하여 협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태권도인의 정신자세와 가치관 확립은 물론 도내 일선 도장의 육성 지도와 선수들의 기량을 보강하여 협회 발전에 전력 투구할 임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다.

**83년도 대회 및 사업 실적** (체육회 및 시군지부 대회는 생략)

1) 83년도 종별신인 선수권대회(남자부: 초·중·고·대·일반부·여자부) 549명 참가

2) 제5회 경기도 협회장기 쟁탈 태권도대회(초·중·고·대·일반·여자부) 602명 참가

3) 제2회 교육감기 쟁탈 태권도대회(초·중·고·여자부) 660명 참가

**교육감기 쟁탈 태권도 대회**는 지방적으로 특색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행사이다. 모든 일선 도장이 학생으로 운영되므로써 학생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를 지방에 발전시켜 주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각시·군으로 유치 이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승품, 승단심사** (83년에는 년 11회 승·품단심사에 5,174명이 응시하였다.)

|             |             |
|-------------|-------------|
| 1 품: 2,102명 | 1 단: 1,823명 |
| 2 품: 509명   | 2 단: 442명   |
| 3 품: 91명    | 3 단: 146명   |
|             | 4 단: 61명    |
| 계 2,702명    | 계 2,472명    |

본회 84년도의 살림을 맡아 수고 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협회 임원 (1984.2.15 현재)

| 직 | 위    | 성명     | 현        | 직      | 업  |
|---|------|--------|----------|--------|----|
| 회 | 장    | 이형재    | 동창당한약방   | 원장     |    |
| 상 | 임부회장 | 황광철    | 청도체육관    | 경기도본관  | 관장 |
| 부 | 회    | 장 최우섭  | 금성상사     | · 금성공사 | 대표 |
| " |      | 최국환    | 청도체육관    | 성남본관   | 관장 |
| " |      | 이장복    | 경기파이프    | 상사     | 대표 |
| 전 | 무    | 이사 안중웅 | 용인윤수(주)  | 전무     |    |
| 총 | 무    | 이사 강선장 | 풍성고등학교   | 체육교사   | 주임 |
| 이 | 사    | 채만춘    | 송탄 태권도장  | 관장     |    |
| " |      | 최학수    | 평택 경기체육관 | 관장     |    |
| " |      | 조충근    | 한무체육관    | 경기도본관  | 관장 |
| " |      | 임춘식    | 경도체육관    | 경기도본관  | 관장 |
| " |      | 엄기섭    | 화랑유치원    | 원장     |    |
| 감 | 사    | 한영록    | 서진경비대대   | 회사원    |    |
| " |      | 김진배    | 동아무선사    | 대표     |    |

#### 경기분과위원회

|   |   |   |   |   |   |
|---|---|---|---|---|---|
| 위 | 원 | 장 | 채 | 만 | 춘 |
| 부 | 위 | 원 | 장 | 홍 | 인 |
| " |   |   | 노 | 중 | 대 |
| " |   |   | 박 | 중 | 태 |

#### 심판분과위원회

|   |   |   |   |   |   |
|---|---|---|---|---|---|
| 위 | 원 | 장 | 최 | 학 | 수 |
| 부 | 위 | 원 | 장 | 강 | 성 |
| " |   |   | 김 | 두 | 희 |

# 강원도 태권도 협회

춘천시 낙원동 64-2

전화 : 3-3578

본회는 1984년 2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8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8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였다.

## 84년도 사업계획

- 1. 4월 대만 친선 경기대회
- 2. 5월 12~13일 강원도 제 1회 심판보수교육
- 3. 6월 제 1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강릉)  
제 2회 태권도인의 밤(강릉)
- 4. 7월 제 7회 회장기쟁탈대회(춘천)
- 5. 8월 제 4회 강원도 교육감배대회(춘천)
- 6. 3월 6월 10월 12월로 연 4회 승품, 승단심사를 실시한다.

본회 1984년도 살림을 맡아 수고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직 | 위     | 성 | 명 | 직 | 업     |
| 회 | 장     | 김 | 성 | 태 | 광 산 업 |
| 부 | 회 장   | 이 | 병 | 재 | 사 업   |
| " |       | 김 | 광 | 언 | 회 사 원 |
| 전 | 무 이 사 | 박 | 병 | 철 | 사 업   |
| 사 | 무 국 장 | 최 | 문 | 식 | 회 사 원 |

|   |   |   |   |   |   |   |   |     |
|---|---|---|---|---|---|---|---|-----|
| 경 | 기 | 이 | 사 | 최 | 홍 | 배 | 사 | 업   |
| 심 | 판 | 이 | 사 | 박 | 임 | 주 | 회 | 사   |
| 섭 | 의 | 이 | 사 | 이 | 석 | 철 | 교 | 사   |
| 사 | 설 | 이 | 사 | 민 | 인 | 식 | 사 | 업   |
| 감 |   | 사 |   | 유 | 연 | 용 | 상 | 업   |
| " |   |   |   | 장 | 석 | 주 | 사 | 업   |
| 이 |   | 사 |   | 김 | 동 | 혁 | " | "   |
| " |   |   |   | 황 | 인 | 갑 | " | "   |
| " |   |   |   | 전 | 영 | 조 | " | "   |
| " |   |   |   | 박 | 경 | 근 | " | "   |
| " |   |   |   | 장 | 세 | 현 | " | "   |
| " |   |   |   | 황 | 윤 | 국 | " | "   |
| " |   |   |   | 이 | 상 | 철 | 공 | 무 원 |
| " |   |   |   | 김 | 정 | 수 | 사 | 업   |
| " |   |   |   | 유 | 경 | 준 | " | "   |
| " |   |   |   | 김 | 천 | 호 | " | "   |
| " |   |   |   | 장 | 완 | 순 | " | "   |
| " |   |   |   | 이 | 재 | 택 | " | "   |
| " |   |   |   | 이 | 상 | 규 | " | "   |
| " |   |   |   | 정 | 운 | 해 | " | "   |
| " |   |   |   | 박 | 인 | 웅 | " | "   |
| " |   |   |   | 김 | 수 | 희 | " | "   |

# 충남 태권도 협회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407-1

전화: 22-0119

본회에서는 1984년 1월 15일 홍명상가 3층  
초원의 집에서 대의원 17명 중 13명이 참석하  
여 대의원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도 체육회,  
도교육위원회 임원 및 일선도장의 사범 등 70  
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형진 (국기체육관  
장), 오 노균 (오현체육관장), 민 인식 (오도체  
육관장), 이 명교 (제일체육관장) 사범에게 공  
로패 수여식과 양 준목 (무술체육관장) 사범에  
게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한 옥석회장은 84년은 구 각관의 파벌  
의식을 없애고 융화단결을 하는 의미에서 선  
후배를 막론하고 실력위주의 임원이 선정되었  
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본인  
은 임원과 일심단결하여 어느 단체보다도 모범  
이 되는 단체로 이끌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  
다고 확약하며 임원들의 협조로 당부하였다.

또한 내빈으로 참석한 도 체육회박찬규 사  
무국장은 충남 체육발전에 많은 노력과 성원  
의 덕으로 전국체전에 5위를 하는 발전을 가  
져왔다고 극찬하며 체육회 예산은 83결에 비  
해 줄었으나 체육인 전체가 모든 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음에 마음 든든하다고 평하고 ① 군  
선의지, ② 일찬 단결, ③ 필승 쟁취로 체육지  
표를 정하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약속한  
도지사님의 약속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체육  
인 육성을 당부하였다.

본회는 1983년도 집행액 28,161,341원 700  
여만원의 예산액을 높여 35,471,032원을 확  
정하고 이수선했던 협회 제반 상황을 재정비하  
였다. 본회 임원(집행부)과 각 지구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직 | 위 | 성 | 명 |   |
|---|---|---|---|---|
| 회 | 장 | 한 | 용 | 석 |
| 부 | 장 | 박 | 창 | 락 |
| " | " | 박 | 종 | 철 |
| " | " | 박 | 승 | 구 |
| " | " | 서 | 기 | 양 |
| " | " | 심 | 창 | 열 |
| 전 | 무 | 이 | 진 | 수 |
| 총 | 무 | 박 | 상 | 도 |
| 경 | 기 | 장 | 석 | 봉 |
| 심 | 판 | 임 | 덕 | 재 |
| 섭 | 의 | 김 | 상 | 철 |
| 공 | 보 | 박 | 용 | 준 |
| 시 | 설 | 곽 | 순 | 규 |
| 감 | 사 | 신 | 재 | 홍 |
| " | " | 이 | 승 | 돈 |

## 대의원 명단

| 대       | 전 | 시 | 민 | 인 | 식 |
|---------|---|---|---|---|---|
| "       | " | 김 | 윤 | 기 | 복 |
| "       | " | 윤 | 이 | 여 | 진 |
| 청       | 양 | 군 | 노 | 정 | 훈 |
| 금       | 산 | 군 | 양 | 정 | 섭 |
| 연       | 기 | 군 | 유 | 기 | 범 |
| 예       | 산 | 군 | 이 | 봉 | 호 |
| 천       | 원 | 군 | 김 | 치 | 원 |
| 서       | 산 | 군 | 조 | 성 | 문 |
| 서       | 천 | 군 | 이 | 정 | 연 |
| 홍       | 성 | 군 | 박 | 명 | 교 |
| 백제중학교교사 |   |   | 김 | 문 | 식 |
| 대산중학교교사 |   |   |   | 봉 | 호 |

# 전남 태권도 협회

광주시 서구 구동 9번지  
전남체육회 전화: 6-6922



본회는 '83년 12월 25일 전남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84년도 예산액 44,776,802원을 책정하였고 보다 안정된 분위기속에 차분히 출범을 하였다.

'84년도 총사업을 결산하는 태권도인의 밤 행사를 83년 12월 25일 체육관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개최하였다.

도내의 유명인사와 체육관장등,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이자리에서는, 1년간 태권도선수 육성 및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공이 큰 체육관장을 비롯 지회 회장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제 6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1위 10만원, 2위 7만원, 3위 5만원씩 격려금이 전달하였다.

또한 매년 연말이면 도내의 전경대원들을 위문하여 위문금 130만원과 업무수첩 500개를 전남경찰국 조종석국장께 전달하였다.

## '83년도 사업실적 대회는

제 22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제 5회 교육감기쟁탈 초중학교 태권도대회  
제 5회 도지사기쟁탈 시·군·대학 태권도대회, 외에도 제 12회 소년체전선발, 제 64회 전국체전선발등 13회의 대회를 주최 및 주관 하였으며,

## 승품승단심사대회

기동대원 및 일반경찰승단대회, 전남대 R.O.



T.C 승당심사동, 각지역별 승품, 승단대회를 12회 개최하여 총 4,331 명이 응심하였다.

제 64 회 전국체전 종합 2 위로 태권도 전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84년도 협회살림을 맡아 수고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직    | 위   | 성 | 명   | 직         | 업    |
|------|-----|---|-----|-----------|------|
| 회    | 장   | 김 | 정 주 | 화성전설      | 대표   |
| 부    | 회 장 | 강 | 형 대 | 소림체육관     | 판장   |
|      | "   | 김 | 정 록 | 유성체육관     | 판장   |
|      | "   | 조 | 영 기 | 영광민정당연락실장 |      |
|      | "   | 김 | 주 훈 | 조선대학교교    | 정임강사 |
| 전무이사 |     | 박 | 창 응 | 사직유기장     | 운영   |
| 총무이사 |     | 윤 | 판 석 | 송원전문대     | 근무   |

|      |   |   |     |           |     |
|------|---|---|-----|-----------|-----|
| 경기이사 | 박 | 현 | 중   | 전남체육고     | 교사  |
| 이    | 사 | 김 | 준 모 | 세종체육관     | 판장  |
| "    |   | 김 | 권 철 | 통양체육      | 판장  |
| "    |   | 김 | 현 수 | 벌교여중      | 교사  |
| "    |   | 방 | 진 욱 | 도경찰국      | 형사과 |
| "    |   | 강 | 완 립 | 장미체육관     | 판장  |
| "    |   | 한 | 길 진 | 제일금융      | 전무  |
| "    |   | 최 | 인 수 | 담양고교      | 교사  |
| "    |   | 장 | 인 환 | 원도체육관     | 판장  |
| "    |   | 김 | 세 흥 | 월산        | "   |
| "    |   | 오 | 중 열 | 전남 제 3 도장 | 판장  |
| "    |   | 박 | 경 환 | 전남 제 2 도장 | 판장  |
| 감    | 사 | 박 | 정 섭 | 극동체육      | 판장  |
| "    |   | 권 | 갑 수 | 탈평체육      | 판장  |

#### < 名 言 >

진리(眞理)의 투사가 되어라.

정신(精神)과 자유를 지키고, 새 인류(人類)의 장래사회(將來社會)의 출생(出生)을 도우라, 자기에 관해서나 타인에 관해서나 절망하지 말라. 사망하고, 믿고, 일하고, 싸우고, 희망을 가져라.

<아미엘>

# 경북 태권도 협회

대구시 북구 고성동 3가 6번지  
전화: 대구 33-3615



본 협회는 1983년도에 37,611,789원을 집행하였고, 84년에는 200여만원을 상향하여 39,845,969원을 책정, 확정지었다.

'83년도의 특기사항으로는 지방행사 및 선수수송을 위하여 봉고디럭스 12인승을 7,200,000원을 구입하여 협회의 기동력을 확보하여, 보다 활기찬 활동을 하게 되었다.

## 1) 대회

각종 대회에 10회에 걸쳐 참가하였으며, 본 협회가 주최하는 ① 신인 선수권대회, ② 교육감기 쟁탈 초·중·고·단체대항전, ③ 제12회 소년체전 최종 선발전 및 제13회 전국 소년체전 1, 2차 평가대회, ④ 제64회 전국체전 1, 2차 및 최종 선발전을 실시하였다. 83년도 보다 많은 경기 인원의 참여로 총 3,120명이 출전하였음

은 본회의 내일의 청신호로 보아도 되겠다.

본회에서는 모든 대회가 경북의 중심권인 대구, 김천, 영천에서만 개최하여 왔으나, 1983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는 경북의 북부지방인 안동시에서 개최하므로써 재정면이나 거리 관계로 출전을 못하던 선수가 출전을 하여 태권도 저변 확대에 괄목할만큼의 효과를 보았다.

앞으로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각 지역별 대회를 개최하여 경북의 빈약한 선수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 2) 승품, 승단심사

승품·단심사는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여 ① 품에는 1품 1,923명, 2품 506명, 3품 24명으로 총 2,453명이 응심하였고, ② 단에는 1단 1,440명, 2단 620명, 3단 141명, 4단 24명으로 총 2,225명이 응심하였다.

본 협회의 살림을 이끌어갈 임원과 각지부의 일을 맡아 태권도 발전에 수고해 줄 지부조직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직 | 위   | 성 | 명   | 현         | 직     |
|---|-----|---|-----|-----------|-------|
| 회 | 장   | 염 | 길정  | 국회의원      |       |
| 부 | 회 장 | 박 | 동로  | 화성산업      | 사무이사  |
|   |     | 김 | 경하  | 송남도장      | 판장    |
|   |     | " | 정태석 | 월성운수사     | 대표    |
|   |     | " | 임효수 | 재향군인회     | 선산지부장 |
| 전 | 무이사 | 예 | 조해  | 영천본관      | 판장    |
| 총 | 무이사 | 윤 | 중욱  | 창응도장      | 판장    |
| 경 | 기이사 | 윤 | 응일  | 금성중학교     | 교사    |
| 심 | 판이사 | 최 | 대환  | 성동도장      | 판장    |
| 이 | 사   | 정 | 연득  | 영천시 교육청   | 경리계장  |
|   |     | " | 류봉수 | 상주도장      | 판장    |
|   |     | " | 유영재 | 육군 제3사관학교 | 태권도교관 |

" 김일문 동지여자중학교 교사  
" 신상봉 의성도장 판장  
" 이정효 강무도장 판장  
" 박현식 김천체육사 대표

" 정원복 풍기도장 판장  
" 서홍송 대명주택 대표  
감 사 김상일 동부도장 판장  
" 정동완 금오공고 교사



지 부 명      지부장  
구미시지부      백 복 기  
김천시지부      김 길 수  
영천시지부      모 중 득  
포항시지부      권 동 수  
경산군지부      박 중 철  
군위군지부      정 영 표  
금릉군지부      김 기 진  
문경군지부      현 창 근  
상주군지부      이 중 학  
선산군지부      임 효 수  
성주군지부      김 하 성  
영천군지부      이 재 화  
영풍군지부      우 성 두  
월성군지부      박 학 길  
의성군지부      김 시 균  
청도군지부      황 윤 성  
칠곡군지부      심 홍 석  
안동시지부      김 동 제  
울진군지부      박 상 인  
영일군지부      서 상 은

현      직  
국제인원      옹호협회 구미지부장  
보건당약국  
영천수의과  
경산위생(주)  
대구사진관  
금릉군 내부과장  
전일광염소  
상주전매서  
선산벽돌  
제일다방  
영천축협조합장  
풍국정미소  
안강제재소  
삼광(주)  
평화약국  
평해실고 교사  
오천우체국장

대 의 원  
정 동 완  
김 길 수  
김 상 일  
박 해 봉  
이 상 기  
도 청 홍  
기 중 삼  
현 창 근  
임 병 천  
임 병 천  
김 하 성  
장 석 만  
장 경 덕  
박 학 길  
김 영 호  
박 순 복  
이 중 열  
김 익 동  
박 상 인



# 경남 태권도 협회

마산시 양덕동 156-6

전화: 5-1046

본회는 83년 12월 18일 경남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8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종결짓고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35,400,000 원으로 확정지었다.

198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 1. 대 회

◎ 제 10 회 신인선수권대회(마산)

◎ 제 1 회 소년 태권왕 겨루기대회(마산)

◎ 제 4 회 교육감 기생탈대회

## 2. 승품, 승단심사대회

마산, 진주, 울산등 3개 장소에서 연 5회의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9개의 대소행사를 갖어 태권도 발전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84년도 협회 살림을 맡아 수고할 임원 및 전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任員名單

| 직    | 위 | 성명      | 직업  |
|------|---|---------|-----|
| 회    | 상 | 이 순 달   | 상업  |
| 부    | 회 | 장 김 태 운 |     |
| "    |   | 박 춘 발   | 건설업 |
| "    |   | 정 연 문   | 광산업 |
| "    |   | 김 성 남   | 건설업 |
| 전문이사 |   | 김 선 규   | 회사원 |
| 총무이사 |   | 김 영 곤   | 교직원 |
| 이    | " | 사 배 역 석 | 회사원 |
| "    |   | 유 기 준   | 공무원 |
| "    |   | 조 회 삼   | 공무원 |
| "    |   | 김 별 수   | 회사원 |
| "    |   | 장 춘 식   | 상업  |

|   |   |   |   |     |     |
|---|---|---|---|-----|-----|
| " | 이 | 종 | 호 | 교직원 |     |
| " | 황 | 길 | 성 | 교직원 |     |
| " | 김 | 성 | 주 | 목장업 |     |
| " | 김 |   | 중 | 약국업 |     |
| " | 이 | 상 | 구 | 인쇄업 |     |
| " | 장 | 성 | 학 | 상업  |     |
| " | 박 | 대 | 동 | 상업  |     |
| " | 이 | 윤 | 근 | 상업  |     |
| " | 박 | 용 | 덕 | 회사원 |     |
| 감 | 사 | 황 | 수 | 잡   | 유통업 |
| " |   | 김 | 정 | 이   | 회사원 |

### 전문위원명단

의 장: 김태운(실무부회장)

부의장: 박용용(진해공창) · 공경찬(전죽업) · 이  
승학(진해공창) · 최오식(진해화학)사업  
(전무이사)

| 분 | 과 | 위 | 원 | 장       | 직       | 원        |
|---|---|---|---|---------|---------|----------|
| 경 | 기 | 분 | 과 | 강성환(6단) | 마산시청근무  |          |
| 심 | 판 | 분 | 과 | 장정설( )  | 경화체육관장  |          |
| 심 | 사 | 분 | 과 | 진귀윤( )  | 축산업     |          |
| 상 | 별 | 분 | 과 | 오재술( )  | 한일화학부장  |          |
| 도 | 장 | 판 | 리 | 이선걸( )  | 체육관판장   |          |
| 기 | 획 | 분 | 과 | 장재만( )  | 한일합섬과장  |          |
| 교 | 육 | 연 | 구 | 분과      | 심의보( )  | 진주대한금속소장 |
| 경 | 호 | 분 | 과 | 이상중( )  | 삼진체육관장  |          |
| 시 | 설 | 분 | 과 | 이병길( )  | 진양국교교사  |          |
| 섭 | 외 | 분 | 과 | 류호성( )  | 김해체육관장  |          |
| 기 | 록 | 분 | 과 | 강인백( )  | 한일합섬근무  |          |
| 홍 | 보 | 분 | 과 | 박승원( )  | 진해공창근무  |          |
| 선 | 수 | 장 | 화 | 분과      | 황일휴(5단) | 군인(해군)   |



# 제주도 태권도 협회

제주시 삼도2동 452

전화: 제주 7-3195

제주협회는 1984년 1월 14일 11:00시 제주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1983년도 9,566,000원의 결산액보다 250여만원을 증액한 12,028,600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 8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 3월~5월까지 2개월간 제13회 전국 소년 체전 출전선수 강화 훈련
  2. 7월~10월까지 3개월간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강화훈련을 회관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대회로는
    - 4월 중순 제19회 전제주도 태권도대회 (시민회관)
    - 11월 제1회 전장기쟁탈대회(시민회관)
    - 5월 제주시 종합소년체육대회(시민회관)
    - 6월 제18회 전도 체육대회(시민회관)
    - 7월 제11회 전도 개인선수권대회(서귀포시 민회관)
    - 9월 제13회 전도 소년체육대회(시민회관)
- 등 4개의 대회를 주관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8개의 중앙대회에출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승품, 승단심사는 년2회로 3월과 8월에 실시한다.

84년도 제주도협회의 살림을 맡아 수고할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직 | 위 | 성 | 명   | 근           | 무           | 처   |
|---|---|---|-----|-------------|-------------|-----|
| 회 | 장 | 송 | 봉규  | 반공연맹        | 제주도         | 지부장 |
| 부 | 회 | 장 | 교유진 | 경진기업(주)     |             |     |
|   | " |   | 고춘호 | 안전공사, 새한자동차 |             |     |
|   | " |   | 고익조 | 대한보증보험(주)   |             |     |
| 상 | 임 | 부 | 회장  | 좌봉택         | 현대건설사       |     |
| 전 | 무 | 이 | 사   | 정건용         | 대한화재해상보험(주) |     |
| 총 | 무 | 이 | 사   | 신상은         | 오현고등학교      | 교사  |
| 경 | 기 | 이 | 사   | 강중식         | 제주중앙도장      |     |
| 심 | 판 | 이 | 사   | 김창기         | 제주신문사       | 차장  |
| 이 |   | 사 | 권창용 | 제주 칼호텔      |             |     |
|   | " |   | 고방림 | 고방림의과의원     |             |     |
| 감 |   | 사 | 김수진 | 진양상사(주)     |             |     |
|   | " |   | 이흥식 | 제주도청        | 운수계         |     |

## 경축

# 제13회 전국 소년 체전

일시: 1984년 5월 25일~29일

곳: 제주도

#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동 삼양학원 406호  
전화 : 212-7413

본 연맹에서는 1984년 1월 28일 올림픽아호  
텐 "사파이어 룸"에서 김영웅 회장의 19명의 전  
이사가 참석하여 이사총회를 실시하였다.

김회장은 인사말에서 83년은 국가적 차원에  
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온 국민이 단합된  
의지로 잘 극복하였음은 다행한 일이었다고 전  
제하고 본인도 사업관계로 많은 시련을 겪어  
서 연맹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사  
과하며 83년을 거울 삼아 84년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은 물론, 연맹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  
짐하였다.

이 자리에서 83년도의 15,329,608 원의 결산  
을 처리하고 84년도의 41,425,283 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84년도 사업계획과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임원명단

|   |   |   |   |   |              |
|---|---|---|---|---|--------------|
| 직 | 위 | 성 | 명 | 직 | 업            |
| 고 | 문 | 정 | 연 | 수 | 대한탄광협동조합 이사장 |
| 회 | 장 | 김 | 영 | 웅 | 동국탄광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
| 부 | 회 | 장 | 한 | 완 | 수 | 홍 | 순 | 탄 | 광 | 대 | 표 | 이 | 사 |
| 전 | 무 | 이 | 사 | 박 | 창 | 덕 | 영 | 등 | 포 | 교 | 사 |   |   |
| 일 | 반 | 이 | 사 | 이 | 상 | 범 | 동 | 국 | 탄 | 광 | 관 | 리 | 차 |
|   |   |   |   | " | 김 | 진 | 수 | 성 | 적 | 약 | 물 | 대 | 표 |
|   |   |   |   | " | 황 | 동 | 춘 | 원 | 심 | 서 | 예 | 출 | 판 |
| 총 | 무 | 이 | 사 | 이 | 현 | 갑 | 대 | 성 | 고 | 교 | 사 |   |   |
| 경 | 기 | 이 | 사 | 김 | 찬 | 희 | 대 | 성 | 중 | 교 | 사 |   |   |
| 섭 | 외 | 이 | 사 | 김 | 부 | 영 | 고 | 려 | 중 | 교 | 사 |   |   |
| 실 | 행 | 이 | 사 | 조 | 한 | 길 | 한 | 성 | 고 | 교 | 사 |   |   |
|   |   |   |   | " | 박 | 종 | 식 | 동 | 성 | 중 | 교 | 사 |   |
|   |   |   |   | " | 윤 | 태 | 곤 | 당 | 곡 | 중 | 교 | 사 |   |
|   |   |   |   | " | 정 | 해 | 주 | 은 | 광 | 여 | 고 | 교 | 사 |
|   |   |   |   | " | 이 | 중 | 구 | 성 | 암 | 여 | 상 | 교 | 사 |
|   |   |   |   | " | 최 | 권 | 열 | 문 | 영 | 여 | 중 | 교 | 사 |
|   |   |   |   | " | 김 | 인 | 수 | 동 | 성 | 고 | 교 | 사 |   |
|   |   |   |   | " | 최 | 재 | 혁 | 배 | 명 | 중 | 교 | 사 |   |
| 일 | 반 | 이 | 사 | 김 | 원 | 호 | 한 | 국 | 바 | 테 | 너 | 협 | 회 |
| 감 | 사 |   |   | 이 | 택 | 명 | 대 | 한 | 태 | 권 | 도 | 협 | 회 |
|   |   |   |   | " | 박 | 명 | 수 | 서 | 울 | 시 | 경 |   |   |
|   |   |   |   |   |   |   |   |   |   |   |   |   |   |

| 시        | 행    | 일                  | 사     | 업      | 명     | 주       | 최 | 비   | 고 |
|----------|------|--------------------|-------|--------|-------|---------|---|-----|---|
| 4.28-5.2 | 제11회 |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 | 쟁탈대   | 중·고 연맹 | 국기원   |         |   |     |   |
|          |      | 회                  |       |        |       |         |   |     |   |
| 7.28-22  | 제1회  | 체육부 장관기            | 쟁탈 대회 |        |       | "       |   | "   |   |
| 8.       | 멕시코  | 자매결연초청             | 친선경기  |        |       | "       |   | 멕시코 |   |
| 8.21-25  | 제20회 | 대한태권도협회장기          | 검     | 제11회   | 중·고연맹 | "       |   | 국기원 |   |
|          |      | 개인선수권              | 대회    |        |       |         |   |     |   |
| 5.27-29  | 제13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        |       | 대한태권도협회 |   | 세주도 |   |
| 10.      | 제65회 | 전국체육대회             |       |        |       | "       |   | 대구  |   |
| 12.      | 제6회  |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 대회    |        |       | "       |   | 필립핀 |   |

#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

서울 중구 북창동 124 (북창별관 101호)  
전화: 753-1776

본 연맹에서는 1984년 1월 18일 크라운관광호텔(로즈룸)에서 정기 이사회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상빈 회장은 인사말에서 83년도는 계획에 따라 알찬 연맹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점 없지 않았으며, 올해는 본인은 물론, 임원 모두가 태권도 어린이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보람과 희망찬 84년을 만들어서 85년도에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재적이사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본회의는 규약개정 심의와 수지예산 승인과 이사 선임전 등을 처리하고 이사회총회를 마쳤다.

## '83년도 사업실적

### 1. 제 4회 태권왕 겨루기 대회 (잠실종합실내체육관)

80개교 (서울 69개교, 지방 11개교)가 참가하였다. 겨루기 부문 513명, 품세부문 398명이 참가하였다.

### 2. 제 9회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기타 대회 (국기원)

본 대회에서는 회장 유고(有故) 관계로 준비가 지연되었다가 9월 제 7대 이상빈 회장의 취임과 아울러 급히 개최함으로써 다소 부진한 대회였다.

27개교(서울 20개교, 지방 7개교)에서, 겨루기 부문 237명, 품세부문 195명이 참가하였다.

### 3. 제 4회 문교부장관기 타기 대회 (잠실학생체육관)

본 대회에서는 36개교(서울 25개교, 지방 11개교)에서 겨루기 214명, 품세 327명이 참가하였다.

연맹에서는 1983년도 15,449,385원을 집행하였고, 84년도에는 20,070,000 원의 수지예산을 세우고 출벌을 하였다.

### 84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84년도 연맹살림을 맡아 수고할 임원과 기술심의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 1984년도 사업계획서

| 기 간       | 사 업 명                  | 비 고   |
|-----------|------------------------|-------|
| 5. 4(금)   | 제 5회 태권왕 겨루기대          | 국기원 및 |
| 5. 5(토)   | 회 시범단대회겸               | 장충체육관 |
| 7. 22(일)  | 제 5회 체육부장관기 대          | 국 기 원 |
|           | 회                      |       |
| 8. 20(월)  | 국민학교 태권도 어린이           |       |
| 8. 22(수)  | 수련회겸 지도자연수교육           |       |
| 10. 20(금) | 제 10회 연맹회장기겸           | 국 기 원 |
| 10. 21(토) | 인선수련대회                 |       |
| 12. 8(토)  | 태권도인의 밤                | 미 정   |
| 12.       | 장학사업 (장학생선발및 모범 어린이선발) |       |

## 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직장 및 직위     |
|-------|-----|-------------|
| 회 장   | 이상빈 | 시정화협의회 사무국장 |
| 부 회 장 | 송수안 | 삼안인쇄사 대표    |

" 윤평진 원진전자판매(주) 대표  
 " 지동원 효제 국교 교사  
 전무이사 주상일 선곡국교 교사  
 총무이사 한구상 승인국교 교사  
 재정이사 이원기 (주)대덕상사 대표  
 운영이사 송광문 광남앵글상사  
 기술이사 한규인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장  
 홍보이사 박성열 소년동아일보 기자  
 기획이사 정찬진 개포국교 사범  
 국제이사 이규형 미동국교 사범  
 감사이사 조휴익 중부가축병원 대표  
 이 사 안광현 대아상사 대표  
 " 김종태 영창실업 (주) 대표  
 " 이신구 학교 교장  
 " 최진억 신곡국교 교사  
 " 김희중 약 사  
 " 정재원 상무사 대표

## 기술심의회명단

기술심의의장 : 한규인

부의장 : 박용하, 이성우

경기분과위원장 : 정창진 위원 : 박명열, 이명수  
 한선재, 이종관  
 정중근

심판분과위원장 : 전만식(배심 5명, 심판 25명)

상벌분과위원장 : 전관선 위원 : 강대인

시범분과위원장 : 이규형 부위원장 : 최재무  
 황용용

심사분과위원장 : 김형철

관리분과위원장 : 임종민 위원 : 백조석

홍보분과위원장 : 박석천

교육분과위원장 : 최진억 부위원장 : 하민수

연구분과위원장 : 정문교

시설분과위원장 : 이재훈

지방법당위원

경남 : 범영국민학교 : 김관조

전남 : 함평국민학교 : 권갑수

경기 : 성남 제 2 국민학교 : 최국환

인천 : 용일국민학교 : 홍재학

충북 : 모종국민학교 : 김학만

충남 : 예산국민학교 : 유봉호

대구 : 수창국민학교 : 안재복

부산 : 배정국민학교 : 고시식

제주 : 법환국민학교 : 강유진

전북 : 구천국민학교 : 최문옥

경북 : 청림국민학교 : 조현진

강원 : 진 부국민학교 : 김동수



회장 이상민



부회장 송수안



부회장 윤평진



부회장 지동원



전무이사 주상일



총무이사 한구상



재정이사 이원기



운영이사 송광문



기술이사 한규인



기획이사 정찬진



국제이사 이규형



이사 정재원



이사 안광현



이사 김중태



이사 이신구



이사 최진억



이사 김희중



감사 조휴익

##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홍 보 실〉

漢字의 「이웃 隣(린)」字는 획도 많고 복잡하다. 그러나 그 뜻을 풀어 보면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β=邑)에서 쌀(米)을 주고 받으며 오고, 가고 한다는 뜻이다. 英語의 「neighbor(네이버)」도 비슷한 말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單語를 맞추어 「neighbor」라고 했다.

우리말의 「이웃」 역시 그런 뜻에서 비롯되었다. 가깝다는 표현은 거리(간격)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옛날, 인적이 드물던 시대의 가까운 거리란 요즘처럼 오밀조밀 추녀를 맞대고 사는 가까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 같다.

山 넘어, 혹은 江 건너 한채씩 떨어져 사는 이웃이다. 땅 덩어리가 넓은 中國이나 西洋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작 그런 時節의 이웃들은 四村보다도 兄弟보다가 가까웠는가 보다. 「이웃 四村」이니, 「먼 兄弟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俗談들이 전래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다.

「세넌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세넌이 땅이라면 천냥은 하늘쯤 된다. 이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것을 표현한 얘기다.

그러나 이웃은 무턱대고 좋기만한 것은 아니다. 「이웃집 꽃은 더 붉다」는 日本 俗談엔 시샘이 있고, 「이웃은 바보일수록 좋다」는 네델란드 사람들의 심사도 아름답지는 않다. 「심사(心事)는 좋아도 이웃집 불붙는 것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 俗談도 있다.

지금은 집과 집 사이가 가깝다 못해 벽을 사이에 하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시대다. 공동으로 같은 大門, 같은 계단을 쓰는 것은 물론이다. 바로 이런 이웃이 情理로는 千里가 넘는다. 누가 사는지, 이름이 뭔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캄캄하다.

얼마전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 「이웃 아파트의 老人이 죽은 것을 집배원이 발견」했다는 얘기가 이젠 유령이나 美國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옛날과는 거꾸로 가는 세상인가?

잔등을 맞대고 사는 이웃인데도 마음의 빗장은 천근 만근이니 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集合住宅」까지 분리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나쁜 이웃은 몰아낼 수도 있는 법이라 보면 되겠다. 하긴, 「秘密 요청」「댄스 敎習」「內緣의 妻」「범죄의 아지트」등을 생각하면 그럴지도 하다. 게다가 「공동생활」이라는 새로운 住居文化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생활 풍습까지 곁들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옛날 法諺에 「좋은 律士는 나쁜 이웃」(Bon avo-cat, mauvais voisin)이라는 말이 있다. 律士와 이웃이 되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웃간에는 법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위 내용의 글과 우리 태권도 도장의 이웃 도장과의 관계를…… 서로 협조하고 共同으로 共存하는 그런 「이웃 四村」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가를,……서로 혈통고, 심지어는 律士를 필요로 할 정도까지 도래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어쨌다하면 陳情書, 독 하면 연판장, 결핍하면 重傷謔略, 이거 “생각 좀 해 봅시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태권도인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칭찬 좀 합시다. 거짓말로라도 남을 비웃고 헐뜯지 맙시다. 우리는 태권도의 道를 重示하는 武道人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惡한 要素는 모두 씻어버리고, 85년 제7회 세계대회, 86 아시아 게임, 88 올림픽 등, 세계인의 체육 제전을 맞이하기 위하여 舍心하고 團結함은 물론, 各者 공부하고 수련을 하십시오.

# 강물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Argentina          | Australia | Austria  | Bahrain     | Belgium  | Benin               | Bermuda  | Bolivia | Brazil      | Brunei          | Cameroon       | Canada      | Central Africa | Chad      | Chile        | Chinese Taipei | Colombia  | Costa Rica | Curaçao   | Cyprus      | Cyprus        | Denmark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 Dominican Republic | Ecuador   | Egypt    | El Salvador | Ethiopia | Fiji                | Finland  | France  | Gabon       | Germany         | Ghana          | Greece      | Guam           | Guatemala | Haiti        | Honduras       | Hong Kong | Hungary    | India     | Indonesia   | Iran          | Iraq    |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 Ireland            | Israel    | Italy    | Jamaica     | Japan    | Jordan              | Kenya    | Korea   | Kuwait      | Lebanon         | Lesotho        | Liberia     | Libya          | Malaysia  | Mali         | Mauritius      | Mexico    | Morocco    | Nepal     | Netherlands | New Caledonia |         |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 Norway             | Nicaragua | Nigeria  | Oman        | Pakistan | Panama              | Paraguay | Peru    |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Puerto Rico | Qatar          | Romania   | Saudi Arabia | Senegal        | Singapore | Spain      | Sri Lanka | Sudan       | Suriname      | Sweden  |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               |         |
| Switzerland and    | Taiwan    | Thailand | Togo        | Tonga    | Trinidad and Tobago | Tunisia  | Turkey  | Uganda      | United Emirates | United Kingdom | U.S.A.      | Upper Volta    | Uruguay   | Venezuela    | Virgin Islands | Yemen     | Yugoslavia | Zaire     |             |               |         |

# 필리핀(Philippines)

## 홍 성 천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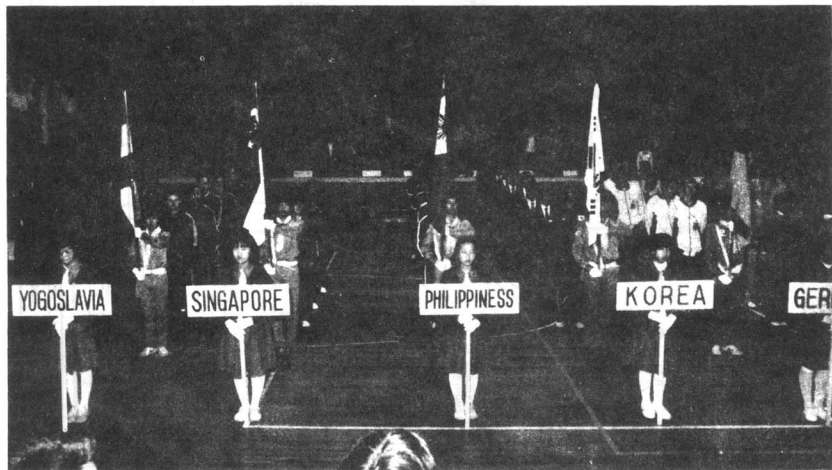
9월 엔리레(ENRILE) 국방장관(현, 협회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에 태권도 보급에 첫발을 딛은 그는 처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언어장벽은 물론, 나라의 습관 및 국민성향을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웠었다고 솔회한다.

특히 평상기온이 높은 열대기후에 적응하는데는 태권도로 단련된 건강한 몸으로도 견디어 나가기 어려웠었다고 한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마키티(makati)시에 체육관을 개설하고 태

권도 보급을 펴는 한편, 1977년 6월에는 마닐라의 라살(LA Salle)대학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소개하여 필리핀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제는 라살대학에 태권도가 체육종목으로 채택되어 체육학점에 높은 비율로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 30개의 대학에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발전하여 온 대학의 태권도부는 1983년 필리핀에서 전국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20개 대학에서 25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등분서주하며 태권도 보급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는 1979년 5월 제1회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4개의 팀으로 시작하여 제2회, 3회, 4회 대회를 치루는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태권도대회는 1983년 제5회 전국태권도 선수권 대회에는 전국에서 60개팀에 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필리핀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대회로 성장을 하였다.

또한 1983년 12월 태권도의 중추국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종합 4위로 감투상을 획득하였다.

필리핀은 인구 약 5,000만명으로 언어 사용은 68개의 말을 모두 사용하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또 국민들은 게을러서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남·북 포함)의 면적에 4배나 되는 넓은 땅이 7,1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무한대이며, 자원이 풍부하여 부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한다.

주요 산물은 설탕, 코코넛, 석유, 금, 원목 등이다.

필리핀에서 태권도 수련은 부유층의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70여개의 도장에서 500여명의 유단자와 20,000여명의 수련생이 있다.

홍 성찬 사범을 위시한 3명의 사범이 태권도 보급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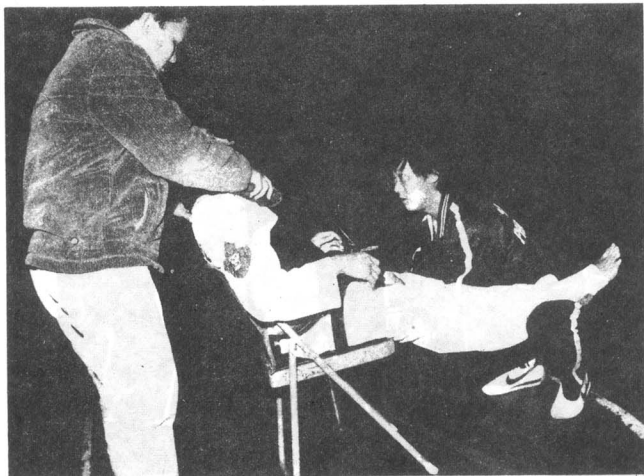
80년 9월에는 필리핀 태권도 성인 시범단을 결성하여 년 100회의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 보급에 전념하며, 국영 T.V에도 20여회 출연으로 태권도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홍 사범의 지도를 받으며 체육관을 거친 수련생 연 인원은 3,000여명이 되며 대학 수강생도 1,000여명 등이 된다고……

10년간 배출된 유단자가 200여명으로 유명 인사 제자 중에는 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재계, 정계 등의 인사들이 많아 대회 등, 태권도 행사에 많은 협조로 어려움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정부는 “아키노” 사건으로 다소 불안정스러운 상황이나 84년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각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치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세계연맹과 아시아 연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10년전에는 태권도 볼모지가 이제는 제6회 아시아대회를 개최할 만큼 발전을 하였음은 물론, 80년도에 필리핀 정부는 문교부에 정식 등록 단체로 성장하였고, 83년 5월에는 필리핀 올림픽위원회에 무도로서는 처음으로 정식기



입되었다.

홍 사범은 83년 국제대학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필리핀 대학생 태권도연맹이 굳게 결속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며 가라데, 쿵후 등 많은 종류의 무도 속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 제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국 : 필리핀 (Philippines)

예정일 : 1984년 11월~12월 중에서

필리핀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를 전격적으로 보급하고 한국의 무도를 소개하고 저변확대와 아시아 각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 유치 목적이 있다. 1982년 12월 싱가포르 아시아 태권도 조직 위원회에서 84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8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권도 연맹 총회에서 필리핀 대표로 참석한 홍 성천 위원회 대외 준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대회 준비 상황을 보면, 필리핀 항공, 대한항공과 필리핀 태권도 협회와 협정을 맺어 50%의 항공료, 할인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 정부 당국인 필리핀 올림픽 조직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약받고, 그 결

실로 마이클 게이온(Michael Keon)이 김용 총재의 초청으로 국기원을 방문, 대회 개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합의하고 필리핀 정부와 원칙적인 지원 입장을 확약하였다. 1984년 11월 대회 예정을 잡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제일 큰 경기장인 리잘 체육관(Rizal G.Y.M)을 계약해 놓고, 각 신문사, 방송국의 임원들과도 대회 협조 확약을 받고, 시합의 중계 방송 등 합의를 보았다. 84년 2월 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하여, 어느 대회보다도 성대한 대회를 치루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83년 12월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필리핀 대외의 대회 준비 위원장인 홍 성천 사범은 자신있게 말한다.

# 뉴질랜드

## 이 정 남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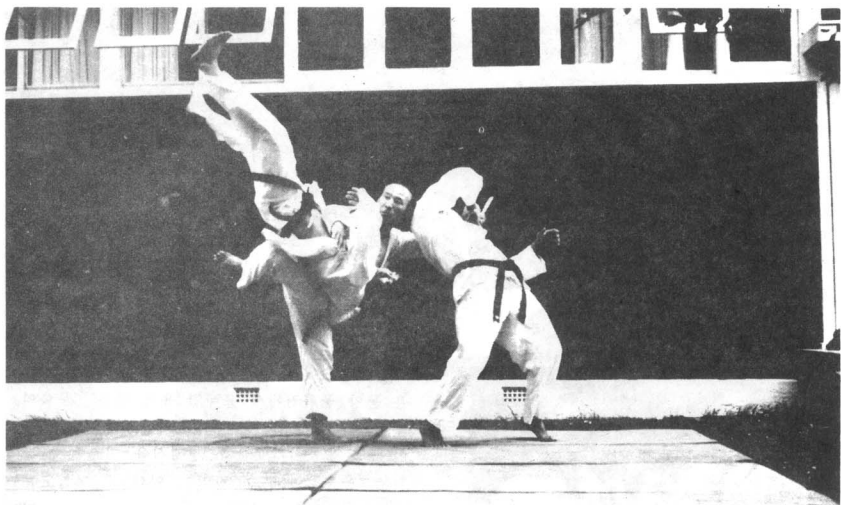
Muldoon 수상에게 세계 연맹의 명예 4단증을 전달하는 이 사범

다른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동양 무술의 인기가 높다. 동양 무술중, 가장 급속히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태권도다. 1976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한 이래로 뉴질랜드 태권도 협회는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오늘날 뉴질랜드에는 1,800명의 태권도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국에 태권도 클럽이 36개나 있다. 또한 뉴질랜드 태권도 협회는 뉴질랜드 올림픽 및 연영방 경위협회의 집행부에 가입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태권도가 이처럼 급 성장한 것은 동양 문화권에서 유래한 유서 깊은 무술이 갖는 매력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태권도가 힘이 드는 운동이기때문에 경쟁심을 기르는 도전적인 운동인데도 그 원인이 있다. 태권도는 효과적인 자기 방어 방법이라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또한 태권도는 젊은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 태권도 클럽에 많이 가입하여 몸을 단련하고 신체의 유연성을 기르고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 젊은 여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발레같은 무용을 배운 일이 있는 여성이 태권도를 더 잘 익히며, 힘이 센 남자 동료들 보다 우수한 태권도 기술 소유자가 된다.

뉴질랜드인은 태권도 7단, 검은띠 소유자이며, 합기도 6단 검은띠 소유자인 이 정남사범으로부터, 직접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남사범은 한국 공수단의 대위이었으며, 월남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일도 있다. 이 정남사범 이외에도 한두 사람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있으나, 이 사범만이 전적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뉴질랜드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대회를 종종 개최하고 전국 태권도 시합 대회도 종종 개최한다. 전국 태권도 챔피언 대회가 지난 5월 14일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제 4차 전국 대회이었다. 이 토너먼트를 통하여 해외에 출전하는 선수를 선발하게 된다. 1978년에 개최된 홍콩 아시안 게임과 1982년 개최된



호신술 시범을 보이는 이 사범

싱가폴 아시안 게임에서 뉴질랜드는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진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없이는 국제 경기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현재, 뉴질랜드 태권도 협회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의 시범 게임에 참가할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면 뉴질랜드 태권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정남 사범은 뉴질랜드의 로버트 멀둔 수상에게 명예 4단 검은띠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주한 뉴질랜드의 교관 2명이 현재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市

### 김 정 관 사범

83년 12월 8일 김사범은 체육관의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시내의 국민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태권도 시범 대회경 승단, 승급심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주의원(州議員) “프리즈 그라이

더” 박사는 금번, 태권도 시범과 승단, 승급심사의 광경을 지켜보고, 「경이적이고 감동할 만한 태권도의 정신을 보여준 성대한 대회였다고 호평을 하였다.

이곳 洲新聞 “티틀러 타게쓰자이통”紙(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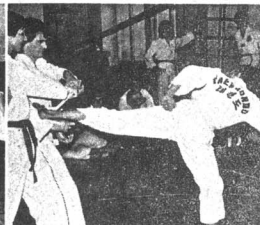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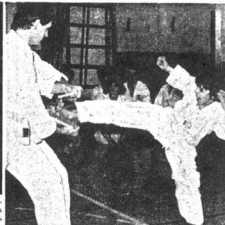
# Tiroler Tageszeitung

UNABHÄNGIGES TIROLER VOLKSBLETT FÜR WESTÖSTERREICH UND SÜDTIROL

39. Jahrgang - Nr. 268

Montag, 12. Dezember 1983

Einzelpreis S 5.-/DM 1.20/Lit. 900



**TAEKWONDO ALS SELBSTVERTEIDIGUNG** – im Innsbrucker Taekwondo-Center wird die Jugend hervorgetrieben, das Training aller Altersstufen ist hier aber vielseitig, meint Landesrat Dr. Fritz Grieseder, ein Botschafter und Förderer dieses Sportzweiges. Die Vorträge mit anschließenden „Relieffprüfungen“ (Verleihung der Dan-Gürtel) fanden regen Zuspruch und großen Anklang. Bewundernswert die Disziplin und der Respekt, mit dem alle dem Leiter Chung Kwan Kim (Träger des schwarzen Gürtels – 8. Dan) begegnen. Von Gymnastik bis zu vielseitigen Übungen der Selbstverteidigung wurden die verschiedensten Details gezeigt: Handkanten-schlag (zwei Zentimeter starke Bretter mühelos halbiert) oder Durchschla-

gen von zwei Zentimeter starken Brettern im Sprung und aus der Drehung. Drei Bilder von links: Nicht im Bild das Durchschlagen von Brettern mit den Fingerspitzen und die Abwehr bei bewaffneten Überfällen von vorne und rückwärts, gezeigt von reiferen Mädchen. Rechts im Bild Optim für die jüngste Teilnehmerin durch Chung Kwan Kim.

TT-Foto: Spiel

이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기사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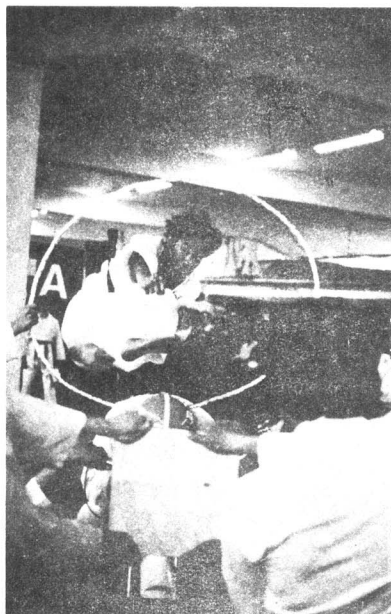
또한 83년 12월 13일 김 형근 대사의 초청으로 비엔나 대사관저에 전국 주재 사범 내외와 대사관 직원 내외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표로 서 광석사범이 감사의 말씀을 하였고 본인이 오지리의 태권도 현황을 설명하였다.

오랫만에 사범들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푸짐한 성찬을 들었으며 식사 후에는, 원 용철 해외공보관의 수고로 극영화 “배우기도 밤에는 우는가”를 보면서 합수를 달랐다. 이날 우리는 사범 회의를 갖고 84년 3월 24일 “크라켄 프르트市”에서 전국 사범 합동시범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면을 빌어 김 형근대사와 대사관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대사의 초청의 글 소개)

김 정관사범 귀하

이역땅,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보급과 교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사명감에 찬 노력의 결과로 올해에도 여러 지방에서 국위가 널리 선양되었고 각



오토바이 탄 사람의 등위를 넘어 장애물을 뚫고 이단연타기를 하는 이 정관사범의 묘기





대사관저에서 기념촬영 (중앙 대사 내외분)

(김 광철사범 내외, 신 장환사범 내외, 이 광배사범 내외, 김 정관사범 내외, 서 광석사범, 손 중호사범 : 무순)

지의 교민 사회도 더 한층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교민 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신 귀하의 공헌을 치하하고 아울러 겪으신 일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오는 12월 3일(토) 18:00시에 저의 판저(Formanekgasse 18, 1190 Wien)에서 귀하를 모시고 소찬을 갖고자 하오니 가능하면 부인과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상 필요하오니 참석 및 부인 동반 여부를 11월 20일까지 영사(전화: 78479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숙소 마련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알려주시면 대사에서 주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을 날을 기다립니다.

1983.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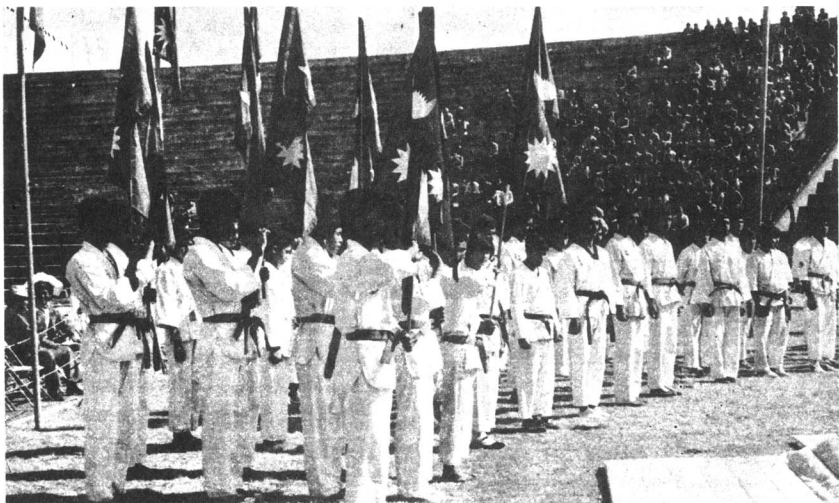
대사 김 형 근 배



<시범 및 승단, 승급심사를 마치고>

# 네팔 (Nepal)

## 신 재 군 사범



네팔 무술협회에서는 1984년 1월 30일~ 2월 4일(6일간)까지 “카트만두” 국립 축구장 야외경기장을 설치하여 제 1회, 사카르마타(에베레스트) 태권도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시합은 가라데와 태권도를 심판하는 21세기의 격투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태권도 선수 21명 가라데 선수 67명 도합 88명이 참가한 시합이었다.

이곳 네팔에 가라데가 뿌리를 내린지는 6년 태권도는 불과 10개월 밖에 되지를 않았으므로 시합은 유단자들만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왕제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네팔 내의 전 무술인 모두가 참가하게 되었다.

가라데 유단자 46명에 태권도는 유단자가 3명 밖에 없었으나, 21명의 출전선수 모두가 선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네팔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태권도와 가라데의 격투를 은근히 조장하는 쪽으로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대회전부터 고조되어서 일본 대사관, 이북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의 주재원과 300여명의 네팔 주재 일본인들 사이에 큰 화젯거리였다.

본 대회 기간 중 왕제가 친히 두번이나 나와서 관전을 하는 등, 비중이 큰 대회였다. 본 대회는 총 9체급(남자 8체급, 여자부 1체급)에서 유급자를 포함한 태권도가 남자부에서 금 5개,

은 3개, 동 8개와 여자부에서 금1개로 태권도가 종합 우승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경기 규정을 태권도에 “물” 따르게 했고 심판원은 제 3국인 홍콩, 인도에서 국제심판이 초청되었다.

본 대회를 계기로 84년 3월 21일부터 열리는 제 2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었으며, 태권도를 저변확대하는데 메스콤의 역할이 활성화되었고, 일본대사관, 이북 대사관등 네팔 주재 일본인에게 자국은 물론 태권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미국 일리노이주 피오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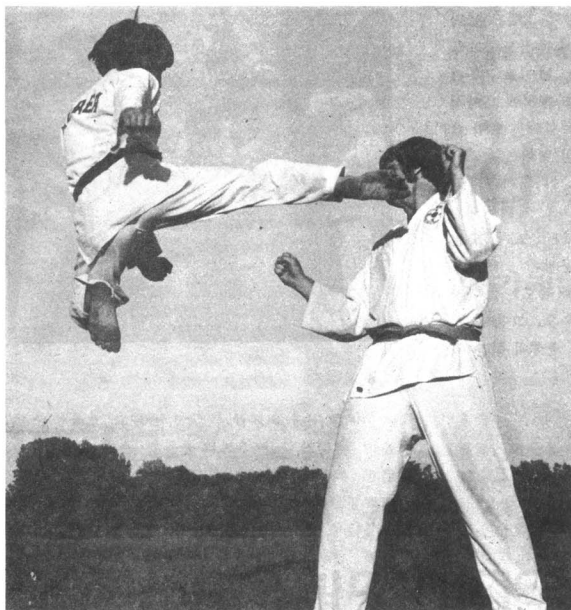
## 김 수 곤 사범



일리노이주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인 日刊 Journal Star紙가 김 수곤사범의 활약상을 대형 사진과 함께 「Soo Kon Dreams made him Martial Art Leader」란 제목 아래

전면 페이지에 대서 특필한 것을 비롯하여, 이곳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Observer紙와 Traveler紙, 그리고 월간지 West Bluff Word紙까지 피오리아市の 전체 신문이 김 수곤사범의 태권도 동작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태권도와 한국인의 공지를 높여 주고 있다.

특히, Journal Star紙에서는 지난해 김 수곤사범과 그 제자들과의 미담을 front page에 보도하며, 김사범의 무도경력과 함께 2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태권도가 단순히 차고, 지르고, 막는 호신술만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통해 정신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키우는 하나의 道(道)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진정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으며, 김사범의 어린 시절의 꿈인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어 차는 태권도인이 되겠다는 목표가 25년간의 수련의 결실로 오늘날 9피트 6인치(약 3



m)의 높이를 차는 사범이 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김사범이 발간한 「The Essence of Tae Kwon Do」 교본 소개와 함께 태권도를 보급하고 현실, 그리고 지금의 김사범의 성공이 있기까지의 모든 성공은 올바른 태권도 수련에서 연유된 것으로써, 「의지가 있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그의 뚜렷한 좌우명을 소개하는 등 화제가 되었다.

특히 월간지 West Bluff Word紙에서는, 「Nothing is impossible to a willing mind」란 제목으로 김사범이 집필한 정통 태권도 교본 내용 중에서 태극철학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크게 실어 화제가 되었으며, G. E. 케이틀 비전(제널5)은 황금의 시간인 밤 7시부터 1시간 동안 본 TV의 「Captions」 프로그램의 호스트 Michael Banks(마이클 뱅크스)씨와 김사범과의 단독 인터뷰를 방영했다.

「Master of Tae Kwon Do, Soo Kon Kim」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밤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보면, 태권도의 정의, 역사, 철학의 소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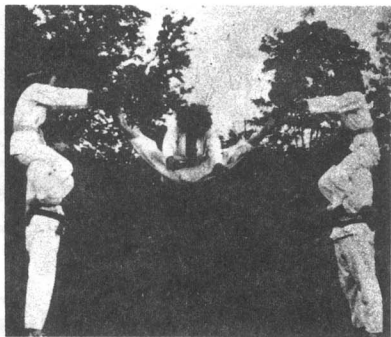
더불어 태권도가 호신술로써 단순히 차고, 지르고, 막는 신체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라 수련을 통하여 정신을 수양(Discipline)하고 자신감(Self Confidence)을 배양하며 정신통일(Concentration)과 극기(克己)를 터득함으로써 인격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가장 뛰어난 심신운동(心身運動)이며, 끊임없는 자아향상(Self Improvement)에 이 운동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이 점도 지성을 갖춘 사범들의 끊임없는 지도 방법의 개선(改善)과 무도(武道) 본래의 정신적인 공방기술(攻防技術)의 조절(Control)에 의하여,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며, 지난 7년반동안 자신의 경험으로 6세부터 73세까지의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고 배우는 운동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74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 미 국무성 초청 학생대사로 선발되어, 도미하여 뉴욕에서 그

랜드 챔피언, 위스콘신주에서 “슈퍼 그랜드 챔피언”을 획득한 사실 및 태권도 시범 중에서도 고도의 수련을 요구하는, 쌍고축(3피드 넓이로 7피드 공중에 있는 두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차서 격파하는 기술) 사진 등을 방영하였다. 또한 8년전부터 매년 태권도 고단자 시범 대회는 등 TV에서 한시간 동안 방영키로 예약이 되어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A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모여 드는 톱 스포츠 맨(Top sports man)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는 절호의 찬스라 믿고 태권도 고단자 시범 대회를 LA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고단자 시범단원 모집 등 흥분된 분위기에 분주히 뛰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 이 무 진 사범

83년 11월 24일 사우디 동부지역, 담맘시 「마르카스 락카」 시립 체육관 경기장에서, 제2회, 사우디 한인 학교 어린이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대회장 정 재현(담맘 한국인학교 교장)을 비롯한 현지 체육관계자 교민회 회장·건설회사 간부직원, 교사 등, 제 사우디 한국인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여섯 시간 동안 진행된 이 경기에는 이 운제, 이 재학, 전 문범, 이 재동 사범들이 심판원으로 수고를 하였다.

이제 태권도는 교민사회에서 자리를 굳혀 제1회 대회보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을 하였다.



특히 정 재현 교장은 태권도 유단자로서 태권도 저변확대에 적극 지원하시어, 학부형들 사이에

호응을 얻어, 열사의 나라에서 씩씩하고 전전한 한국의 새싹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 해외사범들의 과제

## 이기정 사범

어려움고 고달픈 이국의 환경속에서, 해마다 지나온 크고 작은 결과를 회고하며, 씁쓰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음미하면서, 오늘도 하나의 명제(태권도)를 위하여 허허(虛虛)로운 異國땅에서 가랑잎처럼 떠도는, 사범들의 현황들을 우리들은 심중의 고뇌로 이해하는 立場에서 보아야 하겠다. 물론, 그 많은 사범들의 개개인을 상대하여 하나의 중론을 모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보다 제도적으로 연구를 꾸준히 한다면, 꼭, 어려운 문제라고 단언 할수 없을 것이다.

해외생활에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개의 사범들의 생활권은 안정되어, 안락한 느낌이 드나, 마음 깊숙히 느끼는 공통된 염원은 거의 비슷하리라 본다. 표현할수 없는 정신적인 공백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혈연적인 관계로 유착되었던 유교적인 도덕관념과 가족 제일주의 사고방식 등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윤택할 수록, 고향을 그리워함을 어찌하랴, 해외생활 초창기에는 단순히 주위 환경 변화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고향의 그리움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겠지만, 안락된 후에 느끼는 향수를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하리라,

자신의 행적과 노력의 결실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거주하는 나라의 영주권 내지는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외국땅에 자신을 묻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평상적인 대화나 평범한 모임에서 은연중에 알 수 있다.

누구나 금의환양하겠다는, 깊은 고정관념과 노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동안 헤어져 살았던, 혈연, 이웃들과 오손도손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각국의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2세대들이 고향에 돌아가 잘 적응할수 있을까? 를 염려하고 있다.

모두가 고된 사범의 길속에서도, 자신의 회생을 바탕으로 2세대에게 수준높은 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여러가지의 목표를 후세들에게 기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느낀다. 대개 사범의 2세대들은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여 훌륭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고 또 높은 교육열은 높이 평가하여야 하겠다. 혹자는 2세에게 태권도사범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사범도 없지는 않으나, 대개의 사범들은 자신의 모든것을 걸었던 태권도 사범에의 길과 2세들을 연관시키려 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적수공권으로 해외에 나와 태권도복 하나로 피눈물나는 육체적 정신적각고를 겪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들의 전철을 본인의 2세에게는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면서,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교육사상은 외국에서 더욱 더 굳어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다.

다른 한 면으로는 사범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신(태권도사범)의 자신력에 대한 회의와 침체된 마음의 경직상태에서 오는 자신력 상실

이라고 표현될까? 어찌되었건 사범들 몇 명이 자리를 같이 하면, 이구동성으로 50 대 이전에 도복을 미련없이 벗을 수 있어야 할테인데…… 라는 얘기를 나누곤 한다.

실상,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피로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며, 도복을 벗어버리고 사업의 길로 전향하는 사범들이 최근에는 속출하고 있다. 사범들이 속속 태권도복을 벗고,사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즈음, 앞으로 20 년후의 세계속에 한인사범의 숫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날 세계속에 뻗어갔던 유도와 비유해 볼 도 의미가 있을것 같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한국인 태권도 사범은, 타 이민교포보다는 대우를 받으며, 차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차별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태권도 사범은 지도자로서, master라는 말을 들으며 걸으라는 지내고 있으며, 타 유색인종들을 우리말로 우리의 것을 “조령”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태권도사범이 아니면, 어느 나라의 교포들도 못하는 일일 것이다. 외국인들로 부터 속마음이야 어쨌든, 정중한 예우를 받을수 있었음은 태권도라는 “국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태권도와 생활을 하는 한국인 사범들이 타국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 (他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비운에 떠나는 서글픈 소식을 접할때, 허무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얼마전, 후르리다에 태권도 보급의 기초를 다졌던, 김금준사범이 타계하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태권도 보급에 혼신을 다하였고, 태

권도를 통한 국위선양에 앞장 섰던, 김사범——이제 가정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우리와 운명을 달리하였다.

각박한 해외생활속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시간적여유 없이 뛰고 있는 사범들의 단면을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이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동료사범 도장에서 심사를 보며 태권도의 미래와 현실개척을 위해 노력하던 김사범이 평소가까히 지내오던 30여명의 동료사범들의 안타까움속에 영면하였다. 사범 30여명은 마음을 모아 김사범 자녀들의 교육적금을 들어서 미망인께 진하며, 위로를 하였지만, 개운치 않은 사범들의 마음은 왜 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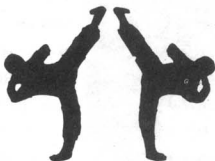
해외에 거주하는 사범들만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음을 절감하며,

태권도 보급에 십여년이상 노력하시다 타계하신 김금준사범님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김금준 사범 유족후원자(재미사범)명단 <무순>

|       |        |       |
|-------|--------|-------|
| 도영수사범 | 임상용사범  | 조수세사범 |
| 이기정사범 | 최병호사범  | 정준용사범 |
| 김영준사범 | 최순덕사범  | 공석환사범 |
| 박성기사범 | 이완종사범  | 박성기사범 |
| 홍원기사범 | 박정술사범  | 전영호사범 |
| 윤복석사범 | 박정수사범  | 박정환사범 |
| 조시영사범 | 김순억사범  | 박균석사범 |
| 이정남사범 | 남궁희덕사범 | 양원조사범 |
| 김학천사범 | 노홍우사범  |       |

재미국인사범 다수등에 감사하는 마음을전합니다.



# 제1회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나서

이 승 국

한국체육대학 교수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사

한국 대학태권도 연맹에서 국제대회를 개최 한 것은 대학 태권도 발전뿐 아니라 태권도 발전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83년 12월 10일~11일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이틀간의 성대한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14개국에서 임원 및 선수가 150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자국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유중국 선수단은 불참 하였고 네덜, 프랑스, 스페인, 태국은 임원만 참석하여 자리를 빛나게 하였다.

식전에서 대회장 이상주 회장은 대회사에서 86년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우리는 창조적인 정신으로 태권도의 연구와 기량의 발전 그리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승화시키고 세계 태권도인들의 우의와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하였다.

축사에서 김운용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단합과 형제애를 추구하는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려는 오직 한 단계의 전진에 불과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청년층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12월 8일부터 각국 참가인원 및 선수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영접부장을 맡은 이규석교수는 추운 날씨에도 각국 선수단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각임원들은 자기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감있는 노력으로서 제1회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사명감에서 가정을 떠나서 몇일씩 학생들을 한결과 국제대회를 잘 치르게 된 것이다.

12월 10일, 07:00~07:50분까지 핀급플라이급, 밴텀급, 페터급, 라이트급의 체체량을 마치고 09:00~11:30분까지 패자 탈락형 토너먼트 식으로 예선전을 마치고 나서 11:30~12:00개회식 예행 연습을 하고 12:00부터 13:40까지 김운용 총재님과 여러 귀빈을 모시고 각국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임원 및 선수단의 입장장이 있은뒤 대회가 개회되고 제1회 국제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선언 하면서 개회식은 성대히 거행되었다. 13:40~16:30 5체급에 대한 준결승과 결승을 마치고 동시에 각체급별 시상식을 하였다. 첫날 경기에서는 한국이 5체급 핀급부터 라이트를 모두 석권 하였고 필리핀이 2체급 2위<핀급, 플라이>와 2체급 "3위" <밴텀 페터 라이트>미국이 2체급 2위<라이트, 밴텀급> 2체급 3위<플라이, 페터>싱가폴이 1체급 2위<페터> 1체급 3위<플라이> 그리고 네덜, 인도네시아가 각각 3위 1체급씩 입상하였다. 첫날 경기에서 특히 팔목할 경기는 플라이급의 이인재<한국>선수와 이대성<미국>선수와의 경기였다. 이대성 선수는 제1회 월드게임과



제 6 회 세계 선수권대회에 재미교포로 미국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였으며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이었다.

12월 11 일 경기들째날도 같은 시간에 제체 랑을 마치고 09:30분부터 웰터 라이트-미들 미들 라이트-헤비 헤비급의 5 체급 경기에 들어갔다. 둘째날 경기에서는 한국이 3 체급 1 위 <웰터 라이트-미들 헤비> 2 체급 3 위 <미들 라이트-헤비> 미국이 1 체급 1 위 <미들> 2 체급 2 위 <웰터 헤비> 1 체급 3 위 <라이트-미들>, 유고슬라비아가 1 체급 1 위 <라이트-헤비> 1 체급 3 위 <웰터>, 캐나다가 1 체급 2 위 <라이트-미들> 3 체급 3 위 <웰터, 미들, 헤비>, 독일이 1 체급 2 위 <미들>, 보츠와나가 1 체급 2 위 <라이트-헤비>, 인도네시아, 시에라레온, 필리핀이 각각 1 체급씩 3 위 입상 하였다. 둘째날 경기에는 미국과 유고슬라비아에서 각각 1 체급씩 1 위하였다는 데에서 태권도가 세계의 스포츠가 되었다는 데에 큰의의를 찾을수 있다고본다.

제 1 회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대회 임원들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태권도의중주국인 한국에서 제 1 회 국제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우리 태권도인은 큰 보람을 찾아야 될것이다. 끝으로 이대회 기간동안 회생을 무릎쓰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세계 태권도연맹 임원및 대한태권도 협회임원 특히, 노우중부장, 김봉기 경기분과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체급           | 동위 | 성명                | 국적          |
|--------------|----|-------------------|-------------|
| 핀<br>급       | 1  | CHANG BAE.        | KOREA       |
|              | 2  | DOMINIC UY 위      | PHILIPPINES |
|              | 3  | ARJUN RAI         | NPAL        |
| 플라<br>이<br>급 | 1  | IN JAE, LEE       | KOREA       |
|              | 2  | MIGUEL VENTOSA    | PHILIPPINES |
|              | 3  | G. RAJEN DRAN     | SINGAPORE   |
|              | 3  | DAE SUNG, LEE     | U.S.A       |
| 벤<br>텀<br>급  | 1  | KI SEONG PARK     | KOREA       |
|              | 2  | FREDERICKD, LEWIS | U.S.A       |
|              | 3  | ARNOLD, BARA DI   | PHILIPPINES |
|              | 3  |                   |             |

|                       |   |                                  |             |
|-----------------------|---|----------------------------------|-------------|
| 페<br>터<br>급           | 1 | JONE HO-LEE                      | KOREA       |
|                       | 2 | CHUA BEE WHATT                   | SINGAPORE   |
|                       | 3 | DAVID UY 위                       | PHILIPPINES |
|                       | 3 | HAN WON, LEE                     | U.S.A       |
| 라<br>이<br>트<br>급      | 1 | DONG SOO, KWAK                   | KOREA       |
|                       | 2 | PHILLIP CUNNINGHAN               | U.S.A       |
|                       | 3 | HARI JANTO ANTONIO LACSON        | INDONESIA   |
|                       | 3 |                                  | PHILIPPINES |
| 웰<br>터<br>급           | 1 | JONE CHEOL, YOO                  | KOREA       |
|                       | 2 | RUBEN FIGUEROA                   | U.S.A       |
|                       | 3 | MARC SIROIS                      | CANADA      |
|                       | 3 | TOSKOVIC NEBOJSA                 | YUGOSLAVIA  |
| L<br> <br>미<br>들<br>급 | 1 | CHAN WOONG, CHOI                 | KOREA       |
|                       | 2 | ROSS COOK                        | CANADA      |
|                       | 3 | KAREEMALI JABBAR HENDRO HARIANTO | U.S.A       |
|                       | 3 |                                  | INDONESIA   |
| 미<br>들<br>급           | 1 | MIKE KIM                         | U.S.A       |
|                       | 2 | MARTIN BERNHOFER                 | GERMANY     |
|                       | 3 | MICHAEL KIARENBECK               | CANADA      |
|                       | 3 | JONG KOOK, KIM                   | KOREA       |
| L<br> <br>헤<br>비<br>급 | 1 | TOSIC ENIO SAMOTSHOZO            | YUGOSLAVIA  |
|                       | 2 | PHILLIP YEONG CHEOL KO           | BOTS WANA   |
|                       | 3 | SUMORRY ALPHA                    | KOREA       |
|                       | 3 |                                  | SIERRA LEON |
| 헤<br>비<br>급           | 1 | YONG KU, KANG                    | KOREA       |
|                       | 2 | CHRIS GALL OWAY                  | U.S.A       |
|                       | 3 | CLAUDIO CAAMANO                  | CANADA      |
|                       | 3 | ALBERT                           | PHILIPPINES |

# 제 7 회 연세대학교 총장기 생탈

##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권대회

(1983년 10월 19일 ~ 21일까지)

(연세대학교태권도팀부장)

김 영 선

연세대학교 주최, 대한 태권도 협회의 후원으로 1983년 10월 19일부터 4일간 교내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대회 열마전 예기치 않던 국가의 참사로 인해 대회 개최 일정에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예정대로 치르게 되어, 입상자들의 대학 진학 특기자 혜택을 받을수가 있었다.

매년마다, 대회 일차선정에 있어서 협회, 주최측, 참가측 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참가측의 편의와 입상자들의 특기자 수혜를 위해 주최측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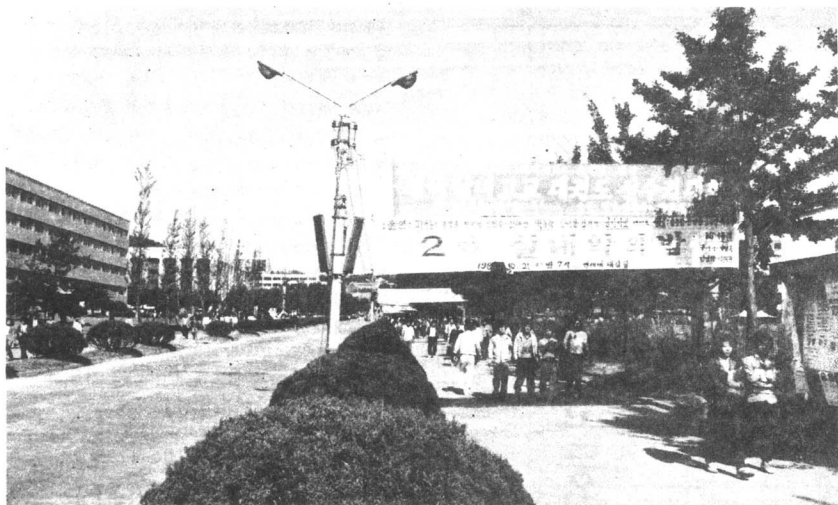
출전 현황은 작년에 비해, 참가인원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고교 태권도의 강팀은 거의 출전하여 대회우승을 노리는 진지한 모습들이 역력했다.

대회에 접어들자 비교적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첫날부터 대 여섯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여, 관계자들로 하여금 많은 부상자를 낳았던, 지난해대회를 상기 시키면서 조바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첫날 오후에 있었던 개회식에 국기원 및 대한 태권도 협회 임원들이 배석 하시었고, 본교 총장님을 대신한, 강필승 체육부장께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성황리에 거행되고 있는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하신 김충재님의 업적에 대한 찬사와 그간 이대회를 위해 노력한 임원,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대회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진정한 학원 스포츠로서의 정착에 힘써줄것과, 선수들에게 지, 덕, 체를 겸비한 사회의 유용한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가 양코트에서 계속되었는데, 이틀간의 예선경기를 마친후 우승교자를 목표로 진군하는 강팀선수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승전을 맞아 1회 대회(1975년도 개최) 우승팀인 서울체고 선수들이 다른 강팀과 격돌하여 치열한 접전을 이룬끝에 상대를 제치고 하나하나 금을 물고 나가더니 급기야는 전 체급중 여섯 체급을 휩쓸어 좀처럼 보기드문 현상으로 대회를 장악하였다.

여고부 경기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인천체고와 청산여상이 신경전과 각축전을 벌인 끝에 청산여상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 하였는데 참가 학교의 인원 부족으로 선수 34명 중 32명이



입상하여 94%의 입상율(?)을 보여 남고부 대회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그 원인은, 아마 주최측 홍보의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해 보며, 지면을 빌어, 여고 선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망한다.

전반적으로 큰문제 없이 대회를 모두 마쳤지만, 매번, 이 대회에서 빈번히 발생되었던, 부상자로 인해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는데, 주최측의 여전상 충분한 배려를 다할수 없었음에 부상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깊은 사의(謝意)를 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주 원인으로는 참가선수들의 기량차이가 특히 심하였던 점, 선수들이 지나친 승부욕으로 경기에 임하였던 점, 시기에 따른 기후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선수들은 다음사항을 염두해 두고 경기에 임한다면 부상발생이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된다.

1. 대회에 대비하여 경기기술향상에 부단히 노력.
2. 지나치게 승부를 의식한 무리한 경기를 삼가.
3. 상대기술에 의한 부상보다, 반칙에 의한 부상이 많았으므로, 실수든, 고의든, 반칙행위(주먹으로 얼굴공격, 무릎공격등)를 배제하여 경기규정을 철저히 이행.
4. 경기전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부상예방에 힘쓸것.

이상과 같이, 선수들은 부상예방에 각별히 힘쓰

고, 기타,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른다면,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 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협회 임원, 심판들의 노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교 태권도부 학생들로 구성된 진행부가 다소 경건



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적은 힘이지만 우리들이 태권도 발전에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짐해 본다.

대회 입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남 고 부 | 여 고 부 |
|------|-------|-------|
| 종합우승 | 서울체고  | 청산여상  |
| 2 위  | 동 성 고 | 인천체고  |
| 3 위  | 동대문상고 | 온광여고  |
| 감투상  | 남대전고  |       |
| 장려상  | 항도실고  |       |



### 학교별 출전 현황

#### 《남 고 부》

| 학 교 명     | 편              | 성    | 계  | 학 교 명     | 편                | 성    | 계  |
|-----------|----------------|------|----|-----------|------------------|------|----|
| 경 기 고     |                | 개인-1 | 1  | 항 도 실 고   | A-10, B-8, 개인-13 |      | 31 |
| 마 포 고     | A-7, 개인-4      |      | 11 | 동 대 문 상 고 | A-9, 개인-8        |      | 17 |
| 대 원 고     |                | 개인-2 | 2  | 풍 생 고     | A-9, B-8, 개인-5   |      | 22 |
| 대 구 공 고   |                | 개인-4 | 4  | 인 천 체 고   | A-9, B-6, 개인-1   |      | 16 |
| 배 영 고     |                | 개인-8 | 8  | 송 실 고     | A-9, B-6, 개인-7   |      | 22 |
| 신 태 인 중 고 |                | 개인-2 | 2  | 수 성 고     |                  | 개인-4 | 4  |
| 인 천 동 산 고 |                | 개인-4 | 4  | 화 곡 고     |                  | 개인-2 | 2  |
| 인 천 고     |                | 개인-1 | 1  | 군 산 중 양 고 |                  | 개인-5 | 5  |
| 협 성 상 고   |                | 개인-2 | 2  | 경 북 체 고   |                  | 개인-2 | 2  |
| 예 산 고     |                | 개인-5 | 5  | 서 울 체 고   | A-10, 개인-4       |      | 14 |
| 문 산 중 고   |                | 개인-3 | 3  | 대 성 고     |                  | 개인-2 | 2  |
| 한 성 고     | A-6, 개인-6      |      | 12 | 성 동 고     |                  | 개인-3 | 3  |
| 만 경 고     |                | 개인-6 | 6  | 충 암 고     |                  | 개인-2 | 2  |
| 서 온 고     |                | 개인-5 | 5  | 성 일 고     | A-6, 개인-2        |      | 8  |
| 남 대 전 고   | A-7, B-7, 개인-3 |      | 17 | 동 성 고     | A-10, B-7, 개인-8  |      | 25 |
| 청 주 기 공 고 |                | 개인-5 | 5  | 대 전 체 고   | A-6, 개인-4        |      | 10 |
| 신 흥 고     |                | 개인-1 | 1  | 성 동 상     | A-10, 개인-22      |      | 32 |
| 송 도 공 고   |                | 개인-5 | 5  | 계 립 고     |                  | 개인-1 | 1  |
| 인 천 광 성 고 |                | 개인-6 | 6  |           |                  |      |    |

#### 《여 고 부》

| 학 교 명   | 인         | 원    | 계  | 학 교 명   | 인    | 원 | 계 |
|---------|-----------|------|----|---------|------|---|---|
| 온 광 여 고 | A-6, 개인-1 |      | 7  | 계 원 예 고 | 개인-1 |   | 1 |
| 부 천 여 고 |           | 개인-1 | 1  | 고 양 여 상 | 개인-1 |   | 1 |
| 인 천 체 고 | A-7, 개인-2 |      | 9  | 영 북 여 고 | 개인-1 |   | 1 |
| 청 산 여 상 | A-8, B-6  |      | 14 |         |      |   |   |

남고부 입상자

| 체급    | 등위  | 성명  | 학교명       | 학년 |
|-------|-----|-----|-----------|----|
| 핀     | 1위  | 김지태 | 서울체육고A    | 3  |
|       | 2 " | 김기홍 | 풍생고등학교A   | 2  |
|       | 3 " | 한동수 | 함도실업고A    | 3  |
|       | 3 " | 최 천 | 동 성 고A    | 3  |
| 플라이급  | 1위  | 오영주 | 서울체육고A    | 2  |
|       | 2 " | 한명수 | 동대문상업고A   | 2  |
|       | 3 " | 오상훈 | 동 성 고B    |    |
|       | 3 " | 김준태 | 동 성 고A    | 3  |
| 밴터급   | 1위  | 인해진 | 서울체육고A    | 3  |
|       | 2 " | 이정일 | 동 성 고     | 3  |
|       | 3 " | 천인수 | 서울체육고     | 2  |
|       | 3 " | 육중석 | 남대전고A     | 3  |
| 페터급   | 1위  | 김성일 | 남대전고A     | 3  |
|       | 2 " | 박봉권 | 동 성 고A    | 1  |
|       | 3 " | 김재원 | 만 경 고     | 3  |
|       | 3 " | 박범수 | 수 성 고     | 3  |
| 라이트급  | 1위  | 김경환 | 서울체육고     | 1  |
|       | 2 " | 전대환 | 형 성 상 고   | 3  |
|       | 3 " | 김종훈 | 동대문상업고A   | 3  |
|       | 3 " | 박용용 | 남대전고A     | 3  |
| 웰터급   | 1위  | 신상돈 | 동대문상업고A   | 3  |
|       | 2 " | 박만성 | 동 성 고B    | 1  |
|       | 3 " | 오정수 | 풍 생 고B    | 2  |
|       | 3 " | 조철식 | 풍 생 고A    | 3  |
| L·미들급 | 1위  | 김주환 | 서울체육고A    | 3  |
|       | 2 " | 허 연 | 동 성 고A    | 3  |
|       | 3 " | 이화상 | 문 산 중 합 고 | 2  |
|       | 3 " | 김건옥 | 함도실업고A    | 3  |
| 미들급   | 1위  | 김시태 | 동 성 고A    | 3  |
|       | 2 " | 이주일 | 서울체육고A    | 2  |
|       | 3 " | 강수광 | 풍 생 고A    | 3  |
|       | 3 " | 김상필 | 함도실업고A    | 3  |
| L·헤비급 | 1위  | 윤일선 | 성동상업고A    | 3  |
|       | 2 " | 김태용 | 동 성 고A    | 2  |
|       | 3 " | 노 선 | 동대문상업고A   | 2  |
|       | 3 " | 이해운 | 인천체육고A    | 3  |
| 헤비급   | 1위  | 김재영 | 서울체육고A    | 3  |
|       | 2 " | 박경호 | 승 실 고A    | 3  |
|       | 3 " | 김광섭 | 동 성 고A    | 2  |
|       | 3 " | 원종철 | 풍 생 고A    | 2  |

여고부 입상자

| 체급   | 등위  | 성명  | 학교명       | 학년 |
|------|-----|-----|-----------|----|
| 핀    | 1위  | 도재선 | 청산여상A     | 3  |
|      | 2 " | 김미예 | 청산여상B     | 2  |
|      | 3 " | 김종숙 | 영 북 여 고   |    |
|      | 3 " | 조미숙 | 고 양 여 상   |    |
| 플라이급 | 1위  | 김정임 | 청산여상A     | 1  |
|      | 2 " | 김미애 | 인천체육고A    | 2  |
|      | 3 " | 이미선 | 부 천 여 고   |    |
|      | 3 " | 이미숙 | 청산여상B     | 1  |
| 밴터급  | 1위  | 유경희 | 청산여상A     | 1  |
|      | 2 " | 김선자 | 인천체육고A    | 3  |
|      | 3 " | 고 판 | 은 광 여 고   | 3  |
|      | 3 " | 이화숙 | 은 광 여 고   | 3  |
| 페터급  | 1위  | 오순덕 | 인천체육고A    | 2  |
|      | 2 " | 김명숙 | 은광여고A     | 3  |
|      | 3 " | 모미라 | 청 산 여 상   | 1  |
|      | 3 " | 정해경 | 인천체육고     | 2  |
| 라이드급 | 1위  | 김소영 | 청산여상A     | 2  |
|      | 2 " | 윤지영 | 인천체육고     | 2  |
|      | 3 " | 오현주 | "         | 1  |
|      | 3 " | 심미경 | 은 광 여 고   | 3  |
| 웰터급  | 1위  | 김지숙 | 청 산 여 상A  | 2  |
|      | 2 " | 김유숙 | " B       | 1  |
|      | 3 " | 조해경 | 인 천 체육고   | 2  |
|      | 3 " | 이미자 | 은 광 여 고   | 3  |
| 미들급  | 1위  | 김현정 | 인천체육고A    | 2  |
|      | 2 " | 정완숙 | 청 산 여 상B  | 1  |
|      | 3 " | 김현희 | 청 산 여 상   | 1  |
|      | 3 " | 박선옥 | 은 광 여 고   | 3  |
| 헤비급  | 1위  | 정영숙 | 청 산 여 상A  | 3  |
|      | 2 " | 손지희 | 인천체육고A    | 3  |
|      | 3 " | 송은주 | 계 원 예 술 원 | 3  |
|      | 3 " | 장영란 | 청 산 여 상   | 3  |

## 眞理의 샘

現代人의 세가지 精神의인 罪惡이 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알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할수 있으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 〈케리 女史〉 —

인도에서 교육자 회의가 열렸었다. 그때 인도의 교육자 케리女史가 한 말이다. 높은 차원의 생각이다. 현대의 청년 남녀들에게 이말을 깊이 음미하여 보라고 권한다.

모르면 마땅히 배워야 한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큰 죄악이다. 일생동안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공자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고 했다. 자기보다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이 하문(下問)이다.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자의 정신이 잘 나타난 말이다.

알면 남에게 가르쳐야 한다.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지식(知識)의 이기주의(利己主義)다. 앞선 자는 뒤진 자를 가르쳐야 한다. 먼저 안 자는 모르고 있는 자를 깨우치고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먼저 안 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이 부족하다. 성실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진보한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큰 죄악이다. 그는 행동(行動)에 있어서 무책임(無責任)한 자(者)요, 방관(傍觀)하는 자요, 성의(誠意)와 열정(熱情)이 없는 자다. 안하는 것은 태만이요, 책임의 포기다.

케리女史가 말한 범죄(犯罪)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가?

케리여사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곧 새 나라가 될 것이다.



# 서울 신석국민학교

지도사범 김 호 주

1964년 개교한 본교는 제7대 정한수(鄭漢秀) 교장선생님은 10여년간 지속해온 태권도부를 차기천(車基天)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권도부를 육성하고 있다.

2월 15일 본 기자가 학교에 들어선 시간 오후 4시 운동장에는 태권도 유니폼을 입은 국민학생들의 기합소리가 기자의 움추려든 어깨를 퍼게 해 준다.

태권도부를 담당한 김희성선생님은 태권도부 어린이는 학교생활이 성실하고 극기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서, 강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을 한다.

또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며, 안타까운 것은 학교실정이 여의치 못하여 적극지원을 하여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국민학교 교과서 단원에도 태권도가 나와서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데, 왜? 소년체전종목에 가입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또한 차기천 교감 선생님도 태권도부 어린이들

은 생활면에서 침착하고 또 성적들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멀리서 보니 태권도부 학생이 싸움을 달리는 것을 보았으며, 올해는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뒷받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84년에는 체육실을 만들어 태권도부는 물론 일선 교사들에게도 교과서에 나오는 태권도 기초는 지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태권도가 소년체전종목에 가입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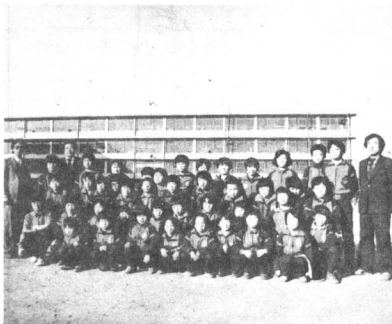
본교 태권도부는 등교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1시간, 하교후 4시~5시까지 태권도 수련을 한다.

태권도부원은 거의가 학습성적이 상위권이며, 태권도부 주장 이경도군은 본교 총학생회 회장이며 태권도도 열심히 하여 제3회 서울시 교육평가대회에서는 라이트급 우승을 하는등 태권어린이의 진가를 보여 주고 있다.

매년 신학기에 100명을 선발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 김호주 지도사범은 7년간 본교 태권도부를 지도하면서 개인성적은 우수, 준우승등 입상을 하였으나 단체 우승을 못 하였으며 84년에는 꼭 단체입상을 하겠다고 결의가 대단하다.

김사범은 학교부근에 43명의 태권도장부경영하며 학교에서 재질있는 우수선수를 발굴 도장에 서 열심히 수련하면 틀림없이 목적을 이루리라고 자신에 차 있다.

83년 제4회 문교부장관기타기 종합태권도대회에서 품세부분 금상3명, 은상2명, 동상4명으로 기본기가 우수하며, 겨루기 부문에 3명이 입상하는등 밝은 전망을 보이는 신선국민학교 태권도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500여명의 유단자 배출

전남 영광 종합고등학교

지도사범 최 경 양



교장 정회근



지도교사 최경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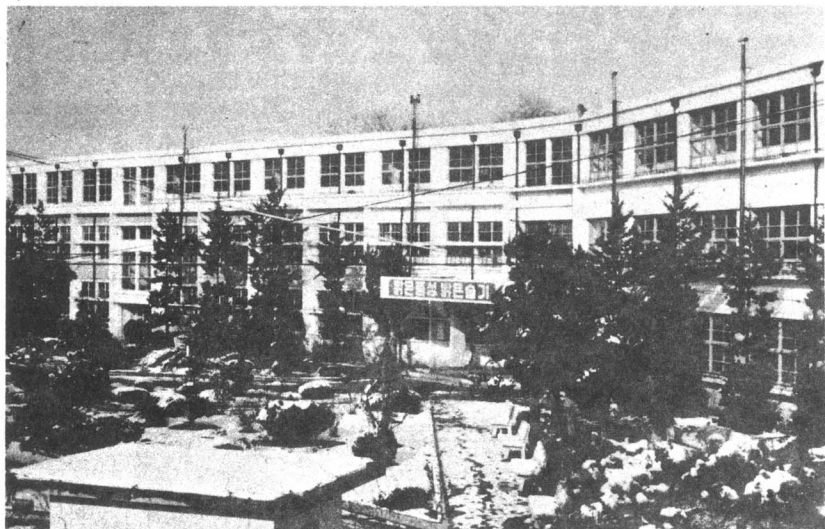
바른 마음, 튼튼한 몸, 알찬 실력을 교훈으로 총 21학급에 1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공립 종합고등학교다.

위치상으로는 2읍 10개면중 4개의 읍면이 바다와 접한 취약지구로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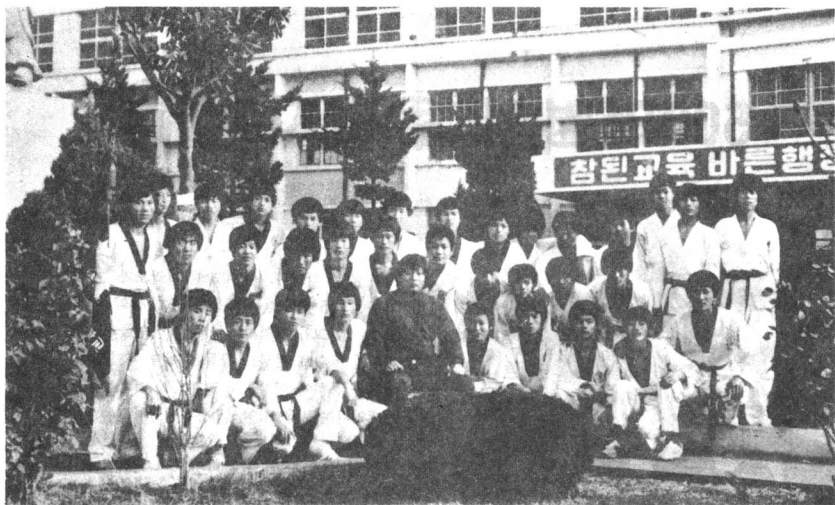
사가 깊은 학교다. 이 학교엔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는 1965년 5월, 그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학교와 지역사회 선배 체육인들의 도움과 유기적인 유대로 태권도 활동은 계속 되었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 정화는 물론 학생 개개인의 체력을 함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본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된지 18년동안 50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 하였으며 1978년 국가대표 선수(진중의: 유대조교)를 비롯하여 제 5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 54회 국제까지 30여명의 걸라남도 도대표 선수를 육성하였고 전남 도지사기 쟁탈대회에서 1.2.3회, 연 3회 우승을 하는 태권도의 명문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렇게 태권도의 명문교가 되면서 태권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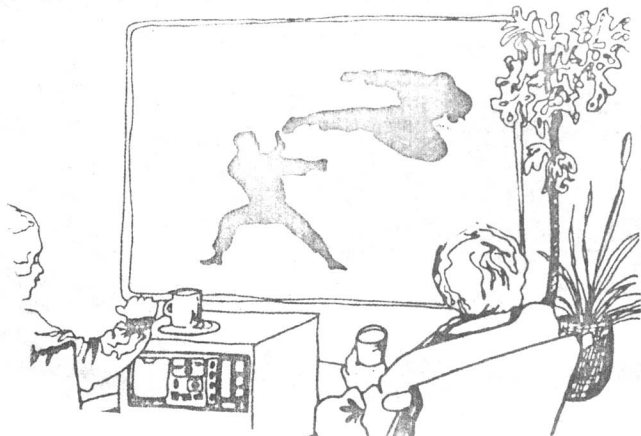






전교생에게 지도함으로써 바른마음, 튼튼한 몸을 가꿀수 있음은 본교 정희곤(鄭熙坤)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배려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교장은 본교 재학중인 50여명의 유단자를 1983년 3월 道指定 상비군팀으로 육성하고, 전교생에게 태권도를 수련케하여 전교생 유단자화의 목표를 세우고 본교 선배 체육인 김정주(전남협회장, 제6회 세계대회대표선수단 단장) 조영기(전남협회 부회장) 진중의(유대조교)씨를 비롯, 판내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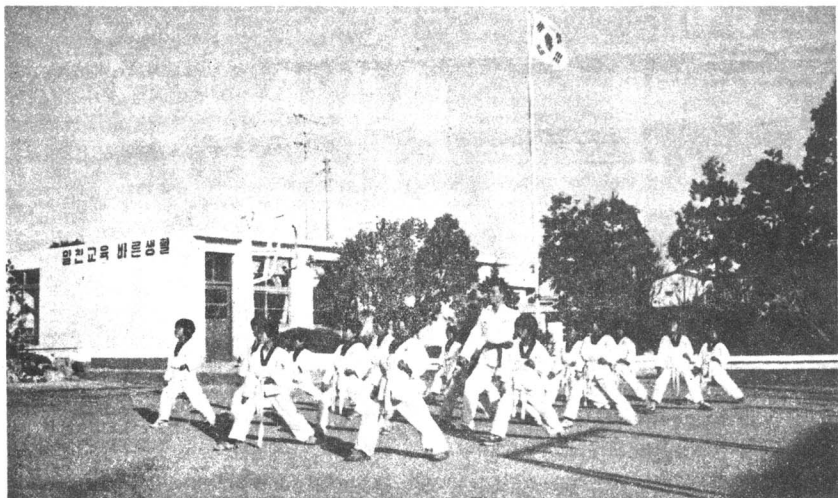
관장, 지역유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창단식을 갖고, 영광 태권도체육관(관장.조영기)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선천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서 계속되는 태권도의 수련은 국내의 태권도의 수련은 국내의 태권도의 기틀은 물론, 세계를 뻗어가는 국력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육당골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기합소리는 전남태권도 발전에 재촉을 가하리라 믿는다.



# 경남진해 명동국민학교 우도분교

경남진해시 웅천2동 우도

지도사범 이 성 수



우도 분교는 경남, 진해의 조그마한 섬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분교로 1학년, 2학년, 총학생수가 22 명이 수업을 하는 학교이다. 이 분교에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진해 경찰서 우도 출장소에 근무하게 된 전투경찰요원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케무 분교장의 적극적인 배려와 학부형들의 도움으로 매일 1시간씩, 태도 수련을 한다.

섬마을 어린이들은 말로만 듣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대단하여, 5 개월 간의 수련이지만 무척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길러진 감투정신에, 건

강함이 부모를 즐겁게 해 주며, 학교에서는 협동하고, 봉사하며, 교내 생활을 하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몇몇 어린이들도 적극적이고, 솔직한 어린이들로 바뀌어,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에서도 적극적이며, 지도하는 본인도 보람되기 그지 없다. 이성수 순경은 우도출장소에 근무가 끝날때까지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여 전원 유품자를 만들어 “우도” 하면, 태권도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해양경비를 마치고 태권도 어린이와 태권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땀 흘리는 이 순경에게 격려를 보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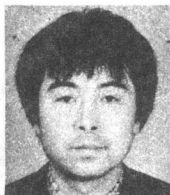
# 우리학교의 자랑“태권도”

대구 지산국민학교

지도사범 장 세 민



교장 박순묵



지도사범 장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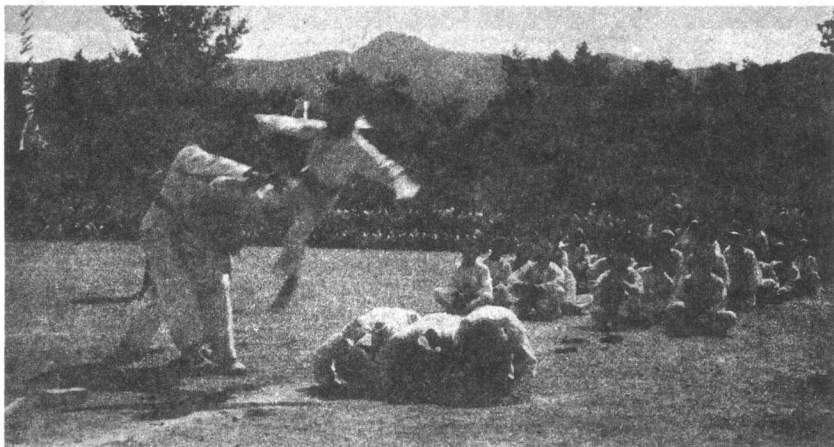
대구직할시 동남쪽의 변두리에 위치한 수성 못 뒤편 구석진 곳에 조그마한 학교가 있다. 말이 도시 학교이지, 실상은 어느 농촌 학교를 방불케 한다. 전교생이래야 교자 1,300여명 정도이니, 도시 학교로서는 그 규모가 몹시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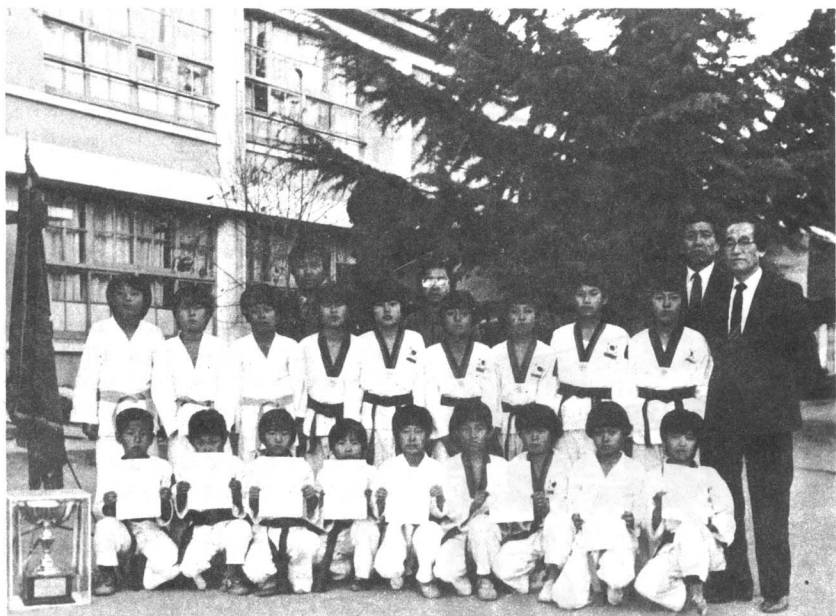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시설이 빈약한 나쁜 여건을 끈기와 인내로 딛고서서 오늘도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태권도 어린 꿈나무들이 강한 훈련을 쌓고 있다.

이 학교에 태권도가 창설된 것은 81년도 3월이었다.

당시 지도사범 장 세민씨(현재 태권도 협회 심판위원 및 심사위원)가 혼자 천막을 치고 불과 10여명의 희망 아동을 모아 지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보살피는 사람없는 혼자만의 외로운 희생이었으나 81년 그해 가을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 경기가 선보이게 되어 학교는 물론, 지역민으로부터 다소 관심을 모우게 되었다.

연이어, 그해(1981년) 대구 문화방송국 주최로 열린 대구시 국민학교부 태권도 대회에 첫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회당





과 관심을 갖고 당시 체육 지도교사 이 극식씨와 장 세민사범은 우수 아동을 발굴하여, 기대 속에 알찬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우수 아동이 모이자 장사범은 더욱 열성껏 지도를 하게 되어 다음 해 82년도 제2회 대구직할시 교육감기 타기 태권도 대회에서 두번째로 출전하여 당당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후, 계속적으로 교육감기 타기 태권도 대회에도 또 영광의 종합우승을 하였다. 이에 향토 메스컴에 소개되고 또 우수 아동들이 많이 발굴되어 지금은 50여명의 선수가 열심히 태권도의 제반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대구에서 가장 구석진 도시 속의 농촌 학교

이지만, 한 사람의 씨앗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이제 지산국민학교의 태권도는 명실공히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1983년 5월 제8회 MBC기 타기 대회에도 출전하여 준우승한 대구 지산국민학교의 태권도 부원들은 겨울방학이나 휴일에도 장세민사범의 노력으로 꾸준히 그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더우기 83년도 가을에 박 순목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자 태권도 육성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장세민 사범은 더욱 용기를 얻어 전국 제패의 꿈을 안고 오늘도 텐트 체육관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태권도와 우리아들

불광동 혁이엄마



내가 태권도를 처음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을 거슬러 올라간 어느 여름이었다.

그때 내겐 두살과 여덟살이나 터울이 지는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느닷없이 도복을 입고 나타나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그 도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바람에 부러워하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론, 동생들은 이해 못할 용어를 써가며, 나를 상대로 연습을 한답시고 못살게 굴던 생각이 난다.

지금 세상 같으면 아마 나도 태권도를 배웠을지도 모르겠다. 무엇이든 누구에게 지는 것이 싫었던 나였으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여자인 나로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다. 어느덧 나는 출가를 했고, 이제 막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녀석이 있다. 최근 유

아교육이 신장됨에 따라 엄마들의 교육열도 부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참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 역시 어느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아들을 더욱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 치마바람(?)의 대열에 한몫 끼었다.

피아노, 미술, 용변 등을 일찌기 다섯살때부터, 시키기 시작했다. 엄마의 의도대로 어린 아들은 착하게도 잘도 쫓아 다니며 잘 해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힘이 들었는지 잘 나가 놀려고 하지도 않고 그나마 편식을 하던 식사마저도 잘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 “혁”일 보면 난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고 곧 국민학교에 입학할 하게 될텐데 시키던 것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밥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녀석이 내게 닥아와서 손. 발을 번갈아 가며 차고,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무슨 흥내를 내는 것이었다. 아마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만화속의 주인공이 부러웠던 모양이었다.

순간 난 번쩍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옛날에 친정 아버님이 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시던 때에 하시던 말씀 「이 녀석들이 태권도를 하더니 밥도 잘먹고 키도 부쩍 컸어」 하시던 말씀이……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난 다음날로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부근에 있는 태권도 체육관을 찾았다. 때마침 체육관 안에는 아들 또래와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때 들려온 우렁찬 기합 소리에 “혁”인 어리둥절하며 위축된 표정이었다.

운동이 끝날때까지 우린 나란히 앉아 구경을

하였다는데 초겨울이라 그런지 실내는 조금 냉기가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맨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의 마음엔 애지중지하는 아이들이 추운데 맨발로.....하고 안스러워 보였으나 운동하는 어린이들의 이마엔 땀방울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머리위로 피어 오르는 것을 보았을때 나의 안스러워했던 노파심은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운동하는 것을 본 우리 “혁”이는 엿저녁에 흥내대던 기상은 어디로 가고 굳은 표정으로 내 등뒤로 숨어 들었다.

평소에 약간 내성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렇게 용기가 없을줄은 몰랐다. 이윽고 운동이 끝나, 난 사범님과 인사를 나누고 혁이를 체육관에 입관견차를 마치고 도장을 나섰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혁”인 체육관예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유인 즉, 그저 무섭다는 것이었다. 도장에서 엄격한 분위기에 위축 되었음은 물론 같은 또래의 절도있는 행동을 무섭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난 아들을 겁쟁이로 키웠구나 하고, 조금은 부끄러웠다. 하기가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매 한번 맞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하는 일도 없었던 아이였다. 이런것을 그저 착하다고 성품이 어질다고만 부축하여온 나의 잘못이 컸음을 실감하였다.

아무튼 이때부터 난 아들의 성격에 큰 관심을 쏟기 시작했으므로 태전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처음 한달간은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해 꽤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사범님의 자상하고도 끈질긴 배려 덕택으로 차차 흥미를 갖는듯 하더니, 술선해서 시간이 되면 도장으로 향했다. 행동이 절도가 있고 절음절이부터 씩씩하게 보였다. 처음의 원피가 노랑피로 노랑피가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태도도 태도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쁜것은 “혁”이의 성격에 차차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혁”인 도장엘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나는 다른것(피아노, 웅변, 미술)을 다 중지하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시켰고 나로서는 여간 큰 실망이 아니었다. 이리 저리 달래보았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렵게 하는 말이 사범님이 바뀌어서 자기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나,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가르쳐 준 사범님과 의정이 든 이유도 있겠지만, 일

시적인 변화에 대한 익숙지 못함이 성격적으로 까다로움을 지니고 있는 “혁”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것 같았다.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체육관을 찾았다. 욕심같아선 관장님께 간청이라도 해서 먼저 사범님을 모셔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주제 넘는, 일갈고 해서

새로 오신 사범님께 “혁”이의 성격적인 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돌아섰다. 그후 얼마간은 “혁”인 도장에 가는 것을 시들해 하는 것 같아 그만 보낼까도 생각해 봤으나, 나는 그러한 변화의 부딪침이 앞으로 크면서 겪어 나갈 인생의 역경에 있어서 연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계속 밀고 나갔다. 그러지 얼마가 지났을까..... “혁”인 내 마음을 알아라도 주는듯 그 녀석은 먼저대로 돌아와 주었다. 역시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품심사날 이었다. 일이 있어 조금 늦게 도착하였더니 아이들은 정열을 한채로 체육관 후미에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벌써 심사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맨 앞줄에 정좌를 하고 앉아있는 “혁”이가 보였다. “혁”이는 나를 보자 쌍팔 웃더니만 이내 앞쪽을 직시한다.

장난을 쳤던지 두명이 줄에서 비껴나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혀” 기압을 받고 있고, 그런가 하면 답답을 하는 꼬마들을 조용히 타이르는 검은 띠의 모습도 보인다. 또 하나의 적은 사회의 위계질서 이리라

꽤 오래토록 꼼짝않고 앉아있는 “혁”이가 의젓해 보이고 대견스러웠다. 잠시후에 제 이름이 불리우자, 콘소리로(그렇게 큰 대답은 처음 들었음) 대답을 하고 중앙으로 나갔고, 심사위원들께서 시키는대로 도박, 도박, 잘 해냈다.

교육의 힘이란 실로 놀라웠다. 작은 손과 발을 명확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머릿속에선 순간 순간 그 많은 순서를 재빨리 기억해 내는 것이었다. 곡예를 하듯, 하는 형들 만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는 난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구두시험에서도 뒤에 앉아있는 나를 힐끗 돌아보긴 했지만, 또렷하게 잘 대답해 심사위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더러 상도 뒀으므로 “혁”이는 더욱 의기가 양양 해졌다.

다시 활기를 찾은 “혁”이는 생전 처음 친구들 집에 데려 오기도 하였고 또 놀러 가기도 하였다. 무준히 도장에 나간 보람으로 빨간띠를 받



은 “혁”이는 이 빨간띠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다.

친구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제 나름대로 설명을 곁들여 가며 자랑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배운 것을 암중맏고도 야무진 모습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사범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 내기도 하는 “혁”이를 볼때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무엇을 익히고 표현하는 모습, 그것이 기술적인 암기와는 달리, 동적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대로 눈 앞에 나타남으로 더욱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으로 가슴에 와 닿는가 보다.

우리 “혁”인 태권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내 생각으로만 한화속이나, T. V 에의 주인공으로 둔갑하여 정의를 위해 나쁜 편을 쳐부수고 평화를 위해 끝없이 투쟁하는 멋진 기사를 상상하며 꿈의 나라를 펴고 있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판훈」이다.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라 해서,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있는 말을 줄줄 외우는 소원 들을때면 대견스러운 반면 아이들이 알기쉽게 우리글로만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예의, 염치, 극기, 협동, 신의등 참 좋은 말씀들이다. 이제 나는 태권도가 체력을 단련하는 체력증진 그 자체에 만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키워 나가고 아울러 그 과정 속에서 용감하고 정의의로움을 스스로 갖추며, 그리고 대인파

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성격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혁”이를 통하여 터득할 수 있었다.

태권도에 입문한지 벌써 1 년이 다 되었다. 요즈막엔 그 교사리 같은 손으로 장난스럽게 내대는 주먹이 꽤 매섭다. 조금씩 남성적으로 변모해 가는 “혁”이를 보며 내심 흡족해 하며 우리 “혁”이 또래의 아이들 엄마를 만나면 서슴치 않고 태권도를 가르치라고 권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태권도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공부에 큰 지장이 없는한 계속 시킬 생각이다. 간혹 저녁 T. V 어린이 프로와 운동시간이 중복되어 늦장을 부리다가도 아쉬운듯 도복을 들고 도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 더욱 대견스럽다. 그리고 어른에겐 별 문제인 것 같지 않으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크게 확대되어 발생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어떤 체육관의 학부모에게 들은 얘기인데, 새로운 사범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잘 몰라서 아이들 이름을 알려고 특성을 꼬집어 코믹하게 별명을 붙여 불렀는데, 그것이 그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사범님은 계속 별명을 불렀고- 참고 참던 몇명의 아이들은 태권도장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범님의 적은 실수라면 실수인데- 이런 경우, 체육관은 그만 두도록 내버려둔 부모도, 사범님도 옳은 일일까? 나도 역시 아이를 가진 엄

마로서 그별경우 사범님과 의논해서 아이가 수궁이 가도록 애기를 해서 작은 상처를 없애주고 다시 꾸준하고 활기있게 생활 해 나가도록 노력함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해서 이해심과 인내력, 나아가서는 남자다운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시쳇말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꼬마들을 가르치시는 태권도 사범님들의 노고에 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리고 “혁”이 덕분에 새삼 운동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다. 흔히 생활에 변화가 없거나 어떠한 환경이 닥쳤을 때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생각 보다는 체념 하거나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요즘 아이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을 가리켜 「심리적 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퇴행심리를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여야겠다. 기하급수적으로 변모하는 현실, 복잡 미묘해지는 대인관계,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동, 헤아릴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도피의식을 건전한 스포츠로 합리화 시켜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운동을 통하여 난제를 극복시키며, 신체적으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역군을 키우는 바탕을 스포츠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몸을 맞아 국민학교에 입학할 “혁”이를 바라보며 “혁”이가 앞으로도 태권도와 함께 굳건하게 잘 자라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태권도가 스포츠만으로서의 발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격 형성을 위한 좋은 운동으로 사회 속에서 계속 발전 되기를 기원한다.

## 태권도의 근본정신은 인간끼리의 폭력을 없애는데의 수련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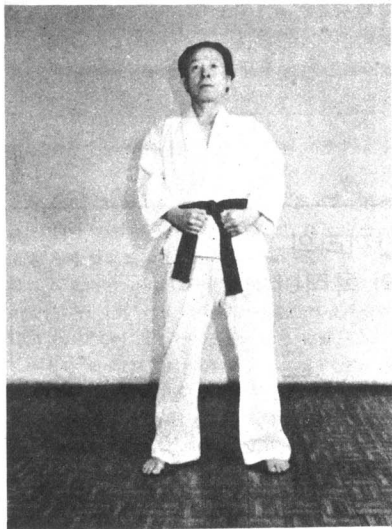


# 한마리 창로(蒼鷺)의 의기(意氣)

(나의 태권도 수련기)

金九峰 선생

(전남광주 서광 여중 교사)



그러니까, 벌써 십육년 전의 일이다. 그때 내 나이가 삼십대 초반기였으니까, 여느사람 같으면 아직도 열혈 청년의 개망이가 있을 법한 연륜 이었는데도 나는 애당초 그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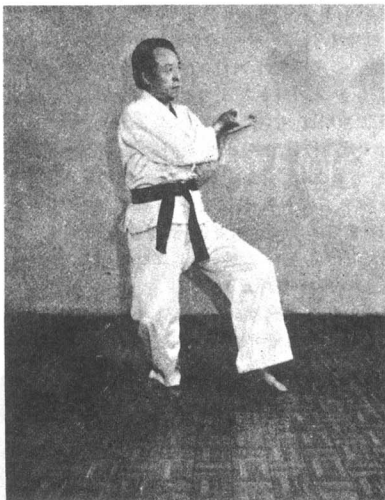
삼십대의 건강은 맥박이 70 이고 호흡이 19라야 한다는데, 나는 그보다 맥박도 빨랐고 호흡도 잣았다. 혈압은 120을 웃돌았고, 혈액 내의 단백질이 4.5g%라야 정상이라는데, 그것마저 비정상이었다. 땀은, 허리통의 돌레가 가슴돌레보다 십센티나 컸으니까, 벌써 신체적 균형을 잃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바람에 신발 끈을 맬 때면, 비대 일로를 치닫고 있는 뱃구레 때

문에 솟제 실랑이를 겪어야 했다. 이려고 보니 천수를 사심도 누리지 못하고 덜컥덜컥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은연중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같다' 느니, 한갓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속절없이 사라져 버리는 존재라는 등, 인생의 덧없음을 마냥 뇌까리곤 하지마는 우리가 못 생명중에서도 초목 축생이. 아닌 오직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을때, 나는 위불위없이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무르익을 즈음, 벌바람이 술술 흐르는 자운영 꽃밭에 벌벌 누어,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노라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어찌면 기적 같고 어찌면 미증유의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바닷가에 나가 바다의 우젓음을 듣고 있노라면, 그것이 오로지 생위 참미 마냥 느껴질 때도 있었다.

「시냇가에는 불과 하루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가 살고 있다. 아침 일곱시에 죽으면 요절이며, 저녁 다섯시에 죽으면 장수를 누리는 셈이다. 이처럼 근소한 시간의 장단을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웃을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수명도 해와 별에 비하면 하루살이의 일생만큼 덧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명을 한갓 하루살이의 수명에다 비길 수는 없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물을 보다가 바다를 보는 것만큼 대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 일곱시에 죽는 하루살이는 불행하고, 저녁 다섯시에 죽는 하루살이는 행복하듯, 우리도



천수를 오래 누리는 것이 비명에 죽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다달이 붙어나는 체중과 뱃지레를 우선 견제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지름길이다 싶어, 누구의 소개도 없이 H 체육관에 자진 입관하여 태권도를 익히기 시작했다. 한달 동안은 손발운동과 기본 자세를 익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수은을 손가락으로 집어내는 것만큼 어려웠다. 하초(下焦)에 힘을 주고 '주춤 서서 몸통 지르기'를 하는데, 도통 숨이 차서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가슴은 새 가슴 뒹듯 가졌고, 손끝은 아리고 어깨는 무너지는 것 같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마다 살금살금 대오를 끝장 빠져나오곤 했다. 「앞발 올리기」를 하는데 역시가 판이었다. 기를 쓰고 앞발을 올리는데, 기껏 지렛대로 둔덕을 치는 격이 되었으니, 솟제 옷뭉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의 치회(稚穉)? 에 견디다 못한 유단자들은 저회거리 서로 맞 바라 보며 킬킬 거리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면피(面皮) 좁은 오히려 약파라고 생각했다. 솟제 녀살을 부릴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와 몸을 씻고 자리에 눕고 보면, 피로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대 육신의 육천 마디가 빠그라지듯 쉬시고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하초에 힘

을 모으면 온신이 주릿대를 안은 듯했고 에멜지로 하박(下膊)을 폈다 오무렸다 해보면, 전박(前膊)까지 근육통이 파급 피는등, 실로 난감했다. 어쩌다가 목줄띠에 힘을 주면 목정강이는 물론 "아킬레스"근마저 끊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엄습해 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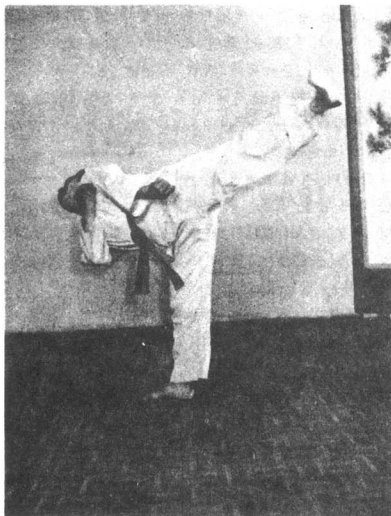
한달이 지나고, 두달, 석달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기본형을 비롯, 각급 형(型)을 익히는데, 점입 가경(漸入佳境)이라면 지나친 억지 말고, 거익 심조(去益深造)를 얻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겨루기'(대련)를 하는데, 어쩌다가 기골이 황소 같은 이십대의 장한(狀漢)과 맞부딪혔을 때는 정말 아안이 병병했다. 그것은 늙은 수탉이 송골매와 겨루는 격이었다. 한번은 장한의 '열 차기'에 열구리를 얻어 맞고 땃바람에 꼬꾸라졌는데, 열구리의 통증은 달포가 넘어도 쉬가 시질 않았다. 늑막염이 아닌가 싶어 무척 걱정했으나 요행히 별일은 없었다. 전신 만신에 '물파스' 냄새를 풍기며, 절름 절름 다리를 걸며 체육관에 나타난 나더러 '표창감'이라며 실실 웃곤 하던 K판장의 일그러진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좌우지간, 나는 입관한 지 1년여 만에, 드디어 초단을 뒀다. 어두운 쾌감이 비로소 미소처럼 흘렀다. 나는 K판장의 말따따 삼백에 순날을 천둥 벌거숭이가 되어 억수처럼 쏟아지는 곤비(困憊)를 무릎쓰고 꼭두새벽부터 뛰고 뛰었다. 직장에 나가라, 갈도 쓰라, 가장 노릇도 하라, 정말 힘겹고 언더러 나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역시 어두운 쾌감은 미소처럼 마냥 흔었다.

짧은 여름밤은 도거리처럼 새벽을 몰아치는데, 새벽잠을 덧들여 가며, 체육관에 나가는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준비운동'을 하기가 무섭게, 전신 만신이 순식간에 땀으로 벽을 감기 마련이었고, 주먹손으로 「땀」을 몇번 치기만 하면 숨이 확확 막히고 주먹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길의 언더러는 패도(霸道) 일변도가 아니고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똥빠가 빠개지는 듯한 고통은 「늙은 벼랑에 가보지 않고는 굴러 떨어지는 환난을 도통 모르고, 깊은 연못에 임하지 않으면 빠져 죽는 환난을 알지 못하



듯」(공자) 실제로 태권도의 수련에 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정수를 숫세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열여섯 해를 로마 사람들이 “야누스”신에게 기도하듯 오로지 기도하는 자세로 한결같이 입해 왔다. 생각하면, 그동안의 일들이 기적 같고, 어쩌면 회화(戲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체중이 10 kg 이상이나 줄었고, 뱃구레도 정상을 되찾았으므로, 어찌의 넓이를 증가하지 못했을 뿐더러, 호흡이나 혈압도 정상이며, 혈액내의 단백질도 4.5 g%를 유지하게 되었다.

나는 요즘에도 체육관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여항(閭巷)에서 흘러 나오는 찌게 냄새에 군침을 삼키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두운

패갑에 회심의 미소를 짓곤 한다.

미국에서는, 여자의 주름살을 펴주는 “자이덤”이라는 새 주사약이 개발 되어 0.5 미리 그램에 침습 불을 호가하는데도, 이것을 찾는 사람이 쇠도 하고 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스위스의 의사 「폴 니 양」은 회춘 방법으로, 뱃속에 들어 있는 새끼양의 기관을 세포로 분리해서, 그것을 인체에 넣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런 수술 방법은 한번에 삼백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석달전에 예약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우리의 건강은, 결코, 분에 넘치는 약물이나 비과학적인 의료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누는 몸을 씻어주고, 눈물 온 마음을 씻어 준다. <유태인 격언>는 말마따나 우리의 건강도 결국하고, 튼실한 몸에 눈물 같은 마음이 겸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체구가 실하여 주먹 힘만 셀뿐, 그 사람됨이 균형 감각이 없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라면 어찌, 이를 올바른 태권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도 차가운 새벽 바람을 헤집고 우리 J 체육관의 문을 두드리기는 것은 결코 체력 단련만이 아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우(知遇) 같은 것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설사, 그런 생각이 솟구칠 때는, 나는 그것을 누르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그것은 ‘근본이 바로 신 다음이라야 비로소 도(道)가 자란다. <本立而道生>는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태권도인, 별바람이 술술 부는 어느 화창한날 공해 없는 전원을 훨훨 날아다니는 한 마리 창로(蒼鷺)의 의기(意氣)를, 우정 담고 싶은 것은, 결코 알팍한 낭만만은 아닐 것이다. 낭만도 좋지만은 그 낭만 때문에 의기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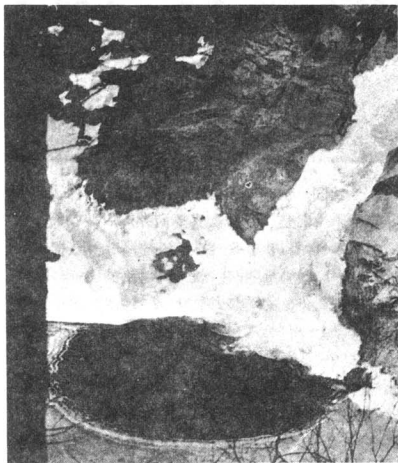
### \* 정정합니다 \*

태권도지 제47호 86페이지에 수록된 성동구 태권도연합회 체육대회 제목의 연합회를 체육관친목회로 정정합니다. 요지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모임을 공식 인준하지 않았으므로, 대한태권도협회 공식기관지에 연합회의 명칭 사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립니다.

# 겨울 에세이

한 연 수



연필로 그린 덧상처럼, 그것의 골격 만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계절, 말만 들어도 이가 시리고 천지가 얼어붙어 버릴 것만 같은 말-. 이것이 바로 겨울일까? 이러한 문턱을 넘어 서면서 문득 낡은 땅의 이방인인듯, 형언하기 어려운 고적감과 함께 고도에 버려진 교아처럼 외로워지는 마음, 생각해 보면, 황금빛으로 떠오르는 가을의 우수가 있었다는 것이, 마치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狂飈하듯 뜨거운 태양을 대지 위에 퍼붓던 그 여름날도 거짓말 같습니다. 감촉이 좋은 바람을 따라 거닐던 봄날의 분홍빛 추억 또한 꿈결인듯 아련 합니다.

지금은 겨울, 매서운 찬 기운이 온몸을 에워싸

하늘과 땅 사이엔 冷氣만이 감돌고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마음마저 가난해져 허무의 바람을 맞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富貴를 누리고자 狂奔하듯 서로 밀치고 밀리며,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입니다.

富가 곧 人格의 尺度를 가능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쟁에서 물러서면 소외된 사람 淘汰된 사람으로 몰아 치지요, 우리는 이러한 思考를 改善 하여야만 한다는 反省의 소리도 드높습니 다만, 이런 것을 깨닫고 覺省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 자신도 어느 결엔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가는 물결의 過中에 휩쓸려 있는 평면이 아니겠음니까?

“가난은 罪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사는 것은 편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으며 행복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소리를 치는 최강국이란, 결국 잘사는 나라들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달되고 장사 수완이 좋은, 그런 나라 사람들은 우린 잘 산다고들 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크레믈린 窩” 못지않게 근엄하고, 참으로 큰사한 집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우린 富者라고 하고 늘, 부러워 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런 부자의 삶이 사실에 있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사람 인고로,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읍니다. 예컨대, 짐승같은 부자여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돼지는 구정물



만 많아도 부자일 수 있고, 송아지는 여물만 많이 쌓여 있으면, 말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사람이 구절몰이나, 여물같은 부를 쌓아 놓고 自足한다면, 이야말로 슬프고,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이 없어도 못 살지만, 빵 만으로도 못 산다는 것을…… 세상은 작게는 국내에서 부터 크게는 세계적으로 잇따른 테러와 무서운 범죄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背反과 權模術數, 重傷模略과 같은 똑똑한 어리석음에 마음 어느 구석엔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이 겨울은 어쩔지 더욱 춥고 쓸쓸해 집니다.

애초부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꾸며주는 모든 治統들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듯, 처럼 알았던 迷妄에서 깨어나는 이 계절, 그것은 한없는 슬픔, 그러면서도 한없이 황홀한 깨달음이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날 무료한 시간을 달래며 읽던 책중에 나의 감각의 문을 활짝열며 다가왔던 글귀가 있습니다.

人生世間一大夢 夢裏胡爲苦認真

夢短夢長俱是 忽然一覺夢何存

「사람의 한 평생은 하나의 커다란 꿈, 꿈속에서 어찌자고 애써 따지려는가? 꿈이 짧거나 길거나 모두 꿈인 것을 - 후닥 깨어나면 꿈이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이 세 상일은 아득하고, 光陰은 한정이 있거늘, 헤아려 보면, 왜 부산하고, 바빠야 하는 것인지

인생은 시들한데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는 것은 서로 다투면서도 榮枯盛衰는 정해진 운수가 있는 것이며, 利害得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만은, 오히려 모르는 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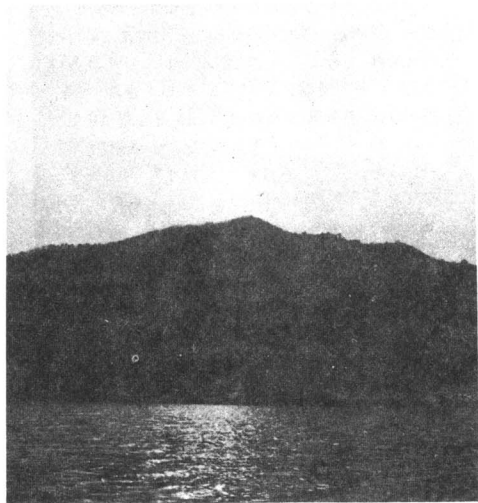
권세가 있으면 아침 하다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 인심은 그냥 던져 놓고서, 유유하게 세월을 보내고, 소탈하게 시간을 전내는 도다. 이것은 누가 지은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글을 읽고 마치 커다란꿈에서 깨어난것 같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에 붙어온 한가닥 시원한 바람에게 비할까요?

백거이(白居易)의 詩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蝸牛角丙爭何事 石火光中寄比身

隨富隨貧且歡喜 不開口笑是癡人

「달팽이 쾄 속에서 무슨일을 다투는 도다. 돌이 부딪혀 생긴 불꽃에 이 몸을 붙였거늘, 녀석



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대로 즐겁나니, 입을 열어 웃지 않는 이것이 바보로다。」

옛 사람의 말에 「위로 건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건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찾는 가장 묘한 방법입니다. 배고파 우는 사람에게 건주면, 배부른 것만으로도 참로 즐겁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건주면, 따뜻한 것만으로도 참로 즐겁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건주면, 한가한 것만으로도 참로 즐겁고, 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주면, 튼튼한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건주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로 즐거울 것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예전 이렇게 활달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다소나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윤택유가 될 것입니다.

햇볕이 작살처럼 내려 쬔히는 눈부신 아침, 테라스에서, 비록, 한잔의 술은 아닐지라도 너그러운 유백색 찻잔에 녹차라도 마시며, 이 외로워지는 기나긴 겨울에 우린 한번쯤 人生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찬 바람이 불니다. 인 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추운 존재하며, 동시에 겨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랑거리는 6월의 바람을 즐겼었고, 여름의 광채속에 숨겨진 소나비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순환되는 계절속에 厚朴나무가 떨어지는 낙엽을 타고, 겨울이라는 깊은 웅덩이 속으로 미끌어 지고 나면, 우린 또다시 혼자라는 고독속에 갇히게 되지요. 그별수록 반사적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삶에 대한 시장끼를 메우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는게 우리네 소인배들의 속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마를 마주하고 의논할 사람이 있고, 하소연이라도 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이 겨울이 다 가기전에, 우리는 사랑이란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값진 일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듣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느낍니다. 고독한 영웅(?)들인 우리 현대인들이 고독의 원인을 깊이 認知 한다면, 실로 우리들의 싸늘한 가슴을 덮기 위하여 뜨겁게 불을 지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 고독의 원인이 인간 본연의 것이든, 인간 사회의 구조적 사물이든, 혹은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사랑의 정신 때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린 서로가 좀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것을 참으며, 모든것을 믿으며, 모든것을 바라며, 모든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귀한 사랑으로 이 겨울에 몸을 구가하며 우리들의 차게 식은 손을 마주 잡으십시오. 마주잡는 영혼에서 눈서리를 헤치고 피어나 겨울 꽃을 사시사철 필수 있는不老花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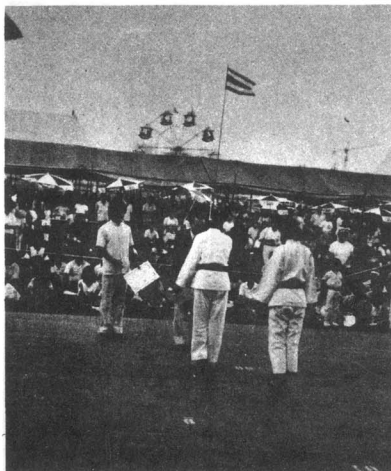


# 꼬마 태권도 외교사절단



김 용 휘  
(대한태권도 협회 사무국장)

태국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한국대표 어린이 시  
법단 26명은 Kick Boxing의 나라로 알려진  
태국땅에 한국고유의 태권도를 정착 시켜 보겠다  
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태권도제 인사들과 가족,  
친지들의 열렬한 성원속에 1984년 1월 19일  
(10:30시) KE 635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미  
국, 일본, 홍콩, 멕시코등 몇차례의 해외여행을  
경험한바 있는 꼬마사절들은 마치 노련한 국제  
신사들처럼 질서정연하게 탑승하고는 자기좌석  
을 찾아 앉더니 안전벨트를 착용 하는 것이다. 잠  
시후 승무원들이 나누어주는 기내 식사를 받아들고  
필요한 음료수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의젓해 보였다. 37,000 Feet의 고도와 700 ~  
800 km의 고속으로 달리는 기내에서 조금도 등  
요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stewardess 한사  
람은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태권도를 한다  
는 꼬마들의 정중한 예의와 의젓한 행동은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2:00시  
(한국시간 13:00시) 대만, 중정공항에 도착하  
여 1시간동안 보세구역내에서 쉬었다가 13:00  
시(한국시간 14:00시)에 다시 중정공항을 떠  
나 태국 방콕 공항으로 향했다. 기내에서 태국  
입국용지를 받아 이규형 사범과 함께 시법단 23  
명의 용지를 기록 하다 보니 어느덧 15:45시  
(한국시간 17:45시) 방콕공항에 도착한다. 기  
내 방송에서는 방콕의 현재 기온이 섭씨 32°라  
고 알려준다. 한국의 삼복더위와 맞먹는 무더운  
더위임을 알 수가 있었다. Kuson 태국협회장  
의 청사내 영접을 받으며 간단한 입국수속을 마  
치고 청사 밖으로 나가자 밖에서는 Mulliga 부  
회장과 송기영 사범등 태국 태권도협회 임원들  
이 열렬한 환영으로 반겨주는 것이다. 환영식을  
하고 두대의 소형버스와 네대의 승용차에 분승하  
고 곧장 숙소인 Mulliga 부회장의 자택으로 향했  
다. 우리의 숙소인 부회장 Mulliga 여사의 자택  
은 방콕 시내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 "프런  
치"라는 곳으로, 이국한 분위기와 태권도 학교  
도 함께 조화를 이룬 훌륭한 저택으로 우리들이  
생활하기엔 매우 편리한 곳이었다. 여장을 풀뒤  
부회장 Mulliga 여사가 손수 마련한 음식으로 태  
국에서의 첫 식사를 대하게 되었는데 음식을 보  
는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을 몇차례  
방문한바 있는 부회장 Mulliga 여사는 김치와 각  
두기등 완벽한 한국식 음식으로 준비해 놓은 것



로얄스포츠 클럽에서 시범에 앞서 미국인 여성 유단자에게 단증을 수여하는 권 경옥 기술심의회 부의장

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후 체류기간의 Program에 관한 태국측 임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금번 태국여행에 있어서 깊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동안 송기영 사범의 태국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직감할 수 있었다.

## 84년 1월20일

태국에서 첫날밤을 쉬고난 우리 시범단은 계획에 따라 관광을 나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경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 가야만 겨우 한 두마리 구경할 수 있는 악어를 10만마리나 양식한다는 악어농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0만마리 이상의 악어가 있는가 하면, 코끼리와 각종 새종류등 그 규모가 대단하여 늪의 나라 태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후엔 태국 태권도학교 학생들과 함께 합동수련을 갖게 되었는데 숲 비운동에서부터 유연성과 순발력이 뛰어난 시범단의 동작과 기술에 놀란 태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운동시간임을 잊어버린채 열심히 구경하더니 야심있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자신들도 앞으로 열심히 수련해서 꼬마사절들처럼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지와 각오에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월21일

오전에는 옛날 태국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 왔다는 Gren Peres 등 고궁을 관광하게 되었는데 이곳을 관광 하면서 태국문화와 전형적인 건축공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오후에는 Kick Boxing 경기를 판전하게 되었는데 Kick Boxing 의 모든 동작들은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다만 경기운영 및 규정이 다를 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태권도가 일격을 요하는 일격필살의 경기내용이라 한다면, Kick Boxing 은 계속적인 전진공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침몰시키는 즉장기전을 펼치는 경기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Kick Boxing 을 국기로 삼고 있는 태국, 방콕 시민들의 경기를 판전하는 태도는 매우 열광적이며 진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밤은 태국 태권도학교 주최로 우리 시범단에 대한 환영식이 개최 되었는데 이자리에서는 우리 시범단의 간단한 연무시, 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 시범을 지켜보던 태국주재 권병헌공사님을 비롯한 한국교민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 한채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 1월22일

우리 나라의 보배라고 자부할 수 있는 꼬마 사절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가열 되어가고 있었다. 이날은 태국에서도 가문과 재력등 직위가 높다고 하는 비교적 고관, 또는 상류층 사회인이나 가입할 수가 있다는 Royal Sports Group 에서 시범을 가지게 되었다. 이 Group 의 창립기념일인 오늘은 전회원들의 가족이 동원되는 날로 입장인원은 어림 잡아도 4~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꼬마사절들은 이같은 많은 인파 속에서 더욱 대담하고 자신에 넘치는 동작으로 태권도 시범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관람자들의 열광하는 환호와 박수소리 때문에 장내 아나운서의 마이크 소리마저 잘 들리지지 않을 만큼 매우 극성스러운 반응 이었다. 모든 시범이 다 끝이난 후에도 자리를 뜰줄 모르고 꼬마 사절들을 향해 환호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하기만 했다.

## 1월23일

그동안 계속되는 시범으로 지친듯한 꼬마사절





내소날 스타디움에서 시범을 마친 후 태국 주재 권 병현 공사가 시범단을 격려하고 있다.

들은 다소나마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즉 시범이 없는날이다. 그동안의 시범을 고맙게 여긴 Mulliga 부회장은 시범단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 태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수상마젤을 관광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은 Chaopya river로 향했다. 배를 한대 빌려 타고 약 5시간에 걸쳐 금번 태국 방문중 가장 인상적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태국의 문화 문명과 교통 및 산업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으며 가장 태국을 잘 상징해 주는 아름다운 Chaopya River를 관광하는 즐거운 한때였다. 오후에도 태국 민속촌을 관광하면서 태국민속춤, Kick Boxing, 코끼리의 묘기 등으로 이어지는 쇼를 관람하면서 문화생활의 발전사를 또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 1월24일

어제는 태국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태국을 즐길 수 있는날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수욕을 한다는 것이다. 시범단 일행은 송기영 사범과 Mulliga부회장을 따라 파타야( Pataya )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약 3 시간동안 고속도로를 달려 바닷가에

도착하여 다시금 배 한척을 빌려 타고 약 2시간 동안 목적지 파타야로 달리는 것이다. 도중에 즐기던 바다낚시는 모두가 신기해 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인상적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물든 내 생전에 1회의 해수욕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할 수 있겠다.

#### 1월25일

이틀간을 쉰 덕분에 다소 피로가 풀린 교마사절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방콕 부족들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Christian College에서 연무시범을 갖게 되었다. 이학교에서는 8,0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 전원이 수업을 중단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시범을 보는 8,000여명의 학생들은 환성을 지르며 열광하기에 이른다. 시범을 마친후 물려든 학생들의 Sign 요구에 휩싸인 교마사절들은 오랜동안 시범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땀을 빼기도 했다. 시범을 지켜본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축사에서 태국 태권도협회측과 회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학교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체육관을 신축 하겠으며 체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한국인 송기영 사범이 경영하는 태권도학교에서 본교생들에게 태권도를 지

도하고 싶다는 교장선생님의 요구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금번 태권시범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과로 사기가 증진한 교마사절들은 오후에 계속되는 국립경기장( National Stadion )의 연무시범에서도 유감없는 묘기를 발휘하여 태권도의 진가를 보여 줌에 따라 방목시민들로 메워진 체육관은 떠나 갈듯한 환호와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연속되었다. 시범을 마친 교마사절들은 극성스러운 시민들의 접근 때문에 땀에 젖은 도복도 갈아입지 못한채 차에 오를수 밖에 없었다. 차창밖에선 교마사절들의 손목이라도 잡아보려고 밀고 당기며 혼잡을 이루는 시민들을 뒤로한채 속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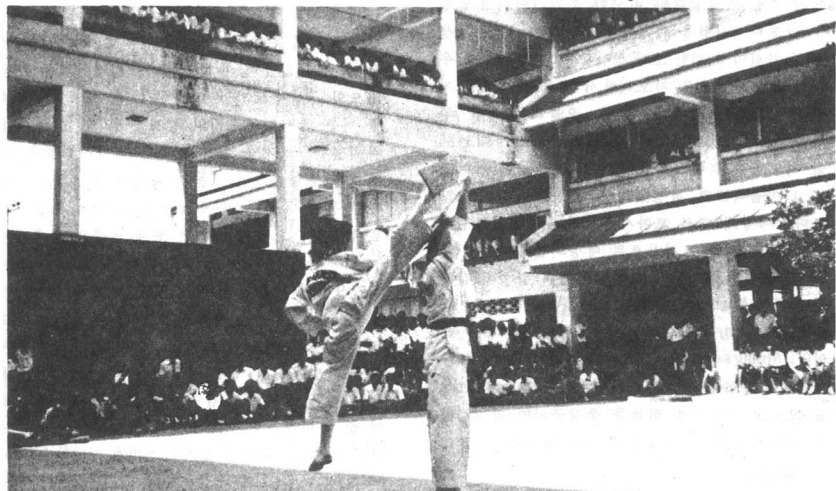
### 1월26일

어제의 시범에서 대과를 올린 교마사절들은 조금도 피로한줄 모르고 오늘도 연무시범에 임했다. 오늘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King's College 에서 전교생 5,0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랑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조직적, 위력적 이면서도 아름다운을 지닌 교마사절들의 태권도시범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장해물격파와 동굴격파 등, 오민석군의 삼단축격파

의 묘기가 펼쳐질때마다 이들의 열광하는 환성은 대단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진지하게 관람하는 이들의 태도로 보아 태권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깊어진것만 같은 것이다. 시범이 끝나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며 물러 오더니 뽀뽀?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사진을 촬영하자고 교마사절들을 끌고 당기며 온갖 법석을 부리는 것이 다.

### 1월27일

연일 계속되는 시범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교마사절들의 자세는 능률하기만 하다. 오늘은 파툼롱카학교(Patumrong Ka School )에서 연무시범을 보이게 된다. 이 학교에서도 예외없이 5,000여명의 학생들이 동원된 가운데 시범이 펼쳐지게 되는데 교마사절들이 입장할때부터 밀고 당기면서 좀더 가까운 곳에서 시범을 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한 동작 한묘기가 보여질때마다 우뢰와 같이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와 뜨거운 환호성은 마치 모두가 태권도를 배우고 익혀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들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봉술을 배운다는 어느 학생은 자신도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태권도를 배워서 오늘의 시범 단처럼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어 보



보린다이차 스쿨에서 동태고 마주었다 순간 뒤후리기 격타의 묘기

했다며 포부를 말하기도 한다. 동양의 많은 무술보다 우리 태권도의 우수성이 한마디로 입증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태극주제 권병현 공사는 우리의 태권도가 이처럼 훌륭하고 대단한 인기를 모을줄은 미처 몰랐다고 태권도가 국위를 선양하는 힘이 매우 대단한 것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흐뭇해 하신 권병현 공사는 태극태권도 협회 회장단과 본시범단을 오찬에 초대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자리에서 금번 시범단장으로 동행한 송재식 장학관님은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 만방에 이토록 당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줄은 미처 몰랐으며 시범단장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 1월28일

오늘은 금번 태국에 머무는 동안 마지막 시범을 가지게 되는날이다. 방콕시 번두리에 위치한 보린대 차중고등학교(Bolin Dae Cha School)에서 시범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이미 체육교사(송기영 사범의 제자)를 통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학교에서 시범을 보일때 보다 전교생 6,000여명의 관람태도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태권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듯 하였다. 마치 국기원에서 시범을 보일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시범을 마친후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자신이 마련한 오찬 석상에서 지금까지도 우리학교는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교육적 실효를 거두어 왔노라고 자랑하시면서, 오늘의 시범을 관람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본교생들의 전인교육에 힘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교마사절들의 태국순회원무시범은 끝까지 알찬 시범으로 대성공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동안 교마사절들의 활동에 감탄한 부회장 Mulliga 여사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라는 듯 Sian Swimming Pool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Mulligs 부회장의 배려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마사절들은 그동안의 피로도 잊은채 그칠 줄 모르고 미끄럼을 타는등 물장구치며 맑고 밝은 모습으로 마냥 수영을 즐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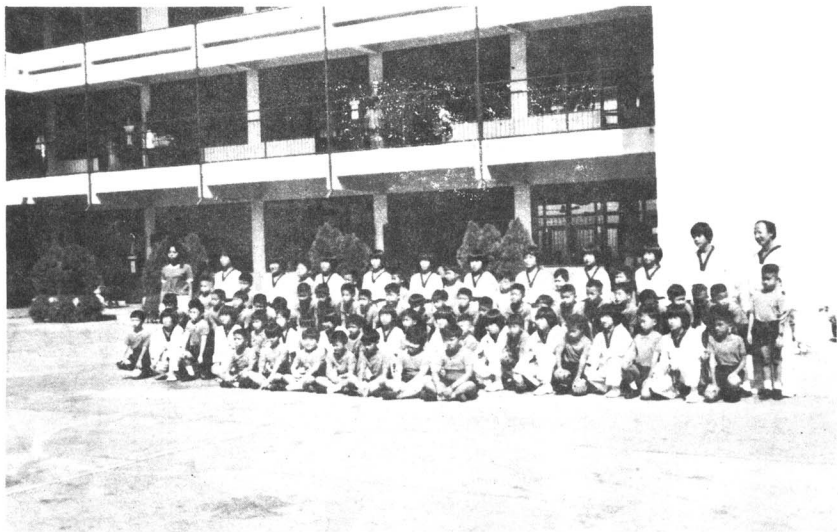
### 1월29일

알뜰하고 빈틈없이 자상하며, 정성어린 Mu -

lliga 부회장은 태국을 떠나기전 오전의 짧은 시간도 헛되지 보낼 수 없다는듯 벤스사에서 투자 설립했다는 태국고전민속촌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곳은 태국 전역을 축소시켜 설계한 곳으로 한눈에 태국 각 지방의 특성과 생활습성을 볼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태국에서의 모든 Program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8:30 시 CX 712편으로 태국을 떠나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시간 21시40분 홍콩태권도협회 CARL MEN-KY CHING 주석등 임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홍콩에 도착한 시범단 일행은 곧장 숙소인 Da Dae Hotel로 향했다. 본시범단의 홍콩방문일정 때문에 서울에 출장중 급일 급거 귀국했다는 CARL MEN-ky CHING 주석은 피로함도 잊은채 시범단을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CARL MEN-KY CHING 주석은 한국대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홍콩에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보람 있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짧은 일정관계로 시민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홍콩 T.V Program을 통해 여러분의 훌륭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침체 되어가는 홍콩태권도에 활력을 불어주는 성과 있길 바란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 1월30일

오전중 홍콩태권도협회의 배려로 Victoria 산을 오르게 되었다. Victoria 산 정상에서는 홍콩반도와 구룡반도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잘 조화를 이룬 국제항구도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였다. 즐거운 관광을 마친 교마사절들은 태권도를 보급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피로함도 잊은채 홍콩 T.V 방송에 출연키 위하여 방송국으로 향했다. 오늘의 시범은 원래 홍콩의 쿵후사범 두명과 함께 시범을 보이게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교마사절단의 묘기를 지켜 보던 방송국 담당자는 쿵후의 시범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태권도 시범만을 방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우리 시범단은 약 15분간의 짧은 시범을 통하여 유감없이 태권도의 진가를 보여준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위력이 넘치는, 자신있게 보여준 시범에 감탄한 CARL MEN-KY CHING 주석은 자신이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마련한 환영만찬석상에서 지금까지 태권도와 갖



크리스찬 칼레지에서 시범을 마치고 본교 학생들과 기념 촬영

가치 Sports 를 위해 일을 하여 왔지만 오늘처럼 보람되고 기쁜날은 일찌기 없었다며, 이토록 훌륭한 시범단을 보내주신 김운용 총재님과 엄운규 부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면 여간 흐뭇해 하는 것이 아니다.

### 1월31일

오늘은 13 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날이다. 부모님들의 품안에서 웅석을 부리며 지냈어야 할 꼬마사절들이 오랜동안 부모님 곁을 떠난 탓인지 귀국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홍콩시간 11시, 귀국하고자 KE 616편에 몸을 실은 꼬마사절들은 피로에 지쳐 있다기 보다는 그리웠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서 마냥 즐겁기만 한것이다. 대만을 경유하여 16시 30분 김포공항에 착륙, 창밖을 내다보니 섭씨 32°가 넘는 태국에서 해수욕을 즐길때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하얀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하얀눈은 따뜻한 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국과 홍콩의 여행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본 시범단이 이렇게 훌륭한 시범을 보일수 있을만큼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한 이규형 사범의 노고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고, 금번 동행한 임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시범단을 파견하신 김운용 총재님과 엄운규 부회장님 등 황춘성 전 무이 사님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따라서 본 시범단이 여정을 마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태국의 Mulliga 부회장과 송기영 사범 그리고 홍콩의 정만기 주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태권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86서울 아시안 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것과 세계평화와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뒤희를 놓는다.

## 태권도 찬가

1. 민족의 슬기와 열이 담긴 우리의 무예  
불의를 몰아내는 정의에 태권도  
예의와 인내는 태권도의 정신  
원도북 기합소리 천지를 흔든다.  
태권도는 국기도 우리의 자랑  
열과 성을 다하여 나라 사랑하세

2. 씩씩하고 용감한 불굴의 정신  
불끈 뿜 두 주먹엔 민족정기 숨쉴다  
화랑정신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루세  
백의민족 검은 머리 정의에 사도  
태권도는 국기도 우리의 자랑  
열과 성을 다하여 나라 사랑하세

3. 힘찬 발길 닿는 곳에 정의가 생동하고  
슬기로운 생활지혜 개척의 정신  
세계평화 지키는 태권도 의지  
오늘도 태극기 날리며 세계를 향한다  
태권도는 국기도 우리의 자랑  
열과 성을 다하여 나라 사랑하세



# 봄 길에서



서 재 환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74

(충무체육관)

그 정월 보름날 밤  
취불에 탄 까만 강둑

종달새 삐비비비  
몸살나게 울더니만



오늘은 햇살이 얇아  
새싹들이 돋겠네.



# 상계 체육관

서울도봉구상계 3동79-11  
관장: 안영택



館訓을 務實, 信誠, 正義로 실질을 숭상하고 허례허식을 버리고 진실(참) 되자는 무실정신, 믿음과 정성으로 모든일에 입하자는 신성정신, 올바른 행동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正義정신을 바탕으로, 관장지도 지침을,

1. 正義로서 大道를 守護하자
2. 修道로서 人格을 陶冶하자.
3. 禮儀와 信義로 團結하자.

는 철저한 武道의 基本지침을 체육관 정면에 부착하고 상계동에서만 2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해온 상계태권도장, 이 도장을 개설한 안영택관장은 1951년 태권도(당시는 당수도)에 입문하여 33년간 태권도의 외길을 걸어온 태권도인, 안관장은 대한태권도협회의 교육분과 부위원장을 필두로 협회활동을 활발히하여 시범단 단장, 도장 관리분과 위원장, 상벌분과 위원장, 심사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74년 연경향종합대학 태권도사범, 1975년 국무총리공관 태권도사범들을 역임하였고 1982년 2월 제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 감독으로 한국의 5연패의 영광을 주도하였고, 발히 하여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방위협의회 위원,

방범위원장, 새마을 명예지도자, 상계3동 민주당 지도장으로 4년간 활동을 하고 있다. 안관장은 80년 12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모범시민표창, 82년 12월 체육훈장 기린장포상, 1984년 1월에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공로표창장을 수상하는등 태권도에 기여함이 지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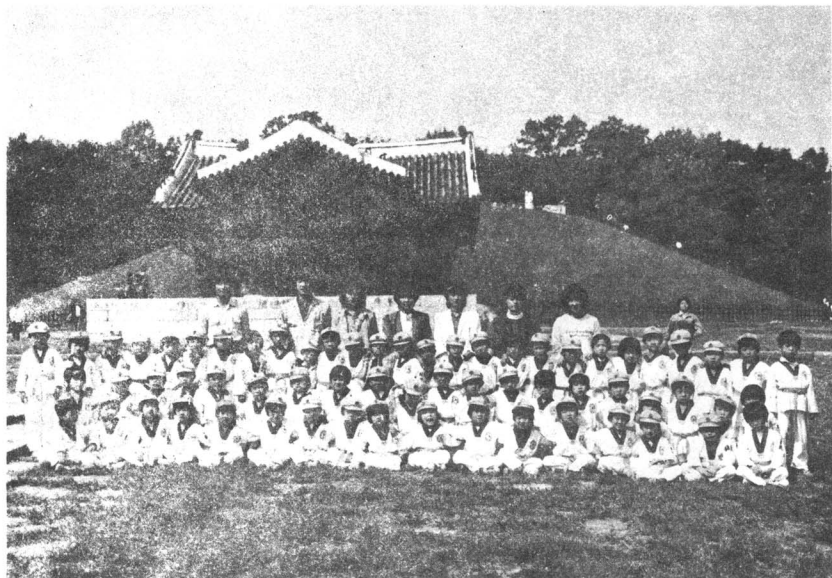
1965년 상계동에 태권도장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배출된 유단자만 약 2만여명이 넘으며, 체육관에 도복을 입고 거처간 숫자는 상계 1.2체육관 2개소에서 10만여명은 출잡아 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육관은 연건평 60여평에 깨끗한 마루바닥은 태권도인이면 도복을 입고 뛰고 싶은 충동을 느낄만 하였다. 체육관 마당에는 2개조의 철봉대와 1개조의 철재 수평대는 태권도 외에 관원의 체력단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은 6개부로 나뉘어서,

1부: 유치부로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까지 65명





2부: 국민교부로 오후 3시~4시까지 50명

3부: 국민교부로 오후 4시 30분~

5시 30분까지 55명

4부: 국민교부 5시 30분~6시 30분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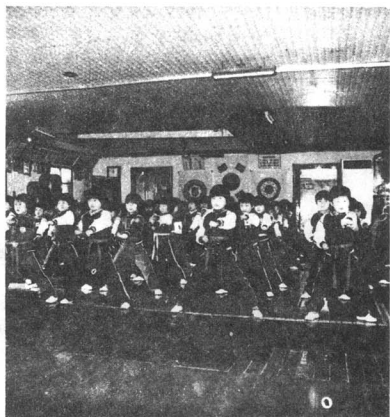
5부: 중동부 6시 30분~7시 30분 35명

6부: 중·고동부 7시 30분~9시 26명으로

281명이 수련을 하며 상계 제2도장에 172명등, 450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 체육관에는 태권도 지도자교육, 심판교육등을 받은 4단 이상의 사범 3명이 안관장의 지도하에 태권도 지도에 심혈을 쏟고 있다.

또한 안관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 실무자로 근무를 한적도 있어 태권도의 실제의 상황을 잘 아는 일선지도자로서, 밖에서 보는 일선도장의 지도자들의 자질과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대대학원을 최근에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인이기도 하다.

불황을 모르는 태권도장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도자(관장)가 얼마나 성심껏 체육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안관장, 체육관의 운영면으로는 성공한 모습을, 관원 450여명이 입증해 주는듯 하였다.



# 성북 체육관

서울도봉구 미아 3동304-8

관장: 고국환



한강소에서 18년-(1967년 4월 20일 개관)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데 20여년을 한곳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고사범은 16세때 부산에서 태권도에入門하여 지금까지 31년간 태권도와 살아온 태권도 외길 인생이다. 말수가 적고, 수

줍음을 잘타는등, 외양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운동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은 일이나 공동생활에서의 "멤버십"은 칭송하고도 남음이 있는 모범인이다.

최근, 체육관 대개는 오전 9시에 유치부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국민교부가 끝나는 7시쯤이면 운동이 끝난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수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체육관 운영의 주가 국민교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북체육관은 예외이다.

새벽 5시 30분이면 새벽부의 우렁찬 기합소리가 여명을 밝힌다. 또한 저녁도 10시 30분까지 성인부가 땀을 흘린다. 56평의 넓직한 마루바닥의 체육관에 샤워실, 각종 운동기구를 고루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태권도 외의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모습에 눈에 보인다.

고사범의 생활신조는





◎ 좀은 어렵더라도 올바르게 살자 !

◎ 부지런하게 살자 !

를 신조로 부자는 못되지만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6형제가 모두 태권도에 종사하는 태권도 가족으로 高國煥사범 7단, 2째 중환 5단, 3째 삼환 5단, 네째 명환 5단, 다섯째 구환 4단, 여섯째 길환 3단등 高사범 아들(신일중 1년) 3품까지 합하면, 총 32단이 되는 최고단자의 집안이라 하겠다. 18년간 성북도장에 입관한 숫자는 6800여명에 달하며 유품(단)자만 2300여명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高사범은 1969년 화계국민학교가 개교할때부터 지금까지 자원태권도 사범으로 16년간 아침(수업시작전)지도를 하고 있는 끈질긴 노력과 이기토 하다.

신일중학교에도 하학후 태권도부 지도를 5년간 하고 있다. 현 성북체육관에는 130 ~ 150여명의 수련생이 있다. 이중에는 체육관 역사와 같이 지금까지 운동을 하는 관원도 2 ~ 3명 이나 있고, 프레스링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은 전임 수선수가 高사범의 태권도 제자인데 레스링으로 전향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는 청암 한상봉 선생(화가) 임정규 대령, 라용경 기자등 동리의 유지들이 도장에 나와 태권도를 하며 관원들(국민학교생)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동네에서 체육관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다.

도장 육성회 회장인 崔正植사장(평통자문위원)은 체육관에 대한 관심은 태권도인 이상으로 지대하여 체육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高사범은 말한다.

高사범은 교육분과위원으로 협회의 일을 시작하여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서울시 태권도협회 도장관리위원장, 심판분과위원장으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일하며, 겨울철은 제외한 3계절은 주 1회 초기 체조장이며 예비군 훈련장인 화계산에 오물수거를 하는등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高사범은 서울시협회 도장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며 일선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 가보니 체육관 관장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관장이 직접 도복을 입고 열과 성을 다하는 체육관은 운영이 잘 안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교육분과 10여년에 전국에 많은 사범님들과의 유대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의 태권도장예의 제반문제들을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범들의 결속을 요망하였다.



# R. G. H 체 육 관

강남구 서초동  
美 8 軍 고급 장교 사택內  
관장 : 김 태 용

김관장은 국민 학교 6 학년 때 태권도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태권도 7 단)에 이르렀다. 1975년에는 콜롬비아에 파견되어 콜롬비아 대표선수들 1 년 반 정도 지도를 하고 귀국한 후 76 년 이곳에 체육관은 개설하여 8 년간을 외국인에게 태권도 보급을 하고 있다. 이곳 주한 미 8 군 고급 장교 사택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고참 대위에서 대령까지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장교 전용 사택이다.

본 체육관은 오후 4 시 30 분부터 5 시 30 분까지 어린이부, 6 시부터 7 시까지 장교들이 수련을 하고 있다. 8 년간 이 체육관을 거쳐간 어린이들이 1500 여명에 이르며 유품자 배출은 50 여명이

넘으며, 고급 장교 500 여명이 태권도를 배웠고 50 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은 美國의 고급 장교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예의와 가슴에 우리 태극 마크를 달고, 우리말로 지도를 받으며, 유단자가 될 때까지 태권도를 배우면 우리 말을 해독할 정도가 되는데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유품자가 되기 위해 국기원을 갈때 쏘면, 한국어 해독은 물론 우리나라 노래 한가지 이상은 정확히 하여야 국기원 승품 심사장에 내 보내는등, 한국의 이미지가 심겨져 어떤 때는 지독히 개인주의적이고 타산적인 꼬마들이 미움다가도 태권도 보급을 생각하면 웃음으로 참아 넘기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한다.





또한, 김관장은 한국내의 일선 체육관과 자매 결연을 맺어 한국 어린이들에게 한국내의 미국 어린이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어린이의 절도있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민간 외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에 나갈 국내의 사범들이 연수 코스처럼 본 체육관에 와서 수련을 하며, 미국인과 대화를 익히며 여러가지 생활습관을 익히려고 도장을 거처간 사범 숫자가 3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체육관에는 송한민(단국대 체육과졸업, 5단) 사범과 최광준(연세대 체육학과 재학, 4단) 사범이 근무를 하고 있다.

79년도부터 근무를 한 회사범은 모든것을 지도하는데 영어를 사용하여야 되는 어려움을 물론이고 각 주(洲)마다 언어가 달라서 특히 어린이들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른들은 모든 동작 한가지 한가지에 이해를 시켜야하며 왜?에 대한 원리 설명을 하여 줄 때의 기본 서적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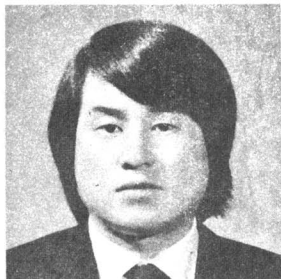
또한, 성인인은 최하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몸이 굳은 상태를 풀어서 바로잡아 주면서 태권도에 적응시켜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한다.

어린이들도 한국 어린이와 달리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무도 정신에 입각한 상황은 찾아 볼수 없으며, 나는 돈내고 배우며 당신은 돈받고 가르키는 사람 이외의 우리나라 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제지간의 예의범절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찾기는 어려움다고. 그러나 성인층에는 특별하게 동양적으로 예의 바르고 가르치는 사범이 민망할 정도로 깎듯이 예우를 갖추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본 체육관에는 현재 어린이 15명 성인 10명이 수련하고 있으나 많을 때는 50~60여 명이 수련하였다고 한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 지도할때 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운동을 지도하기가 쉬울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실상을 잘 알기때 문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여 쓸쓰레한 미소를 혼자 먹음었다.

# 대성 체육관

경기도 수원시화서동 174-9

관장 : 홍 인 화



화서동 5거리에 수원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성체육관, 체육관시설에 뒤지지 않게 운영면에도 탁월하여 유아부만도 80여명이 수련을 하는 도장이다.

유치부 태권도 수련외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여교사를 두어 자칫 부족하기 쉬운 정서교육과 예능교육을 시키는등, 수원에서 유아부 태권도 수련에 성공한 시범 도장이다.

또한 홍 사범은 고생스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여 동리의 불우 청소년과 불우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과가 지대하여 82년 10월 수원시인의 날에 경기도 도지사 상을 받았으며, 82년 5월에는 B.B.S 주최 체육의 날 경찰서장의 감사패를 수여받는데,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지 주민들의 호감은 물론이며, 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여 동리의 학교의 모범생으로 동리의 칭송이 자자하다. 그러나 홍사범은 이에 만족치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세로 「연구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생활철학으로 “종합예능학원”의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기도협회 경기분과 위원장이기도 한 홍사범은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빈틈이 없는 성실한 태권도인으로 본회 발전에도 기여함이 크다.

〈전무이사 안중용〉



# 백호 체육관

강원도 양구군  
홍성수 사범



7162부대 96부대에는 태권도 백호체육관이 있다. 이 체육관에서는 대대 태권도 선수는 물론 부대대의 선수들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으며, 대민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국민 학교, 중 학교 학생들에게도 태권도 수련을 시키고 있다.

○ 부대장 이진삼 장군은 태권도 공인 7단의 무도인으로 예하 부대의 장병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시키는 물론, 우수한 태권도 선수들만 뽑아서 실시하는 태권도 시험 방법을 탈패하고 전 장병들이 늘 수련에 임하여 힘을 강조하며 부대내의 내부만 앞, 식당 앞, 심지어 화장실 앞까지 태권도 단련대를 설치해 놓고 늘상 오가며 단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장병들을 무작위로 차출

하여 수시로 태권도 시험을 개최, 우수한 팀에게는 휴가를 주어 격려하는 등, 전장병 전투요원 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장님의 의지를 대변이라도 하듯 96대대 최정호 대대장은 장병중에서 부대 태권도 대회에 3연패를 한 홍성수 장병을 사범으로 임명 82년 6월부터 대대내의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태권도 선수를 육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수련 장소인 백호 체육관을 동년 10월에 완공하였다.

최정호 대대장은 주 3회 태권도 복을 입고 체육관에 나와 장병들과 수련을 같이 하며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대대장은 부대내의 명관급 테니스 대회 군단내 스케이트 대회 등에서 우승을 하여 7162 부대가 우승을 하는데 주역이 되는 등 만능 스포츠맨이다.

또한 대대내에서는 각종 대대의 분대대항 태권도, 축구, 배구, 농구, 송구 등의 각종 대회를 2개월마다 개최하여 우수분대를 휴가를 보내주어



전 장병의 취미활동은 물론 체육발전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도록 노력하여 대대장병들의 사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대 민사업으로 인근 임당국민학교에 임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부를 만들고, 매일 지도하게 하여 軍民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중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여(주전선수 20명 후보선수 30명) 대대내의 체육관에서 수련을 시키는 등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 태권도 도복을 손에 든 국민학생이 대대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제시하며 군부대 체육관을 드나드는 씩씩한 새싹들의 밝은 모습이 좁은 이색적이나 더없이 좋은 대민사업으로 생각된다.

백호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은 200 여명이 넘으며, 또한 임사범이 지도하는 임당국민학교 태권도부는 백결불굴의 의지가 담긴 군부대의 체육관에서 수련을 하여서인지 83년 11월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거행한 전국국민학교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처녀 출전하여 단체 4위에 입상하여 감투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국민의 4대 의무로 누구나 거처야 하는 군복무, 경제성장과 아울러 국력신장으로 모든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내무반마다 컬러 T.V는 물론 세 탁기인 찰순이까지 갖추고, 도서관, 오락실 등 일과후의 문화, 취미생활로 정서함양에도 부족함



이 없는 장병들의 군생활을 보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한 최정호 대대장의 배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여년전 본 기자가 군생활을 할때와 비교하면,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보병대대도 아닌 포병대대가 부대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 그영광, 그기백, 통일의 그날까지 불사조처럼 영원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주자.



# 강원도 “태권도 본관도장”

원주시 원동107

관장 김 광 언



1965 년도 10 月 軍除隊와 함께 개관한 체육  
관이 원주시 원동 107 번지 20 여년.  
태권도入門 1958 年 始作.  
20여년 배출된 유단자가 700 여명.  
입관자는 줄잡아 500 여명.

현재 지관을 4개 두고 300 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

관람지도 방침

① 안되면 될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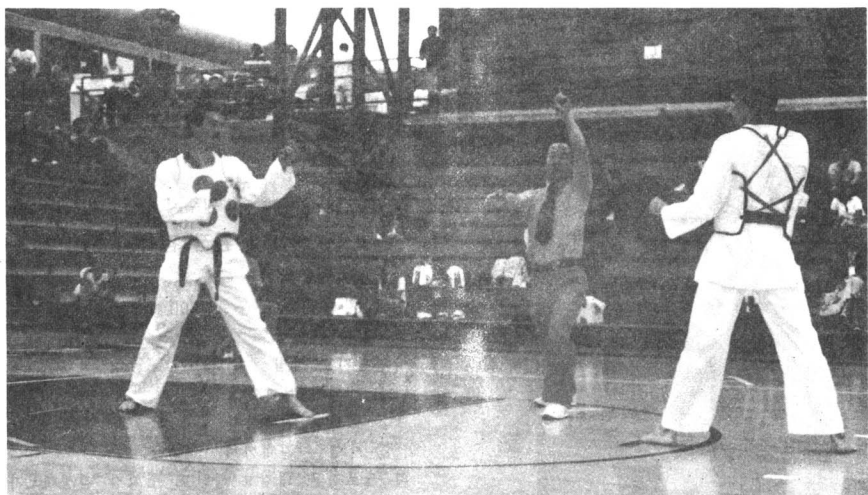
② 모르면 알때까지

③ 지면 이질때까지

의 슬로건을 내걸고 강원도 협회장 김성태氏가  
경영하는 仁東煉炭工場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강원도 협회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관통합이전  
강원도 본관장을 역임하며 원주에 뿌리를 내린  
장본인, 제자중 외국에 파견되어 국위를 선양하는  
제자에서부터 체육관을 개관하여 태권도 보급을  
하는 사범만 15 명이 되며, 강원도 원주시 반  
공연맹 청년부장, 태권도의 역분으로 판매점구  
축등, 체육관을 통하여 이루는 등, 김관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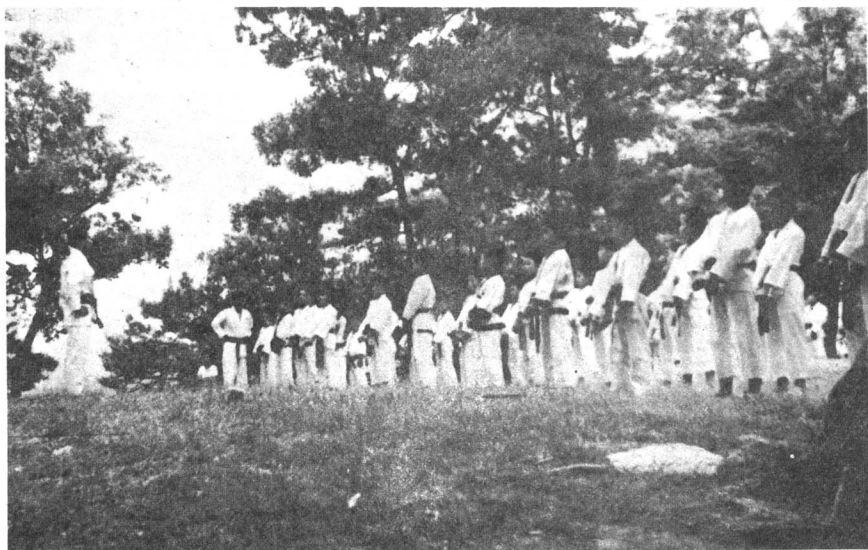




착실한 태권도인으로 지도자교육 1기, 국제심판 2기등,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모범태권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81년도, 제1회 월드컵 (미국산타클라라)에 국제심판으로 참가하는등, 사회활동과 태권도 활동을

겸하여 착실히 하고 있다.

원주시내의 초·중·고등학교등 김판장이 태권도 지도를 하지않은 학교가 없을 정도로 태권도 보급에 선두주자라고 자부할 만큼,원주사회에서는 김판장은 태권도의 명인이라 하겠다.



# 학성체육관

경남 울산시 학성동 134

이 용 주 사범



학성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한지 10여년, 그동안 배출한 유단자 600여명에 달하며 체육관을 거쳐간 인원은 1,700여명에 이른다. 김사범은 학성체육관, 무릉체육관(양정동소재) 외에도 옥성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

유치원의 원아가 1년동안 유치원 과정을 마치 때까지 태권도를 부수적으로 배워서 졸업할때는 4~3급정도의 실력을 갖고 졸업을 한다.

태권도를 유치원에서 지도를 하니까 타 유치원의 원아들보다, 활발함은 물론 정신적인 면으로 강인해져서 부형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성격 교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사범은 말한다.

또한 이사범은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지대하여 동리의 노인들을 매년 5월에 200~300명을 모시고 동사무소,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경로잔치를 베풀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불우 이웃 도움기동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경남태권도협회 심사분과 위원장으로 태권도 발전에도 기여함이 크다.



# Leadership과 teamwork의 實踐心理學 (I)

外書에서 抄譯

김 수 중

## 1. leader의 心理

### A) leader at team member

스포츠 팀이나 클럽의 "集團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作用을 하는 것"을 leadership 이라고 하며 그 中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leader 라고 부른다.

Sports team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감독, 코우치, 트레이너 등 책임자와 指導層이며, 이외에도 主務, 主將, 先輩, 또는 上級生에 속하는 學生 등으로 팀 構成을 분류할 수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는 각종 모임이나 전통적인 클럽 등 팀을 구성하는 人員數와 年齡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경우가 있겠으나 그 중심적 인물은 어느 경우나 leader 가 될 것이다.

Team member 는 Leader 의 결정이나 지도를 받으며 리더의 발언이나 행동을 믿는 構成員이며 리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從屬者라 할 수 있다.

### B) leader의機能과 役割

리더에는 어떤 機能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는 리더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그리고 리더십의 型에 따라 集團은 어떻게 변하는가? 등에 대하여 우선 일반적인 지식을 터득해 둘 필요가 있다. 리더의 기능에는 目標達成機能과 集團維持機能을 들 수 있다.

목표달성기능을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專問의 情報를 入手가능케 하고 作業의 遂行상태를 평가하고 集團이나 組織體의 生産性 향상을 수행하는 作用이며, 집단유지기능을 少數意見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集團內의 대인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며 構成員을 안정되게 유지하여 集團 그 자체를 完全하게 유지하는 作用"이다.

스포츠 팀에 있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팀內의 人間關係를 원활하게 하고 팀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리더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機能이다.

일반 사회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스포츠 팀의 역할이나, 고루 적용될 具體的인 리더의 역할은.

- 執行者다.
- 計劃의 立案者다.
- 方針의 作成者다.
- 專問識知와 機能의 所持者다.
- 集團의 代表者다.
- 集團內 판계의 統制者다.
- 賞罰의 適用者다.
- 調整, 仲裁者다.
- 模範者다.
- 集團의 象徵者다.
- 個個人의 責任의 代理者다.

○ 이데올로기 (ideology) 의 代表者다.

○ 父親像의 保有者다.

○ 攻擊의 對象(멤버의 공격목표)이다.

### C) leader 의 特性

바람직한 리더의 특성에 관하여 요약하면,

#### 1. 身體의 要因

生活年齡, 身長, 體重, 體格, 容貌 기타 身體의인 사항.

#### 2. 能力의 要因

知能, 學習力, 運動機能 기타 諸能力

#### 3. 性格의 要因

自信感, 適應力, 動機力, 支配性

向性: 外向性, 內向性

性差: 男性的, 女性的, 保守性, 對人的 感受性 등

이것은 모두 리더로서 바람직한 특성들이나 이들 모두 겸비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드물므로 현실적으로는 리더가 上級生이나 技能이 뛰어난 사람, 德望과 信賴感이 있는 사람이 리더로 選出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의 특성이 어떻게 분석되건간에 現實의 集團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많음을 감지하여야 하겠다.

### D) leader Ship의 類型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型이 集團이나 構成員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리더십에 관한 古典的 實態研究로서 自由放任型, 民主型 專制型으로, 훈련된 大學院生을 리더로 하고 10 歲의 소년 20 명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취미활동으로 가면 만들기 작업을 시켜 그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리비트"와 "화이트"에 의한 연구된 리더십型으로 그 效力은.

#### ○自由放任型

民主的 리더십과는 달리 이룩된 작업량은 가장 적으며 내용도 빈약하고 遊戲的이며, 구성원들은 차라리 民主的리더십을 택하는 사실은 面接에서 알 수 있었다.

#### ○民主型

能率的이다. 專制的 리더십이 作業의 遂行量은 많았지만 動機性이 低調했면 비해 民主型 리더십은 動機性이나 獨創性도 높았다.

또한 集團意識性이나 友好性이 높았다. 즉, "나"라는 말의 使用頻度가 적었으며 구성원 상호간에 칭찬하거나 集團의 所有物을 즐겨 共有하려는

태도가 높았다.

#### ○專制型

適對하거나 攻擊性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注目を 끌려는 行動이나, 所有物에 대한 파괴적 행동이나, 동료 사이에 공격적 대상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동이 많이 보였으며,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不平不滿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원이 集團으로부터 탈출하기도 했다. 또한 리더에 관해 신뢰성은 높으나 個人性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결과로 民主的 리더십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實證되고 放任型과 專制型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스포츠 팀의 코우치가 리더는 이러한 리더십의 型에 따라서 팀의 분위기가 協力, 協同體制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리더의 機能, 役割, 리더의 特性이나 型에 따라 集團과 構成員의 能力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心理로서 자기가 속한 팀의 目標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서 팀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方法으로서 어떤 것이 最善인가를 모색하는 일이며, 코우치는 그러한, 리더의 機能에 대해 어떻게 正確한 指導와 助言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2. Team member 의 心理

### A) 각 팀 멤버의 力入目的

팀의 멤버는, 저마다 그 팀에 들어온 가입 목적이 있다. 스포츠 팀을 말하자면 志願者的 集團이며, 자기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퇴해 버리는 方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大學의 전통적인 스포츠 팀의 가입자가 激感하는 현상이 눈에 띄는데 이것도 그러한 현상의 하나가 된다. 그러기에 어느 대학 스포츠 팀에서는 下級生에게 비교적 관용스럽고 上級生이 되면서 비로서 엄격한 지도를 한다고 들린다.

그 밖에 한 여자대학에서의 스포츠 參加動機를

\* Team work 는 個個의 特性을 살린 協同적인 行動이며, 技術面과 精神面이 強調된다.

보면, 活動性因子, 人間形成因子, 勸誘因子, 親和因子, 探索因子, 社會的承認因子, 技術, 技能的因子, 健康因子, 達成因子 등 각양각색이다. 그러한 動機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技術, 體力, 經驗年數, 學年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加人目的의 多樣化와 함께, 최근의 스포츠 팀 운영의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 B) Team member가 Leader에게 바라는 것,

팀·멤버는 리더의 方針과 자신의 加入목적에 일치하면 리더에 依存이 강해지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리더에게 반발하고 다른 小集團을 만든다거나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팀·멤버가 리더에게 바라는 것 중에는 첫째, 리더가 팀멤버를 信賴하고, 둘째, 일반 멤버의 입장에서 事物을 생각하고, 셋째, 新人멤버가 팀에 융화하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넷째, トラブル의 사전방지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다섯째, 팀전체의 분위기를 한데 모으는 能力 있는 리더의 配慮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배려다움으로 統率이 있는데, 이것은 팀멤버에 의해 신뢰받고, 기술이나 실적도 뛰어나며, 경기중에는 믿음직스러우며, 자신에 한 행동을 취하며 팀전체를 잘 통솔해 가는 일이다. 통솔다움에는 엄격한 訓練으로 지각자나 연습을 권 팀멤버에게는 엄하게 꾸짖는 일이며, 팀維持를 위한 行動力에서는 新人멤버에 대한 實技지도, 道具, 用具의 管理를 配慮하고 新人멤버의 勸誘등에도 노력하는 등의 行動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스포츠 팀에서의 팀멤버의 心理를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 3. Team work의 心理

스포츠에 있어서 팀워크가 왜 필요한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팀이 상대 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다.

팀·게임 또는 個人게임에서 實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팀·워크를 잘하는 것이 감독, 코치, 主將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

Team work란? 協同動作, 協同作業, 協力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팀의 멤버가 정신적 기술적으로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며 「각기의 소임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멤버사이에 연락이 잘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인 협동작업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협력도 강조되고 있는 점을 注目해야 한다.

이러한 팀워크는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經濟, 教育 등, 각종 분야에서는 競爭과의 관계에 있어서 力說된다.

한편 팀워크에 있어서는 「個個主體의 充實을 목표로 하는 協同」이라고 규정하고 利害(勝敗)를 위한 배차적 경쟁 相互扶助努力의 過程을 경과하여 集團의 共通目標달성에의 참가 그 자체에 스스로의 충실을 발견하는 것이 팀워크의 기쁨을 아는 것이고 각기의 개성을 희생한다든가 埋沒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理論도 있다.

즉, 훌륭한 코치의 한 조건으로서서는 集團과 개인의 목표를 잘 조정하면서 개인의 특성을 살린 팀워크(協同인 行動)를 완성시켜 집단으로서의 목표 달성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팀메이트”를 育成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팀워크에는 技術的인 面과 精神的인 面으로 분류하여 볼때

#### A) 技術的으로 팀워크가 좋다는 것은

- ① 패스가 많고 득점이 많다.
- ② 선수들의 연결 플레이에서 호흡이 잘 맞으며,
- ③ 커버링이 좋으며,
- ④ 서로의 장, 단점을 지적하며, 서로 노력하며,
- ⑤ 개인과 개인의 힘을 모아 상대를 대하며,
- ⑥ 팀전체의 포메이션이 흐트러지지 않고,
- ⑦ 적체소에서 개성적 기술이 발휘되고 있는 등 小그룹, 中그룹, 전체로서의 플레이에 협동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B) 精神的으로 팀워크가 좋다는 것은

- ① 서로 격려하여 士氣를 높이고 있으며,
- ② 同一目標에 도전하는 기개를 볼 수 있으며,

\* Team work에서는 많은 要因이 관련되지만 實戰을 통하여 培養되는 경우가 많다.

- ③ 팀임이 일치단결하여 상대에게 대하고 있으며,  
 ④ 실패를 교훈으로 하여 成功을 모두가 기뻐하며,  
 ⑤ 팀임을 위해 全力을 다하는 태도가 보이는 등의 士氣, 凝集性, 統一性, 團結性이 보이는 行動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팀임워크를 육성하는 방법은 전술한 리더의 機能이나 역할이 그 하나이다. 集團生産性과 構成員의 만족도를 경기 成績이나 팀임워크로 바꾸어 놓으면 많은 要因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現實的으로는 練習과 實戰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培養해 가는 方法이 좋을 것이다.

「實戰은 最大の 教師다」라는 있다. 實戰은 팀임의 長・短點을 잘 노출시킨다. 또한 상대와의 경쟁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場을 設定해 줌으로 가장 알맞는 팀임워크의 養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實戰에 대비하여 항상 노력하며 경기가 끝난 후의 評價(反省) 會를 열어 장, 단점을 분석 평가하여 시정함이 중요하다.

최근의 스포츠계에는 얼마나 많은 연습경기를 소화하느냐가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지에서 年中計劃중에 어떻게 하면 실전의 자리를 유효하게 설정할 것인가가 팀임워크의 유지,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요 한 것은 “메니저”의 존재다. 메니저는 팀임멤버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 제3의 存在이나, 팀임워크의 중요한 열매가 되고 있다.

그것은 팀임멤버로부터 리더로서의 의견이나 리더로부터 팀임멤버로의 지도는 “메니저”라는 角色的 존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練習이나 實戰에 필요한 施設, 用具의 管理, 經濟面, 對外的교섭, 記錄 등, 환경적조건을 정비・충당해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메니저”를 얻는 것은 팀임・워크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다.

#### 4. 作戰의 心理

初期生物에 있어서의 첫 먹이는 병신 동류였다 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人生을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상징적이고 暗示的이다. 어떤 종류의 풀은 毒素을 발하여 들레의 다른 풀들을 말려 죽이고

자기의 구역을 확대해 나간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은 기간은, 축소해 보면 단 3 일밖에 없다고도 한다.

역사책이란 피로 물든 페이지로 成立되어 있다.

결국, 生存競爭의 歷史이며 Survivor(살아남기)의 지혜로 必然的으로 생겨나는 것이 作戰이란 수 있다.

#### 要 點

1.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能力 技術 精神特性, 作戰등의 情報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陽動作戰도 有效한 방법의 하나가 된다.
3. 선수에게는 경기가 열리는 교장의 地理的, 氣象的 및 環境的 條件에 적응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4. War Cry(喊聲)는 선수의 士氣를 높이고, 방황하는 상태가 不安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위압적인 效果도 있다.
5. 自己催眠이나 暗示는 不安할때에 效果가 있다.
6. 機先의 제압은, 상대방의 戰意를 상실시키는 데 效果가 있다.
7. 상대방이 한 말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도리어 상대방을 이쪽의 말로 교환하려는 생각이 바람직하다.

#### A) 作戰이란 무엇인가?

作戰이란, 전투나 경기에 이기기 위한 방법, 또는 계획을 말한다. 比喻的으로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으로서, “將을 쓰고 자하면 그 말을 쓰아라”가 일반적인 生活技術로서 사용되는 것이 例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兵法의 秘傳者란, Know how(비결, 실제적인지식)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六韜三略”으로 總稱되는 中國의 兵法書중 太公望의 著者로 일컬어지는 “六韜”중의 “虎韜之卷”에 나오는 말로 兵法의 秘訣을 말한다. “孫子の

兵法"이란 말은 人口의 膾炙(회자)되고 있다.

孫子는 中國의 先秦時代의 兵法家로 그의 著者 "孫子" 1卷 13篇은 모든 事態에 대처하여 승리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세를 論한 "吳子"와 併稱되는 兵法者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이탈리아의 政治思想家, 外交家, 歷史學者로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의 "君主論"에서「君主는 統一과 平和을 유지를 위하여, 道德이나 宗教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方策을 취해야 한다」고 論하고 있다. 즉, 마키아벨리즘이란, 目的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權謀術數를 서슴치않는 行動樣式을 말한다.

그런데, 孫子の「모든 事態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나 자세」와 마키아벨리의「目的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行動樣式은 승리를 목표로 한 점에서는 일치하나 精神面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Sportsman이나? gamesman이나?」의 차이라는 原點이 있다.

Sportsman은 정정당당하게 이길 것을 바라고, gamesman은 수단이야 어떠하든, 오직 이길 것만을 겨냥하는 것이 그 本領이라 할 것이다.

## B) sports에 있어서의 作戰

스포츠라고는 하나, 여러 종류가 있으며, 性質도 다르기 때문에, 경기종목에 따라 作戰의 方法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어느 종목이나 간에 경쟁이고 보니 作戰에 共通點이 있다.

### (1) 情報

#### ① 相對에 관한 情報

敵을 이기기 위해서는 敵에 관한 知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상대방의 體力, 技術, 精神特性, 作戰內容등이나, 요컨대 상대방의 뛰어난 점과 약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즉, 상대를 자세히, 확실하게 아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상대와 씨름을 했더니「자네가 그 상대에게 이것을 리가 없다」는 말을 한다.

이렇게 그 상대자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후에 몇 번 도전했지만, 매번 이길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상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좋지만, 자기측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대방도 이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陽動作戰을 사용한다. 陽動作戰이란? 자기쪽의 意圖를 감추기 위해 別種의 동작을 강조하여 敵을 속이는 作戰, 또는 그와 비슷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陽"이란 속인다는 뜻을 이글에선 나타내고 있다.

#### ② 地理, 氣象, 環境條件

이것은 경기가 거행되는 교장, 競技場, 氣象등의 조건에 대해 아는 일이다. 사실 그 교장으로 가서 익숙해지지 못해, 컨디션을 흐트러뜨리고 마는 선수도 있다. 스키나 스케이팅, 또는 마라톤 같은 종목에서는 특히 地理 地形이 중요하며, 더우기 스키나 스케이팅은 天候, 氣象의 영향을 받는다. 수영의 "다이빙"같은 종목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對外경기는, 홈그라운드를 떠나 여러 다른 교장이나 환경 속에서 適應力을 培養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정을 나가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

반대로 外地에 나가면 활발해지는 선수도 있다. 따라서 對外경기에 나가는 것은 人間의 측면에서의 作戰을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일은 경기 전의 作戰계획에 속하는 일이지만 다음엔 경기 진행중 작전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 (2) 競技중의 作戰

##### ① War Cry (합성)

爭鬪의 합성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것은 팀입・계입에 있어서 단결과 勝利를 향한 士氣를 양양하고, 공포나 불안 또는 방황하는 마음을 떨쳐 버리는데 效果의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위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 ② 自己催促

이것은 개인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면 좋은 方式으로, 릴렉세이션(弛緩)과 콘센트레이션(集中)을 얻는 방법으로 時間은 30초~1分間으로 한다. 實例를 들면 경기장에서는 頻尿를 일으키는 선수와 많은데, 이런 선수는 변소에 갔을때「소변과 함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심이 몸 밖으로 나간다」는 暗示를 스스로 하며 放尿를 하면 効果적이다.

회자(膾炙): 칭찬받은 화제거리로서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

### ③暗示

복싱 선수중에는 細技는 없지만 強打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다.

外國의 實例인데, 그런 강타의 선수에게 라운드가 끝나고 1분간 休息時間에 코너에서 세컨드는 자질구레한 주문은 일체 하지 않고 「자네 주먹은 黃金주먹이야」 「자네의 강타를 맞고 떨어지지 않는 상대는 없어, 자네 주먹은 黃金주먹이야」를 매회 마다 되풀이 했다. 사실 옆치락 뒤치락 난타를 벌이고 들어온 선수에게 자질구레한 주문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해 주는 것 보다는 대범하게 중심적인 것을 반복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프로야구의 얘기인데,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잘 안 맞는 선수에게 타순이 되었다. 감독은 선수를 불러서 「제1球엔 直球가 오니까 그것을 겨누어치게」라고 지시했다. 선수는 딴 생각없이 배터복스에 서서 볼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直球가 왔다.

협차제 친 一打가 逆轉勝의 一打가 되었다. 그러나 투수는 커어브를 던졌다고 말하고, 주위에서도 커어브였지만 打者에게는 直球以外の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감독의 條件의 하나로는 暗示能力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心理作戰의 典型的인 것 중의 하나가 된다.

### ④機先을 제압하는것

복싱 선수의 고백에 依하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콧등에 한방 펀치를 맞으면, 이상할 정도로 戰意를 상실한다고 한다. 경기의 첫 머리를 느닷없이 친다는 것은 상대가 자기 컨디션의 흐름을 유지할 틈도 없이 무너져 버리게 하는 것으로 지극히 효과적이다.

복싱에서는, 일체의 探索없이 猛攻을 퍼부어 그대로 상대를 쓰러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상대가 설마하는 意表를 찌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 ⑤말으 컨디션을 호트러뜨리기

어떤 프로 골퍼가 경기를 아주 컨디션 좋게 진

행시키고 있었다. 打球는 생각대로 方向地點으로 날아가고, 배트는 기가 찰 지경으로 들어 맞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컨디션이 좋구만」하고 한마디 던진 말에 컨디션은 그대로 건질 수 없이 무너져버렸다.

이것은 “지네”가 「그렇게 많은 발을 용케도 호트러지지도 않고 잘도 걸어 다니는구나」하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발이 형크러져 넘어졌다는 寓話를 생각해 하여 흥미깊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意識이 되돌아와서 동작이 어색해지고 흐름이 멈추게 되는 것이다. 말을 사용한 교란戰術은 體操경기의 경우에 흔히 보는 실례다.

### ⑥弱敵을 골라 對戰하라

서부俠畫의 傳說的 保安官 “와이어트 어프”는 「OK牧場的 決闘」로도 유명하지만 언제나 決闘한 상대는 매번 쏘아 죽였지, 자기는 한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더 유명다. 그러나 그의 가장 정확하 다는 傳說에 보면, 그는 자기가 싸워서 이길수 있는 상대만 골라서 싸웠으며, 그것도 決闘의 자리에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늘 먼저 총을 뽑을 수 있는 순간에만 싸웠기 때문이라고 적혀있다. 그는 만년에는 토스엔젤레스에서 不動產業을 하다가 침대에서 老死했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 남을 수 있었던 最大의 原因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의 결투를 피한 데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弱敵을 골라라」라는 말과 같다. 最強者란, 결국 약자를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最強者일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대를 弱者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最強者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요」 「強하다는 것이 최대의 作戰인 것이다」

—계속—



# 일본을 알자

(日本武士道精神에 대한 小考)

范 淇 哲

(국기원 연구분과 부위원장)



-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 전남대 대학원 졸업
- 1975년 C. A. C 사령관 부관
- 1977년 백마부대 대표선수단 Coach
- 1978년 육군 육군 태권도 교본 편집위원
- 1978년 「태권무」 창간 발표 (세종문화회관)
- 1981년 태권도 국제사범(일본)
- 태권도 지도자, 심판교육 수료
- 대한체육회 Coach Academy 정규과정 수료
- 저서 「태권도와 침술학」  
「忠孝 교육 교본」  
「육군 태권도 교본」  
「국군 태권도 교본」

## I. 序 論

무사도란 무사가 가야 할 길을 말한다. 무사라는 계급이 일본이라는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무사도라는 일종의 무도정신 또한 그렇다. 하지만 일본은 그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정치 체계 때문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특이하고 강력한 무도정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무사도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무사도정신이란 어떤 단일적·원인이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일본의 지리적 조건, 정치적 조건의 변천, 일본인의 심리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종교의 영향력이나 인접국의 영향력 등도 크게 증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사상이나 정치제도를 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이론(理論)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나, 한 무도인으로서 무도사상을 연구하고 확립해 나아간다는 사실 또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우선 우리와 커다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의 방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방향(諸方向)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원고에서는 「무사도의 역사적 배경」과 「무사도 정신」 「현대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중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연구를 위한 참고서적은 참고문헌 목록에 기록한 한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의 지리적 상황, 정치제도의 변천, 일본인 심

〈차 례〉

I. 序 論

II. 本 論

1. 武士道の 역사적 배경

2. 무사도 정신

3. 현대의 일본 무사도

III. 結 論

參 考 文 獻

리 및 인접국의 영향력 등을 고찰하여야 하며, 이것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특히, 화산·지진·해일 등을 매일 만나며 살아온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개념 등의 일본인 심리와 우리 한국이 인접국으로서 일본 무사도 및 제문화에 끼친 영향력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연구영역들이다. 더우기 백제의 아직기(阿直岐) 왕인박사(王人博士), 고구려의 혜자법사(惠慈法師)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일본에 끼친 영향력은 물론, 제도법(製刀法), 제철법, 말에 띄우는 투구(동태 교본에서 발견) 등의 전래는 일본무사제급에 끼친 한국의 영향력이며, 백제의 삼랑도(三郎道), 신라의 화랑도 등은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며, 백제의 근구수왕(近 首王)과 동성대왕(東城大王)의 양대(兩代)에 걸친 일본 전국의 백제의 속국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다.(註①) 이러한 영향력하에서 일본 무사제급과 일본 무사도는 어떤 길을 밟아 독창적인 발달과 성숙을 이루는가를 살펴보자.

## II. 본 론

### 1. 일본무사도의 역사적 배경

일본 무사도의 역사에 관하여 모리가와 데즈로오(森川哲郎)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무사도는 당연히 무사라고 하는 특수계급의 탄생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것이 성숙·발달된 것이며, 상대(上代)에 강제로 만들어진 신하의 도리를 생사(生死)와 대결하여 피로와하면서 그것이 무사 개개인의 내면적 주체적 도덕으로서 확립되어 온 것이다.」(註②)

한편, 야나히하라다다오(矢内原忠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무사도는 우선 불교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운명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평정한 감각과 불가피한 경우의 조용한 복종, 위험·재난에 직면해서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처럼 침착하고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등은 불교가 무사도에 기여한 것들이다.」(註③)

이처럼 무사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제설(諸說)이 분분하지만 역사적 제도에 의한 무사도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11세기 후기, 사라카와(白河) 천황

(1053~1129)이 천황에 즉위하여 천왕친정체제(天皇親政體制)의 정책을 계속하여 국정(國政)의 실권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1086년 나이 어린 태자에게 황위(皇位)를 양위하고, 자신은 상황(上皇)이 되어 정치를 담당하기에 이르러, 이때부터 상황(上皇)의 가정사무소(家政事務所)의 원청(院廳)이 정치의 중심기관이 되고, 원청의 경비대인 「北面 의무사」라고 불리우는 무사단(武士團)을 무력적 기반으로 한 정치형태가 1세기 가량 지속되었다. 원청(院廳)의 무력적 기반이 된 北面의 무사는 종오위(從五位) 이하의 위계(位階)를 받고 있던 무가호족(武家豪族)으로서 유산자(有産者) 계급이었다는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이에 대해 川瀬一馬는 그의 저서 「日本文化史」에서 「武家は 원래 경제력과 무력을 갖고 있었으나,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명예의 位階 뿐이었다.」(註④) 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원청(院廳)은 명예의 위(位)를 주고 무사에게 봉사를 시키는 즉, 무료(無料)로 경호(警護) 무사로 고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청정치제도 밑에서 형식적 존재였던 천황과 실제적 주권자인 상황(上皇) 사이의 대립이 불가피하였으며, 12세기 중엽부터는 그 세력 다툼이 심해져 그 결과로 호오정(保元)의 난(亂)과 헤이지(平治)의 난(亂)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시기에 그들은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무력(武力)에서 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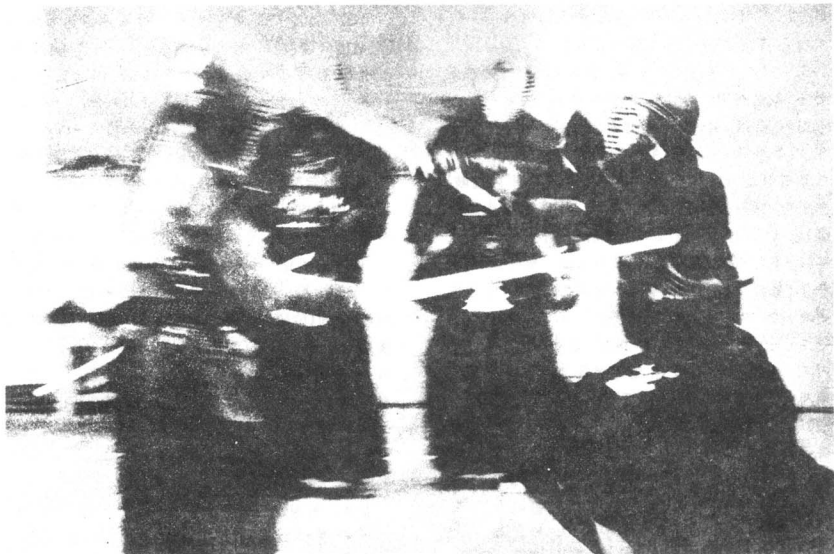
이러한 난(亂)을 통해 무력(武力)의 힘과 무사의 실력, 귀족들에게 인식되었고, 무사 자신들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保元·平治의 난(亂)은 院政 70년간 되풀이 되어 온 朝廷의 추한 정치적 싸움이 무사의 동량(棟梁)인 平氏에 의해 해결되어 종결되었다. 그 결과 귀족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무신정권(武臣政權)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신정권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무사계급의 강대화와 정작화를 촉진

註① 朝鮮上古史, 申采浩, 人物研究所, 1982년 7월

註② 日本 武士道史, p.20, 森川哲, 日本文藝社, 1982년 6월.

註③ 武士道, 内原忠, 岩波書店, 1983년 5월, p.32.

註④ 日本文化史, 小 一馬, 1978년, p.168.



신정권은 사실상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제 2차세계대전의 종식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일본 무사도 정신

일본 무사도정신은 일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고 있지만, 矢内原忠雄은 무사도의 정신 중에서 「義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義는 무사의 규칙 중 가장 엄격한 교훈이며, 孟子가 仁은 사람의 마음이 되고, 義는 사람의 나아갈 길이 된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무사에게 있어서 비열한 행동은 있을 수 없고 잘못된 것을 보고 피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다. 義에는 義理라고 하는 政義의 도리가 있으며, 義理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나 무사가 지켜야 하는 제일의 규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註 ⑤)

다음은 「勇의 정신」으로 사람은 義를 보면 용기를 갖게 되는 데, 용기가 없는 사람은 무사가 될 수 없는 데, 이 정신은 과감하게 돌진해 나가는 정신, 즉 전후(前後)의 일을 생각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정신을 말하며, 보상

이나 보복을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어떤 결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義를 보고 용기를 내는 행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이 「仁의 정신」으로 愛 寬容・同情 등을 동반한 古來 최고의 德으로서 인간이 갖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 마디로 「仁의 정신」이란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자신과 남을 비교해 늘 남을 존중하고 위하는 생각 속에서 행동하고 남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정신을 말한다.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이 「忠義의 정신」이다. 군주에 대해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일본 무사들의 두드러진 특색으로 되어 있다. 무사에게 있어서 충성의 중요성은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이며 무사 최고 영예의 규정으로써 존재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무사도 정신, 즉 「義의 정신」, 「勇의 정신」, 「仁의 정신」, 「忠義의 정신」이 일본무사도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중세봉건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부각된

무사는 동아시아의 사회가 낳은 지도자 형태중에서 실로 독특한 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지형적인 요인이 동양적 전제군주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 것이며, 게르만적 사회 형태에 가까운 봉건제도의 성립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역사가 奈良本辰也는 무사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농·공·상의 삼민(三民)은 그날 그날의 일에 쫓겨 힘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됨 까닭의 길, 즉 근원적인 문제를 간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다. 이처럼 근원적 인륜(人倫)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규범은 성립될 수 없으며, 결국 동물의 사회에 다름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못하는 일, 즉 인륜(人倫)을 바르게 하고 이것을 세상에 나타낼 자가 있어야 한다. 이 임무에 감당하기 위해 생겨난 계급이 바로 무사이다.」(註 ⑥)

따라서, 이들 무사는 원래의 사명이 침략이나 약탈로부터 主君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고, 용감하다는 것과 강하다는 것이 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와 같이 무력을 갖고 싸우는 것이 本分이었던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확실한 견해나 각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山本常朝는 무사들의 수양서라 할 수 있는 「葉隱」(註 ⑦)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사도라는 것은 죽는 것이라 깨달았느니라. ……살인이 죽음인가의 하나를 택해야 할 때 우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 그 이상의 의미는 없노라.」(註 ⑧)

이와 같은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무사도란 죽음으로써 무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닥아올지 모르는 것이며 얼마나 잔혹한 형태로 올런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피하려 해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되며, 그것은 우선 자신의 죽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하게 되었고, 그것은 용모로부터 옷차림에 이르기까지의 세심한 배려를 하는 마치 샤메노노(洒落物: 멋장이)로서의 무사서범 행동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무사로서의 최소한

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섹부구(切腹)(할복자살)용 小刀를 항상 몸에 지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美意識은 갑옷과 무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칼과 창 등의 무구(武具)를 美術品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이는 「平家物語」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服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武藏國의 사람 齋藤實盛는 전쟁이 불리해지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결심한 바가 있어, 땀만 천의 비단장정에 연두색 장식 갑옷을 입고 소뿔형의 투구의 끈을 매고, 금장식 칼집의 큰 칼을 차고, 새깃털과 같은 화살을 매고, 하얀 등나무로 묶어 만든 까만 대나무 활을 쥐고 회색반점이 있는 흰빛 말에 금장식의 안장을 얹어 탔느니라.」(註 ⑨)

이러한 이들의 무구(武具)를 유럽의 기사들이 사용하거나 착용한 것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유럽의 기사들의 것은 實用性이 철저한데 비해 즉,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에 단반의 준비가 기울어져 있으나, 일본 무사의 무구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함은 일단 넘어서 단계를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본 무사의 무구는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보아도 오히려 적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장의 아름다움은 유럽의 기사들에게 있어서도 완전히 무시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무사도와 유럽의 기사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부인에 대한 존경의 태도일 것이다. 기사도의 귀부인에 대한 순애(純愛)는 일본의 무사도에는 없는 것이며, 무사는 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죽지 말라는 말이 있어 한평생 함께 살아 온 아내마저도 임종의 침상에서 멀리 하였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 사상에 기반을 둔 서양의 결혼관과 그렇지 않은 동양의 결혼관은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의 형태로도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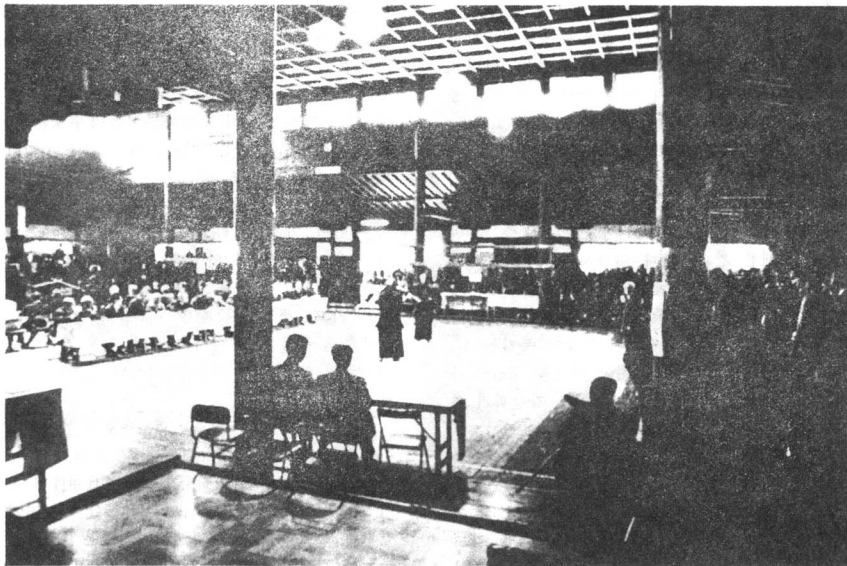
일본 무사에게 있어서 부인은 차별(差別)의 대상이었으며, 서양기사에게 있어서의 부인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註⑥ 葉隱, 山本常朝著, p.31..

註⑦ 일본 무사의 수양서.

註⑧ 葉隱, p.58.

註⑨ 平家物語, 日本古典文學大系 33 p.79.



일본 무사가 추구했던 것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으며, 이러한 무사의 자세는 三島由紀夫가 표현한대로 主君에 향한 가따오모이(片思心)(짝사랑)이었으며, 때문에 일본의 主從關係를 혈연적, 종족 결합적 관계가 짙은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쌍무성(雙務性)이 결여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주종관계의 윤리적 덕목으로서는 家臣의 主君에 대한 복종과 봉사를 표현하는 「忠」과, 무사단 내부의 혈연적 단결의 유대를 위한 「孝」의 두 가지가 있고, 무사 본연의 자세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신명을 아낌없이 主君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武의 세계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밟고 일어서는 세계이다. 따라서 그 상황이 늘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오늘의 실력자가 내일은 草野에 묻혀 은둔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기도 하고, 어느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몰락해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主君을 섬기되 자신의 身命을 다바쳐 섬겨야 하는 무사에게 있어서는 일의 정황에 관계없이 主君의 편에서 선악을 함께 담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무사의 교육 및 훈련

에 대해서 矢原原忠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사의 교육에 있어서 제일로 지켜야 되는 것은 품성(品性)을 세우는 것이다. 지식, 변론 등의 지적 재능(知的 材能)은 중요하게 요구되지 않았으며 무사도 교육의 교육 과목은 주로 격검(擊劍)·궁술·유술(柔術)·마술(馬術)·병법·서도(書道; 서예)·윤리·문학 및 역사 등이었다. (註 10)

이상과 같이 무사도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武의 道는 단지 적을 향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것이며, 결코 후퇴하지 않는 것이었다. 무사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葉隠」에 나타난 무사들의 자녀교육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어렸을 때부터 용기를 북돋아 주고, 만의 하나라도 겁을 준다든지 속인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된다. 가령 어릴 때에 소심한 데가 있었다면 그것은 일생의 허물이 된다.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꾸중을 할 때에도 겁을 준다든지 어둠 속에는 못가게 한다든지 혹은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무서운 말을 들려주거나 해서도

않된다. 또 어릴 때 지나치게 야단을 치면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나쁜 버릇이 붙지 않게끔 해야 한다.」(註 ①①)

이와 같은 그들의 철저한 자녀교육은 鎌倉幕府의 집권자 北條氏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배우자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뜻을 들으려 신기할 정도로 우수한 泰時・時頼・時宗과 같은 훌륭한 남자를 대대로 탄생시켰다고 한다. 한편 鎌倉 시대에 새로이 일어난 宗教인 선종(禪宗)도 무사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이것을 家永三郎가 중세 무사들의 종교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귀족이 미신에 사로잡혀 숙명 앞에서 인간의 힘에 대한 자신의 힘을 믿는 마음이 깊어 인력(人力) 이상의 초월적인 신비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註 ①②)

선종의 가르침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절대적 경지인 죽음과 삶의 세계를 한 발자국 넘어서는 곳에 있는 무아(無我)의 경지이며, 이 경지는 전쟁터로 향하는 무사에게 가장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사람은 죽음을 느낄 때 공포에 떨게되며 삶을 생각할 때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사가 무사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葉隱」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무사도란 시니모노구루이(死物狂心)(결사적인 몸부림) 바로 그것이다. 死物狂心の 무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수십인의 공격으로도 죽이지 못한다. 제정신으로는 큰일을 하기가 어렵다. 미치광이가 되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또 생각을 깊이하게 되면 그 무사는 후퇴하게 되며, 忠도 孝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무사도에 있어서는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있는 것이다. 그 속에 忠도 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註 ①③)

이상에서와 같이 무사는 죽음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죽음의 복장을 하고 미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질주하던 무사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서원(誓願)하며 살았다고 한다.

1. 실전(實戰)에 있어서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말 것.
2. 主君에 봉사할 것
3. 부모를 잘 섬길 것

4. 커다란 자비심을 일으켜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

또, 森川哲郎은 「무사도란 냉엄하게 순수함을 닦는 도이며, 진리의 도를 탐구하는 일도, 진실로 국가를 위해 동포를 위해 생각하는 일도 그 속에 한 점이라도 자신의 명성을 올리기 위한 불순한 생각이 있어서는 무사도는 올바르게 달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註 ①④)

### 3. 현대의 일본무사도

현대의 무사도에 대해 森川哲郎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사도란 무엇인가? 正義에 목숨을 바치는 남자의 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일본 남성의 혼(魂)의 정수(精粹)라고 말할 수 없다.」(註 ①⑤) 「또한, 봉건시대에 있어서는 主君에 충성한다고 하는 절대적이며 불가피한 제도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 도를 통해서 正義를 실현한다는 것에 당시의 일본 무사들은 생명을 걸었던 것이다.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봉건도덕도 붕괴되어 개개인 자유로운 의식하에 선명하게 나타난 正義와 진리의 개념에 목숨을 거는 남자의 기백의 도가 열려 있을 뿐인 현대 사회의 무사도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 1. 사람의 존중

#### 2. 개인의 존엄에의 경의(敬意)

이것이 현대 무사로의 충절의 목표이고 예외의 기본이며, 자신과 남을 연결하는 휴머니즘의 강력한 유대로서, 거기에서 친구에 대한 신의(信義)도, 친형제에 대한 애정 등 새로운 도가 탄생된다. 정치상의 적에 대해서 조차 경의와 애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人權과 人命의 존엄을 확립하는 사회의 형성에 心身を 몰입하는 것이 今후(今後)의 무사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不撓身命・不退轉의 각오와 기력, 그때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높은 思想과 순수한 심정(心情)이 요구된다.」 현대의 무사도는 봉건시대의 무사도가 봉건정치 제도하에서 강조된 主君에 대한 충절

註①① 葉隱, p.87.

註①② 日本道徳思想史, R.98.

註①③ 葉隱, p.98.

註①④ 日本武士道史, p.170.

註①⑤ 日本武士道史, p.204.

이 민주화된 현대사회 제도하에서 개개인의 인 권에 대한 충절로 바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 Ⅲ. 結 論

오늘날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사회 질서, 소속된 직장에 대한 충성심, 언약의 이행, 예의, 회생정신 등은 무사도에서 연유된 것으로서, 일본 사회가 선진화 되며,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떨어져 있어 외세의 침략이 비교적 없었고 그 때문에 일본 민족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독특한 武力을 기반으로 幕府政治 제도는 일본 무사도의 확립의 결정적 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무사도는 정의 를 위해 목숨을 내거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불굴의 정신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일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일본인의 민족정신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무사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백제의 삼랑도(三郎道), 신라의 화랑도정신은 역사의 우여곡절로 인해 현대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스런 선조들의 무도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국기(國枝)인 태권도정신을 확립·실천함으로써 민

족의 역량을 확장하는 무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 武士道, 矢内原忠雄, 岩波書店, 1983年 5月.
  2. 日本武士道史, 森川哲, 日本文藝社, 1982年 6月.
  3. 我が國民思想の研究, 津田左右吉, 岩波書店, 1981年 5月.
  4. 日本文化史, 川瀬一馬, 講談社學術文庫, 1978年.
  5. 葉隱, 山本常朝, 中央公論社, 1977年.
  6. 平家物語, 日本古典文學大系 33, 岩波書店, 1978年.
  7. 日本道德思想史, 家永三, 岩波書店, 1966年.
  8. 武士道の系, 奈良本辰也, 中央公論社, 1981年 5月.
  9. 武士道, 相良, 書房, 1981年 5월.
  10. 菊と刀, 長谷川松治, 社會思想社, 1982年 7月.
  11. 한국의 재발견, 仁, 국민출판사, 1970年 9월.
  12. 朝鮮上古史, 申, 인물연구소, 1982年 7월.
  13. 朝鮮武士英雄傳, 正音社, 1974年 6月.
- ※ 본회 공식 전해가 아닌 개인 논문인.

### 〈 표지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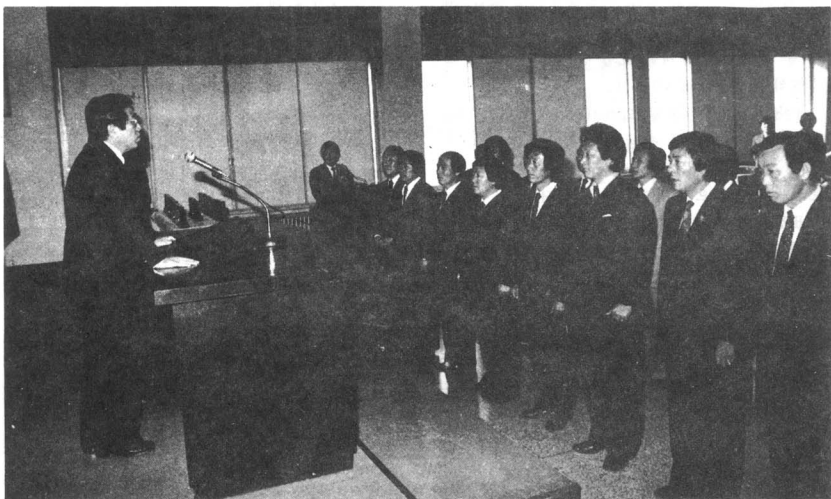
2월 29일 12시 김운용 원장과 같이 현판식을 하는 체육대학 코치아카데미 연수원 이광섭 부원장

국기원 아카데미 연수원은 1984년 2월 29일자로 경기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체육부로 부터 경기지도자 연수원 분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제 태권도는 체육대학에서 실시하는 코치아카데미 교육을 태권도 연수원 자체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로패수여

본회에서는 1984년 1월 21일 각 시·도지  
부 및 본회 임원으로서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  
로가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저변확대와 질적향

상에 공헌도가 높은 태권도인 및 동호인에게 그  
감사의 뜻으로 김운용회장은 공로패를 전달하였  
다.



포 상 자 명 단

| 성명  | 직 위       |
|-----|-----------|
| 이형재 | 경기도협회장    |
| 김성태 | 강원도협회장    |
| 김정주 | 전남협회장     |
| 정만순 | 충북협회부회장   |
| 송봉섭 | 서울특별시전무이사 |
| 안종욱 | 경기도협회전무이사 |
| 박병철 | 강원도협회전무이사 |
| 김 용 | 충북협회전무이사  |
| 예조해 | 경북협회전무이사  |

| 성명  | 직 위       |
|-----|-----------|
| 정건용 | 제주도협회전무이사 |
| 박창덕 | 충고연맹전무이사  |
| 주상일 | 국고연맹전무이사  |
| 박해만 | 기술심의회회장   |
| 권경옥 | 기술심의회부의장  |
| 김봉기 | 경기위원장     |
| 이영근 | 심판위원장     |
| 안영택 | 심사위원장     |
| 노우중 | 사무국운영부장   |



# 우수선수 표창

체육대회에서는 1983년도 기질출 탁월한 경기 기술을 발휘함은 물론 스포츠정신에 투철하여 모범이되는 선수를 표창하였다. 34개 가맹단체와 준 가맹단체 3개를 포함 37개 단체에서 각 1명씩 선발표창을 하였다.

1984년 2월 13일 오전 10시 체육대회 10층 강당에서 실시한 시상식은 정준영회장의 시상과 식사에 이어 체육부장관의 격려사를 최 권호차관의 대독으로 표창식을 마쳤다.

표창을 받은 김기호선수는 84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로, 서울 영등포중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 박창덕(현·중교연맹전무이사) 선생의 지도로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현 한국

체대에 특기생으로 입학 태권도를 만 10년간 한순수 스포츠 태권도 선수로서 30여개의 대회에 고무 출전했던 선수이다. 해외 원정경기로는 한미, 멕시코 친선대회, 홍콩, 마카오, 대만, 친선경기, 에쿠아돌에서 거행한 제5회 세계선수권 대회등에 출전한바 있다. 30여회의 경기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임은 에쿠아돌의 세계대회에서 스페인선수와 대전에서 경기진행중 관중들의 환호소리와 응원소리에 심판원(주심)의 갈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스페인선수를 코너로 몰아 넣고 들어찍기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대방이 완전 K.O.(출도)가 되어 반칙패를 당하였다. 참석하기가 그리 쉽지않은 세계대회에서 말아놓은 것



이나 다름없는 우승의 영광을 관중들의 환호성과 다소 흥분된 감정으로 주심의 "갈려"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격한 것은……안타까운 추억이 될 만하다.

김기호선수는 우수선수로서 병역면제의 혜택도 받았고 또 졸업하면 중, 고교의 정교사자격증도 취득하게 됨으로 교단에서 후배를 지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다. 또한 김선수는 일찍 조노하는 선수가 아닌 태권도 OB선수로 86 아시아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그때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아서 첫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의를 굳힌다. 이제 사회 초년병인 김선수의 내일에 갈채를 보낸다.

김기호선수 전적

성 명 : 김 기 호

생년월일 : 1961년 8월 7일

본 적 : 서울 중구 황학동 18

주 소 : 서울 동작구 상도 2동 363(36/5)

1984년 2월 한국체육대학 졸업

전 적

79. 3. 24. 1979년도 전국신인 편급 2위

선수권 대회

9. 15. 15회 협회장기전 6회 편급 3위

중고 개인선수권대회

11. 24. 1979년도 전국 우수 편급 2위

선발전

80. 7. 4. 제 15회 편급 1위

대통령기생탈전

11. 26. 1980년도 편급 2위

전국우수선발전

81. 6. 13. 제 16회 플라이급 1위

대통령기생탈전

10. 14. 제 62회 플라이급 1위

전국체육대회

83. 4. 15. 1983년도 플라이급 1위

한국대표 선발전

1차전

4. 22. 1983년도 플라이급 2위

한국대표 선발전

최종전

5. 27. 제 10회 플라이급 1위

대학연맹전

6. 24. 제 18회 플라이급 1위

대통령기생탈전

10. 10. 제 64회 플라이급 2위

전국체육대회

11. 11. 1983년도 플라이급 1위

전국우수선발전

83. 11. 11. 1983년도

최우수 선수상 수상

84. 2. 13. 대한 체육회 우수

선수상 표창

## 국기원 원장 일선장병 위문

1984년 2월 8일 육군○○군단 사령부를 국기원 이장원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방문 군단장께 공로패와 위문품(금성 TV 20인치 1대, 카라디오 2대)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또한 1984년 2월 18일 육군○○사령부를 방

문 군사령관, 장전처장께 공로패를 전달하고 장병을 위문하였다.

1. 지난 83년도의 태권도의 국내, 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상황 설명과

2. 83년 8월 16일 베네주엘라 "카라스카"

에서 개최된 제9회 범, 미주경기총회(Pan-am Games)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경위를 설명 제10회 대회(87년)에부터 정식종목으로 경기를 실시키로 된것

3. 83년 9월 25일 O.C.A(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회장단이 내한 86 아시안게임에 태권

도가 정식종목으로 결의하게 된 사항과 84년 O.C.A 총회에서는 인준절차만 남아있음을 설명하였으며

4. 앞으로 있을 88"올림픽에도 시범종목으로 채택을 위해 계속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을 설명하였다.

## 국기원 경기장(마루판) 공사 완료

국기원에서는 1972년 11월 30일 설치한 경기장 마루판이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되었던 것을 1983년 12월 5일부터 25일간에 걸쳐 83년 12월 30일 완전교체 하였다.

3천6백여만원을 투자한 공사로 깨끗하고 튼튼한 경기장이 되었음은 태권도인으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 대한태권도협회

## '84 기술심의회 임원 임명

본회는 2월 28일 '84년도 기술심의회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김운용회장을 모시고 국기원에서

거행하였다. '84년도에 태권도 발전을 위해 수고할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84년도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장 박해만

부 의 장 박명수, 권경옥

분과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경기분과위원회 김 봉 기 김영삼, 서경무

심판분과위원회 안 영 택 김용길, 김정대

심사분과위원회 임 순 호 고칠성, 박용화

선수강화분과위원회 이 규 석 최영렬, 유병호

국제분과위원회 이 승 국 박현설, 김태용

연구분과위원회 백 운 대 김대연, 이덕태,  
김용수

상설분과위원회 이 영 근 김영철, 최대웅,  
조경수

위 원  
오함숙, 정찬진, 라동식, 명재승, 임종민,  
황병우, 강영선, 김대영

이천수, 박종명, 장용갑

김갑식, 최석철, 김형두

남상덕, 박수복, 이백운, 김세혁

강세형, 최광근, 박병호, 한광열

이상진, 이동섭, 김홍수, 장영수, 이용목,  
이완교

신우철, 최연수, 정연주, 유백만

## '84기술심의회 임원 임명



이날 김운용 원장은 태권도 발전에 공이 큰

'84년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일할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의 장 김순배  
 부 의 장 강정구, 전재규

|           |     |                  |
|-----------|-----|------------------|
| 분과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
| 기획분과위원회   | 한광수 | 양영모, 이학천,<br>조호철 |
| 심사분과위원회   | 이규정 | 전창식, 김태균,<br>이규현 |
| 생활환경분과위원회 | 문창남 | 맹만호, 김종영,<br>유상철 |
| 연구분과위원회   | 안해욱 | 정찬성, 심영억,<br>범기철 |
| 국제협력분과위원회 | 김정인 | 조광휘, 임홍수,<br>심재익 |
| 시범분과위원회   | 김영작 | 이규형, 박덕규,<br>이상달 |
| 외무위원장     | 김용서 |                  |

위 원

조순탁, 정연학, 김대성, 이완배, 김병숙, 윤성기, 강성기, 한용난, 남복현, 유수용, 장순권, 김강인, 한상국, 강선익, 김화경, 이충인, 서인종, 이석원, 구연희, 장남웅, 김복식, 박광일, 김종성, 임희용, 이연구, 김대용, 이순홍, 김기일, 김창기, 김성배, 이교범, 문영환, 조윤재, 김기대, 박종율, 오순석, 박정희, 이 봉, 진중의, 양동렬, 정경덕, 최준배, 김학근, 장득중, 박 용, 배해용, 변중수, 이삼근, 김판중, 한상진, 이종관, 최봉호, 심영구, 정희희, 김현성, 김적구, 김의용, 차용훈, 이창근, 고영록

# 세컨드 - 윈드

2nd Wind

-白鴿-

## I. 윤중제의 반

춘삼월(春三月)이지만, 여의 도의 제방 위에는 옷섭을 여미게 하는 시새움이 깔고 있었다. 명멸하는 도심(都心)의 물빛이 타원형의 형광막을 덮어 띄운 듯이 뿌옇게 보였다. 남산의 산허리를 휘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깊은 밤의 서울을 야수의 홍명한 안광(眼光)처럼 빛을 뿌리고 있었다.

상미는 늦은 밤의 한기(寒氣)에도 현옥과 나란히 걷는 것이 좋았다. “江은 어디까지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상미는 현옥이 아랍토후국에 가달라는 윤부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 하자 그렇게 대답했다.

“한강은 이제 잿빛으로 보이는 것 같아” 현옥은 가슴 속으로 웅하니 회색의 밤바람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정말, 한강은 어릴적 고무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던 때와는 많이도 변해 있었다.

강줄기를 따라 좌우에 빼곡히 늘어 서있는 고층 아파트군(郡)이 한강을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그 속에서 아가미까지 회색으로 물들어 죽어가는 민물고기를처럼 서울 속에서 사람들 역시 폐공이 잿빛으로 퇴색하는 것만 같다고 「멘트」를 붙조리듯이 상미가 말했다.

현옥은 주말에 도장에 가달라는 말을 던지고 집 앞까지 상미를 바라다 주면서도 별 말이 없었다.

두사람의 마음에, 윤중제에서 내려다 본 한강의 암청색 여울은 새벽이 올 때까지 잠들지 못하도록 짙은 음명을 내렸다. 「마리안·앤더슨」이 부르는 「깊은 잠」의 평안함 같은 깊은 잠을 현옥은 여명이 판악의 종성이에서 피어날때 쯤에야 이를 수 있었다. 침처럼 없었던 잠자는 잔 현옥

은 약수를 들이켰다. 마치 한강의 비릿한 기름냄새를 지우기라도 할것 처럼

토요일은 도장에 더욱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다. 수선명의 수련생들이 일으키는 갓까지 「해프링」에 웃음짓다 보면 어느새 토요일, 판악의 능선달리기 날이곤 했다. 토요일은 수련생들 중에서도 꼬마들이 특히 좋아했다. 중턱에 있는 헬기장에서 기막친, 말타기, 「오징어」, 「다방구」그리고 사범의 「옛날얘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옥은 토요일이 사람들을 어딘가를 들뜨게 하는 마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주인을 잊어버린 양말, 내의등도 토요일에 제일 많이 쌓였다. 그들 양말짝과 꼬마들 런닝·팬티를 정리하면서 현옥은 토요일을 실감하곤 했다.

주말의 산행(山行)이 시작되고 헬기장에서 군대식 제식훈련을 가르치고 있을때쯤 도장에서 책을 보고 있던 고등학생 동만이가 상미와 같이 올라왔다. 그녀의 흰 이마에 땀이 송글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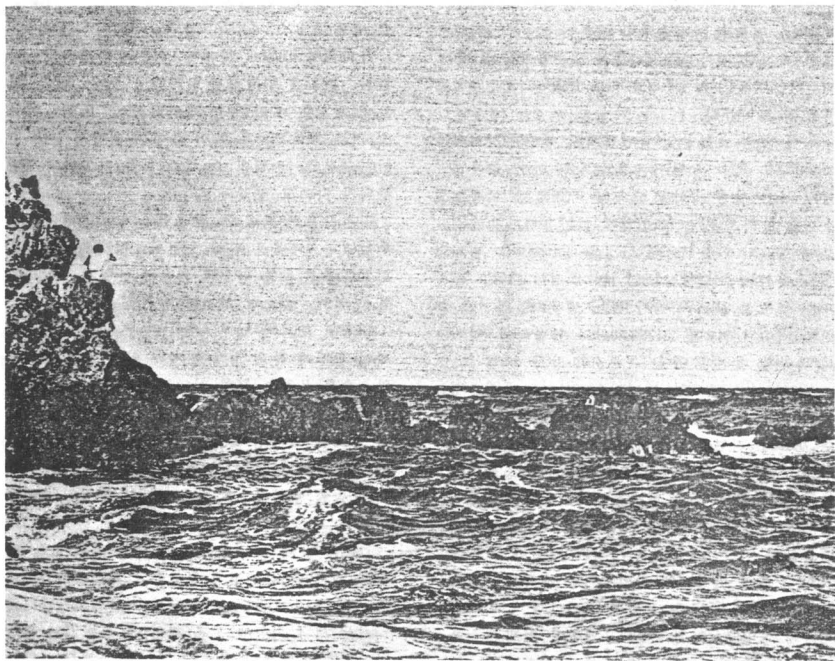
수련생들의 눈동자가 상미와, 그녀를 쳐다보는 현옥의 표정에 고착됐다. 그날은 오락회가 벌어졌다. 먹을 것들이 상미의 손에서 나뉘어지자 꼬마 수련생들은 그녀가 사범님 부인이라며 숙덕거렸다. 어떤 녀석은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라고 인사까지 했다.

짓곳은 몇 녀석의 주문에, 부른 상미의 노래는 「몸쳐녀」였다. 마치 그녀가 아직 현옥의 부인이 아닌 처녀의 신분임을 못충각(?)들에게 광고라도 하듯이……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 했다.

현옥의 「선구자」를 아이들이 모두 배웠다. 판악은 「선구자」로 가득 했다.





## Ⅱ. 갑포 (2 학년여름의 修練)

갑포는 경상북도 월성군 갑포읍을 말한다. 포항에서 남쪽으로 한 80 리, 경주에서는 동면으로 70 리쯤 떨어진 어항이다. 북쪽으로 빠죽 솟아나는 소나무 동산이 가파른 암벽으로 깎아 질려 파도가 으르렁대는 그 위로 햇빛에 반사되어 온 빛으로 보이는 갈매기 날개 색깔의 등대가 있었다. 남쪽으로는 제방이 한 300 여 미터쯤 있고 더 남쪽으로 한 시오리쯤 밀으로는 대왕암(大王岩)이라고 불리는 문무대왕 수증릉이 있는 대본 해수욕장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바다가 끝도 없이 청남색의 울동이 넘실대어 하늘과 맞닿을 만큼, 넓은 바다가 눈 밑으로 펼쳐지는 몇백 해묵은 어부들의 고장이다.

현옥의 학창시절, 그 혼돈된 가치관이, 형클어진 머리칼 같던 「테모」와 「진압」, 「요설」과 「애국」의 투석전(投石戰)에서 현옥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분출구는 딱 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문무겸전」이라는 수신(修身)에의 집념과 「스쿠바·다이빙」이었다.

현옥이 스쿠바·다이빙을 익히게 된것은 해군 제독이었던 분이 해중 개발학회를 창설하고 젊은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잠수훈련을 시키는데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현옥의 동기들은 모두 9 개 대학에서 선발, 지원한 스물 한명이었다. 현옥은 일찌기 광복군훈련에서 수영에 능숙한 리건호씨에게 해엄치기를 배웠지만 전문 교관요원들에게 체계적 강습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현옥의 동료들은 아침 6 시에 기상해서 10 km를 달렸다. 또 9 시부터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1 시간 정도를 모래사장에서 피티(P. T=Physical Training) 체조를 했다. 보통 조그려뒤키를 21 명이 10 개씩 돌아가면서 구명을 붙이며 하는 식이었다. 현옥이 놀란 것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만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현옥의 다이빙 훈련은 잠



수장비를 메고 10km를 50분이내에 주파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상훈련이 마무리 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유디.티(U.D.T)의 훈련과정을 현옥은 4주간에 수료한 것이었다.

바다 속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생명의 환희로 가득했다. 현옥이 팀 장으로서 제일 먼저 잡수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의 숨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다. 바다 속의 그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탄성을 올리면서 뇌리에 스친 것은 이 지상(地上)의 풍경이 대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또, 인간 세속의 역겨운 자기 과시와 떠벌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였다.

바다의 무한 광대한 에너지와 힘 아래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길러내는 지혜에 현옥은 새로운 자연을 느꼈다. 현옥이 「마우스·피스」(압축공기 통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절기를 통해 위에 문 마우스 피스를 거쳐 페로 흡입됨)를 통해 숨을 쉴 때마다 버블(거품)이 해면으로 떠올랐다. 아가미가 없는 지상의 인간이 수중에서의 호흡을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소리가 현옥이 바다 속에서 들은 유일한 것이었다. 바다는 현옥의 침입에 늘 반대했다. 그들은 언제나 온몸으로 현옥을 감싸 안았다. 생명의 모태인 바다! 현옥은 이때부터 바다에서 父性과 母性, 男과 女의 양성(兩性)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바다 표면의 저 웅대한 용변과, 안으로 감싸고 있는 침묵의 보고(寶庫)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현옥이네들이 아침마다 해변을 달리며 등대 언덕에서 질러대는 구령으로, 감포 항구에도 빨간 수영복차림의 서울서 온 대학생들이 화제거리가 되었다.

순박한 어부들 중에서는 갓 잡은 팔길이 만한 향어나 삼치를 찢먹이는 채로 회를 떠서 금복주한병을 찢려 넣고 찾아오는 패거리도 있었다.

머구리질을 하는 사람들은 잠수훈련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펄프질식 잠수와는 다른 잠수법이라면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 청년회에서는 일부러 회식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화랑회라는 윤동구락부 있는데 회장인 김청식은 자칭 3단이었고, 별명이 쌍칼이라는 건장한 어부였다. 그들과의 회식에서 장기자랑이 벌어졌다. 흥이 돋자 팔씨름이 발씨름, 살씨름에

서 밤마다 해엄치기까지 청년들의 오기 거품으로 변했다.

바다에서 해풍에 씻기며 자란 그들이 역시 강했다. 현옥은 김청식과 발씨름을 했다. 발을 서로 엇걸고는 뼈가 닿는 사이에 쿵을 한알 끼우고 서로 반대편으로 밀어 붙이는 인내심 겨루기였다. 결국, 피멍이 든채로 5분 이상이나 겨루다가 비기고 말았다.

김청식은 서울서 온 약골한테 망신당했다며 투덜댔다. 현옥은 피식 웃었다. 청식은 담배를 피워물론 친구를 일으켜 세우더니 멋진 발재간을 부렸다. 앞둘려 차기로 담배를 쥐었다.

현옥도 오기가 났다. 현옥은 두사람을 일으켜 세워 첫살에 꽂은 명계를 머리 위에 들게 하고는 왼·오른 몸둘려 후려 차기로 깨뜨려 버렸다.

청식은 현옥에게 놀랐다. 둘은 이튿날 해안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솟아나온 바위섬으로 나란히 해얼쳐 나갔다. 그리코는 대양(大洋)을 향해 오름을 누었다. 호연지기에 찬 우정의 배설이었다.

그로부터 청식이 신혼 초에 폭풍 예보에도 아랑곳 없이 방어 어장에 쳐놓은 그물을 살피려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서울에 불속 나타내서는 지난 가을에 잡은 제일 큰 놈이라며 귀한 방어포를 훈장모양 흔들어 던져놓곤 했던 바다의 친구였다.

현옥은 청식을 위해 도복을 스무벌쯤 보내주었다. 등대 언덕의 술밭에서 갯내음과 청식의 기합이 들려오곤 했다. 청식의 아들은 아바의 건어부친 뱃사람의 잠방이차림 사진과 검은 띠를 매고 외연하게 바다를 마주대한 도복차림을 보며 자랄 것이라고 현옥은 종종 생각했다.

현옥은 그런 청식이 부러웠다. 그에게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현옥은 바다에 설 때마다 되뇌이곤 했다. 청식은 현옥에게는 해풍이었다.

### Ⅲ. 장미의 성(城)

윤부장의 중동행(中東行) 제의에 對해 상미는 "현옥씨 취재차 중동특파원이라고 지원해야 할까요?" 라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옥은 그녀에게 "사범에게 시집오면 평생 도복이나 뽀

면서 정은 제자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텐데……”  
라고 정색을 했다. 상미는 “언제 프로포즈라도 했어요?” 라고 탄전을 피었다.

현옥이 결혼을 서두르지 못하는 것은 세인(世人)들이 도장사범을 스승으로 보기 보다는 무술의 기능인으로 취급해서, 자기 아들이 밖에서 매맞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실제로 교육자 중의 교육자이신 교장선생님까지도 달동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 또, 많은 선배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빈곤한 속에서 열시를 받아온 까닭에 후배사범들이 궁지로 삼을 만한 귀감이 부족하기도 했니.

현실을 잘 아는 현옥으로서는 상미를 고행에 동참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한 이삼년 돈을 벌어 친구들이랑, 수영장이 딸린 청소년 스포츠 센터를 세우고 싶기도 한데…….”

현옥은 상미에게 빛을 지기가 싫었다. 그것이 현옥의 사랑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전호 도장에는 인회의 천진한 메모가 날라왔다. 취직한 후에 첫 월급날이어서 저녁을 사러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옥은 도장에 인회가 오는 것이 싫었다. 전화를 걸어 도장에는 오지말라고 했다. 둘은 설령 탕집에서 만났다. 그땐째 들어 훌훌 마시는 현옥을 보고, “오빠는 숙녀 보고 설령탕집에서 만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며 빈정 거렸다. “저녁 산다길래 제일 잘하는 집에 온거야 :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는 청에 결국 거실에 앉게 된 현옥은 그녀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차대접까지 받고 말았다. 기쁨있는 매무새에는 현옥도 마음까지 여선생님 앞에선 국민학생 같은 심정이 되었다.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사려깊은 그녀의 마음씀이, 그녀의 교양이었다. 현옥은 수련의 교육에서 오히려 사범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실명했다. 상미와 인회, 그리고 인회의 어머니가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면서 주말에는 어머니 체여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인회의 집 담장에는 넝쿨장미의 싱그러움이 열려 있었다. 「삼푸」를 한 여인의 머리결 내음 같은 신선한 분위기가, 그녀의 집은 장미의 성으로 불

려도 손색이 없었다. 도장에서는 장미일 같은 선흥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현옥이 도장을 비워는 사이, 창규가 진검(眞劍)을 싸들고 신의(信義)를 베어버린채 증발 해 버렸다.

창규는 달포쯤 전에 지방에서 제수를 해서 대학에 가겠다고 상정한 확실한 지도교사였다.

“사범님께 죄를 짓고 떠납니다. 빛은 꼭 갚겠습니다” 이런 메모 내용을 보고는 현옥은 가슴이 메어졌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운동을 잘했고 성격도 쾌활하고 예절도 바른 시범 후보라고, 믿었던 창규였다. 통장의 몇 십만원의 돈보다도 잘 배려 놓은 眞劍 한자루를 전리품인양 들고간 것이 걱정스러웠다. 만일 앞으로 들고갈 것이 없으면, 그 칼이 칼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창규는 현옥의 검은로 배신의 피를 뿌리고 떠났다.



현옥은 밤을 새워 좌선을 했다. 공허의 무망한 심신 일치가 아닌 맹렬한 자기반성의 채찍질을 내리쳤다. 제자나 후배에게 사랑을 베풀며 격(格)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언행에서 자칫, 후배나 제자들이 사범이 경망스럽다고 느끼게 한 일은 없었는지? 빈틈이 있어 점에 베어진 꼴이었다. 마치 「부루티스」에게 찢린 「시저」가 생리적 이름 보다는 배신감에의 좌절로 죽어 갔듯이…….

장미성에서 잠시나마 방향(芳香)에 넋나간 현옥의 마음 매무새에 등뒤로 비수의 노림이 있었던 것은 현옥에게 다시없는 실전(實戰) 경험이었다. 장미의 「핑크」빛 성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춘정(春情)이 현옥의 마음에 스물거리는 것을 도장(道場)의 劄은 용서치 않고 찢려 들어오는 것이었다. 「방심치 말라」는 노사범의 포령

이 웅웅 거리는 가운데 면벽의 현옥은 날을 새며 마음에 흐른 혈혼을 닦아 내었다.

창구를 그 후로 만나지 못했지만 언제가는 용서받을 준비가 될거라고 믿었다.

#### Ⅳ. 폭력? 정의?

날이 점점 풀리고 판악의 등성이에 잔설이 다 녹아내릴 무렵에는 상춘객들이 물려들었다. 낮동안은 그런대로 질서가 잡혔지만 밤이면 갖은 행패가 잠복해 있었다.

어느날엔가 비가 뿔뿔이는 밤에 술에 만취한 젊은 청년들 넷이 도장문을 두드렸다. 「루소」의 「에밀」을 읽고 있던 현옥이 무슨일 이냐고 하자. 진흙 투성인 구두발을 도장 마루위에 올려 놓으면서 좀 쉬었다 가잔다.

보아하니 근처 불량배들이 술김에 도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는 수작같았다. 현옥은 쉬더라도 신발은 벗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들 넷은 아랑곳도 않고 뺨을 툭툭 치기도 하고 돌려돌려 도장을 살피기도 했다. 「판장이슈?」「사범입니다.」「몇 단이슈?」「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수작을 거는 품이 여간나기들이 아니었다.

그들 중에서 한 녀석이 진흙발로 뺨을 멋지게 차자 현옥은 드디어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네를 도장청소 하고 싶나?」「열씨구」「이천구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만」, 「너희들이 큰애들이 아닌건 확실해! 이놈들 도장에 흙발로 들어 오다니 목발 짚고 나갈 작으랴!」

현옥의 노기에도 놈들은 유들거렸다. 당장에 물고를 내고 싶었지만 도장안에서 술취한 불량패를 켜었다. 해서 무에 자랑이 될까 보냐고 경찰서로 걸화를 걸었다.

전화를 거는 현옥의 팔목을 잡고 비트는 솜씨에 해묵은 무술의 재주가 깃들여 있는 것을 느끼면서 현옥은 이들이 술취한 불량배가 아닌 것

을 알았다.

「너희를 이리저 말고 정식으로 겨루어 보자」 「좋지, 사범님 우리가 바라던 바야」 일본계 혼합무술을 몇년 한 솜씨였다. 제법 힘이 압혀 손발이 조화되는 정도였으나 현옥의 들어찍기에, 뺨을 찬습은 도장바닥을 활았다.

한꺼번에 덤비는 놈들을 주먹 한번 안쓰고 겨루차기로 겨루려 뜨리고는 현옥은 그들에게 청소도구를 주었다. 앞으로는 도장에 술냄새를 풍기지 말고, 신은 반드시 벗고, 태도는 방정하게 하고, 예의를 잘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돌려보냈다. 막, 현옥이 잠들려 할때 이번에는. 경찰관이 찾아왔다. 김순경은 파출소에 잠시 가자고 했다.

네놈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머큐륨에 반창고까지 붙인 얼굴로 앉아 있었다. 현옥은 내심 후회했다. 불량배들을 상대로 켜한 부딪침이었다.

자초지종을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현옥의 마음에서 일기 시작한 것은 과연 오늘 그가 도장에서 구사한 것이 폭력이나? 정의이나? 하는 문제였다. 순경으로부터 되려 꾸중만 잔뜩들은 녀석들이 돌아가자 김순경은 현옥에게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간사를 부탁했다. 현옥은 오늘처럼 남의 잘못에 대해 용서할 줄 모르고, 무예를 휘두른 사범이 자격이 있겠느냐고 사양했다.

현옥은 부끄러웠다. 순잔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지도가 아닌 구타를 한 결과에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오히려 마을에서는 그일로 인해 현옥이 양전하고 지성적이 기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 호랑이처럼 무서울 때도 있다고 신기해 했다. 현옥과 전호도장은 달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공부를 안한다, 밥을 잘 안먹는다, 사춘기에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진학안내, 연애, 이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현옥은 안내를 해 내야만 되었다. 그 자신의 진로는 벌써 저만치 뒤편에 있었다.

#### \* 명 언 \*

오늘날 현재인은 두개의 병(病)을 갖는다.

자기자신을 잃어 버린 것이 첫째 병이요,

자기자신을 잃어 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둘째의 병이다.

## 대한태권도협회 발행

### 계간 태권도지 구독 안내

- ① 연간 구독료를 소액환 또는 송금환, 수표로 보낼 것(아래 신청서를 함께!)  
 ② 구독신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

| 구 분    | 지 역 구 분                    | 국 가 명                                                                                                                                                                                               | 년 간 구 독 료<br>(우송료포함) |         |
|--------|----------------------------|-----------------------------------------------------------------------------------------------------------------------------------------------------------------------------------------------------|----------------------|---------|
| 제 1 지역 | 동부아세아                      | 자유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 \$ 17.00             | 12,000원 |
| 제 2 지역 | 동남아세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버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 20.00             | 15,000원 |
| 제 3 지역 | 중동, 유럽,<br>호주, 북미          | 아프가니스탄,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부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서독, 영국, 그리스, 그린란드, 하와이,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페루, 룩셈부르크, 모나코, 몽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시리아, 스리랑카, 미국, 멕시코 | \$ 24.00             | 18,000원 |
| 제 4 지역 | 중미, 남미,<br>아프리카, 서<br>인도제도 |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알제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체코, 이집트, 가나, 자마이카, 케냐, 리비아.                                                                                                                         | \$ 25.00             | 19,000원 |
| 국 내    |                            | 시·도 구분없이 동일함.                                                                                                                                                                                       | \$ 6                 | 4,200원  |

(단, 84년도 체신요금 및 잡지대 기준임)

### 태권도지 구독신청서

| 신청자 이름 | 받 아 볼 곳 의 주 소 | 비 고                             |
|--------|---------------|---------------------------------|
|        |               | 태권도 수련경험이 있으신 분은 현 단(품)급을 적으세요. |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 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  
 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  
 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  
 운다.  
 우리의 창외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  
 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 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계간 태 권 도 제48호

1975년 9월 1일 등록 마-391호  
 1984년 4월 10일 발 행  
 발행인 김 운 용  
 편 집 홍 보 실  
 편집위원 엄운규·홍중수·이종우  
 배중호·박갑철·황춘성  
 편집간사 한 규 인  
 인쇄처 코 리 아 헤 럽 드  
 발행처 대 한 태 권 도 협 회  
 전 화 776-2374

■ 本誌는 雜誌 倫理委員會의 實踐  
 要綱을 遵守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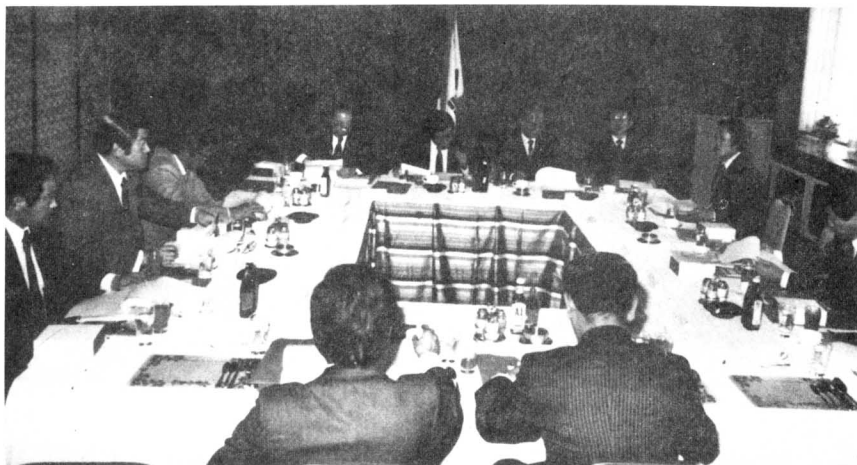
### — 편집후기 —

-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기다리기에, 꿈  
을 꾸며 기다렸다. 태권도인 모두  
의 마음에 春三月의 봄기운으로 가  
득하소서 .....
- 86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가 정식 종  
목으로 채택되도록 상정하겠다는 정  
부의 방침이 확고하다고 .....  
모두 배우는 자세로 뛰어 봅시다.
- 84년도엔 지방협회의 큰행사를 찾  
아 뛰어 볼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 본회 이사회

일시 : 1984년 1월 14일  
장소 : 뉴서울호텔 동백홀



이사회 전경



김영원 이사 한봉수 부회장 김운용 회장 김준철 부회장 엄운규 부회장 황춘성 전무이사



유상열 이사 황경노 이사 이종하 이사 이계광 감사 인창근 감사

# 본회 '84년도



김 윤 용 회장



총회



박 해 만 (중앙)

송 봉 섭 (서울)

김 성 태 (강원)

김 순 배 (중앙)



예 조 해 (경북)

박 창 덕 (중·교연맹)

박 명 수 (중앙)

좌 봉 택 (제주)

# 정기 대의원 총회 (대의원사진 무순)

일시 : 1984년 1월 21일

장소 : 대한체육회 강당



현경



최 인 범 (대학연맹)      전 재 규 (중앙)



조 영 기 (전남)      이 진 수 (충남)      안 중 웅 (경기)      이 용 복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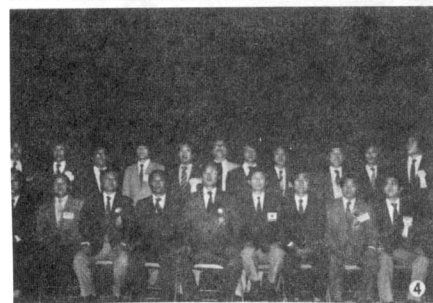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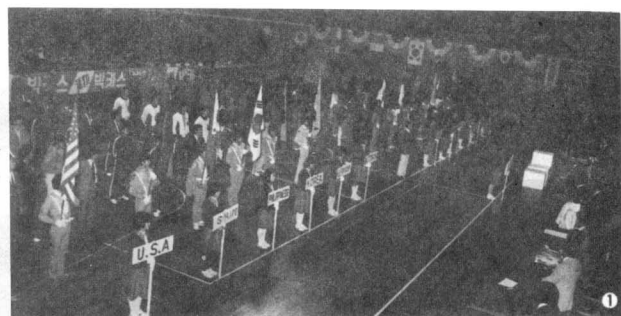


주 상 일 (국교연맹)      정 만 순 (충북)      이 순 달 (경남)      장 한 철 (전북)





일시 : 1983년 12월 10일~11일  
장소 : 국민대학교 체육관



- 1 세계 12개국에서 참석한 선수들이 도열해 있다(개회식모습)  
Competitors from 12 countries in line for the Opening Ceremony.
- 2 강용구(명지대)의 선수대표선서  
Kang Y. K. taking oath representing all the competitors.
- 3 대한태권도협회주최만찬(세종홀 AB 룸에서)  
At the dinner host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
- 4 대학연맹의 이상주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Officials of the Collegiate Taekwondo Union (President Sang Joo Lee at the Center, front line)
- 5 문교부장관초청만찬(올림픽아 호텔에서)  
At the dinner-buffet hos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 6 우승의 주역들  
Members of the winning team.



7 준결승(헤비급) 미국: 필리핀 키가 40 cm나 차이가  
Heavy weight competitor from USA (runner-up champion)  
vs the competitor from the Philippines (difference of 40 cm  
in height).

8 유고의 우승(라이트 헤비급)  
Champion of the Light heavy weight (Yugoslavia)

9 미국의 우승(미들급)  
Champion of the Middle weight (USA)

10 이 상주 회장의 시상광경  
Dr. Lee, president of the Union awarding the winners.

11 한국의 우승(웰 터급)

